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9 Vol. 237



부산가야금연주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영화의 전당 개관기념

2011 3rd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2011. 10. 8 Sat. 영화의 전당 야외상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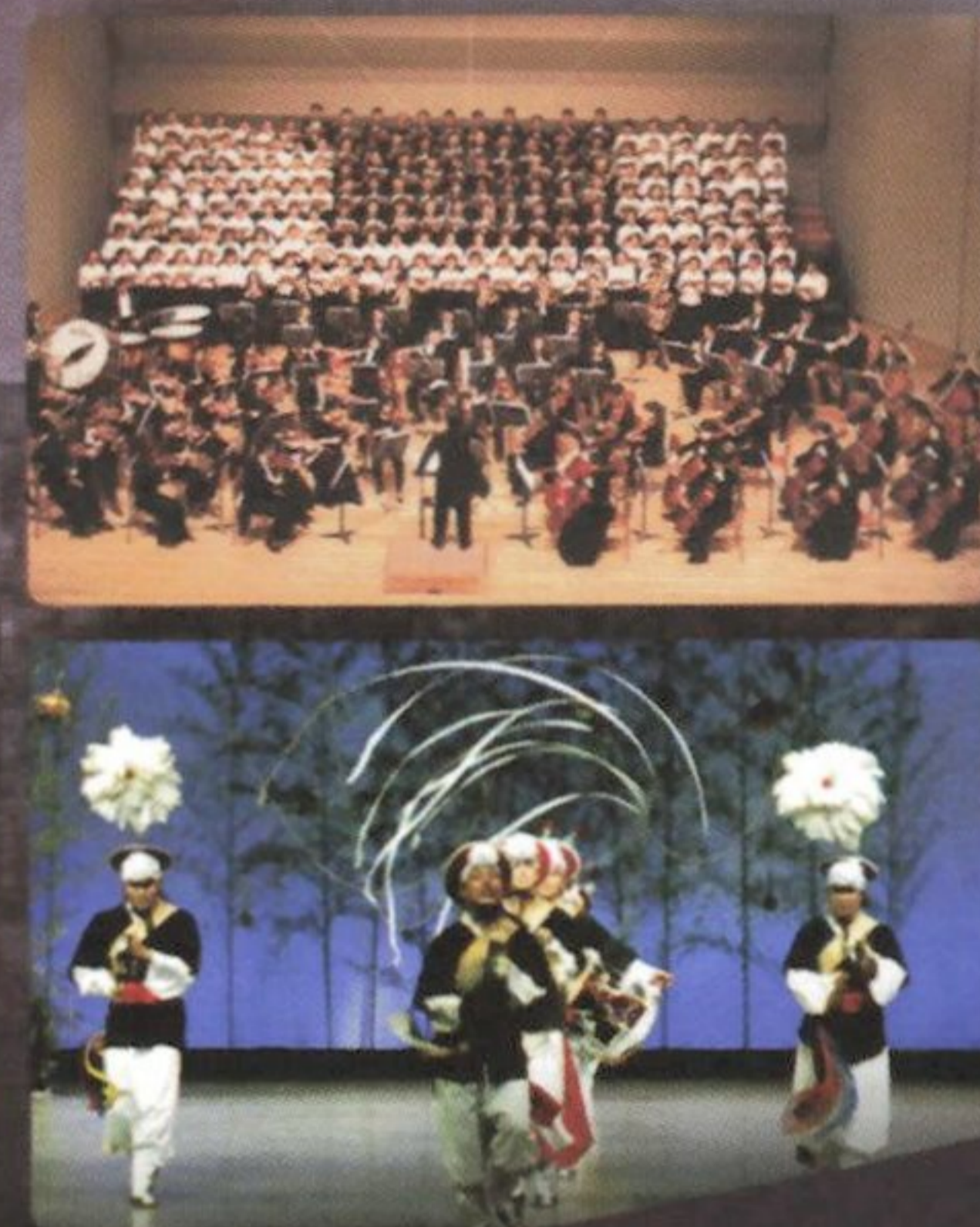


Vn. Chee-Yun Kim

Sop. Jung-Won Park

BWPO 2011 국민대축제

영화의 전당 야외상영장의 웅장한 울림으로 영원히 기억될 꿈의 콘서트!
최고의 솔리스트와 300여명 출연진의 대 하모니!!



| 주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KNN 문화재단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초대권(1인 2매)으로 음악회 이후 당일 BIFF 야외상영장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으며, 초대권은 **KNN**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 피아노 음악의 거장, 건반위의 철학자

RUSSELL SHERMAN

PIANO RECITAL

러셀 셔먼 피아노 리사이틀

PROGRAM


슈만 아라베스크 C 장조, Op. 18
R. Schumann Arabeske in C Major, Op. 18

판타지 C 장조, Op. 17
Fantasy in C Major, Op. 17




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
F. Liszt Sonetto 104 del petrarca

소나타 B 단조, S. 178
Sonata in B minor, S. 178

2011년 9월 22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September 22, 2011 at 7:30 p.m. at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입장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 B석 3만원
- 예매처  www.interpark.com  팜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 음악회문의 및 단체예약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051 740 5833 www.busanarts.com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게는 10% 할인 됩니다.

1812년 서곡에 이어 우리민족의 대서사시 코리아 환타지까지
 감동의 세계를 향해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Cond. Choong-Keun Oh

Program

- 반젤리스 Vangelis '1492콜럼버스' OST 중 <낙원의 정복>
<Conquest of Paradise> from '1492 Columbus'
- 사라사테 P.Sarasate 짜고이네르바이젠
Zigeunerweisen op.20
- 푸치니 G.Puccini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 from Opera 'Turandot' 외 수곡

- 예술감독 겸 지휘 오충근
-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 협연 바이올린 김지연 소프라노 박정원 남성중창 부산 10 Tenors
사물놀이 버숨새예술단 합창 부산연합합창단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JX113T PE



M3 SM



M2 SBW



M2 SM



그랜드 피아노 대여.조율.운반
국가공인 1급자격 조율사

■ 디지털피아노



▶P-95



▶YDP-141



▶YDP-V240



▶CLP-440

■ 야마하 피아노 악기 취급점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747
-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051)745-236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246-0660
- 홈플러스 해운대점 051)743-7785
- 홈플러스 장림점 051)266-4747
-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051)506-7332
-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010-4242-6382
- 롯데마트 웅상점 010-4911-6263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II

-그림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II

2011. 9. 8 목 오전 11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_ 이동신



진행·해설_ 정준호



첼로_ 이승진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3회 정기연주회

運命

BEETHOVEN

2011. 10. 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김응수

| Program |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 바이올린 협주곡 Violin Concerto
- 교향곡 제5번 「운명」 Symphony No.5 "Fate"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metro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C/O/N/T/E/N/T/S

08 커버스토리

부산가야금연주단 천년의 소리 '가야의 혼불'

10 프리뷰

14 반갑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장 박영도

16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㉑

'가을입니다' 라고 당신에게 엽서를 쓰는 시간에 | 정일근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오스트리아 비너필름페스티벌 | 김현도

22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㉑

말할 수 없는 비밀 | 이동신

24 불멸의 거장, 흥난파 ①

가계와 그 문화 | 김창욱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⑦

해맑은 신선이 피리를 불다(仙人吹笛) | 변광석

28 그곳에 가면

아트카페 움

30 우리는 문화가족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32 리뷰

청소년 음악회, 뭐가 다르지? | 박진홍

기괴한, 그러나 필요한 | 김남석

34 프로그램 가이드

53 나의 애청음반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저음

Super Double-bass 게리 카의 예술 | 김희성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9월호 통권 237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8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부산가야금연주단 천년의 소리 가야의 혼불

휘영청 달 밝은 제 창 열고 홀로 앓다
품에 가득 국화 향기 외로움이 병이어라.
달 아래 쓰러지니 깊은 밤은 바다런 듯
蒼茫한 물결 소리 草屋이 떠나간다.

조각배 노 젓듯이 가얏고를 앞에 놓고
열두줄 고른 다음 벽에 기대 말이 없다.
눈 스프르 감고 나니 흥이 먼저 앞서노라.
춤추는 열 손가락 제대로 맡길랴다.

풍류 가얏고에 이는 꿈이 가이 없다
열 두줄을 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 심사라
똥똥 똥 두두 똥똥 흥흥 응 두두똥 똥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진다.
(조지훈 '가야금')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가야금 선율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이 '천년의 소리-가야의 혼불'을 타이틀로 제 7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연다.

2005년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단장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가야금 전공자 30여명으로 창단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은 찬란한 가야, 신라 음악문화의 꽃 '가야금'에 새로운 혼을 불어넣는 창작 작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해왔다.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를 열어온 부산가야금연주단은 특별연주회, 상설공연을 비롯해 연간 20~30회의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부산가야금연주단은 그동안 한·일 40주년 수교기념 빅콘서트 협연, KNN 부산경남 광역방송 기념공연 'The Classic 共感(공감)' 협연, 조선통신사 초청공연, 세계 교통박람회 개막식 축하공연 등 많은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알려왔다. 특히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는 100인의 가야금오케스트라를 구성, 현대적인 감각의 가야금선율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가야금과 춤'이라는 컨셉으로 마련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어느 때 보다 볼거리가 풍성하다. 1부는 가야금 본연의 매력을 전하는 전통 무대, 2부는 이수인이 지휘하는 가야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다양한 가야금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전통에 초점을 맞춘 1부 무대에서는 '경복궁 타령'을 주제로 만들어진 25현 가야금곡 김계옥 곡 '궁타령의 멋',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와 어우러지는 '산조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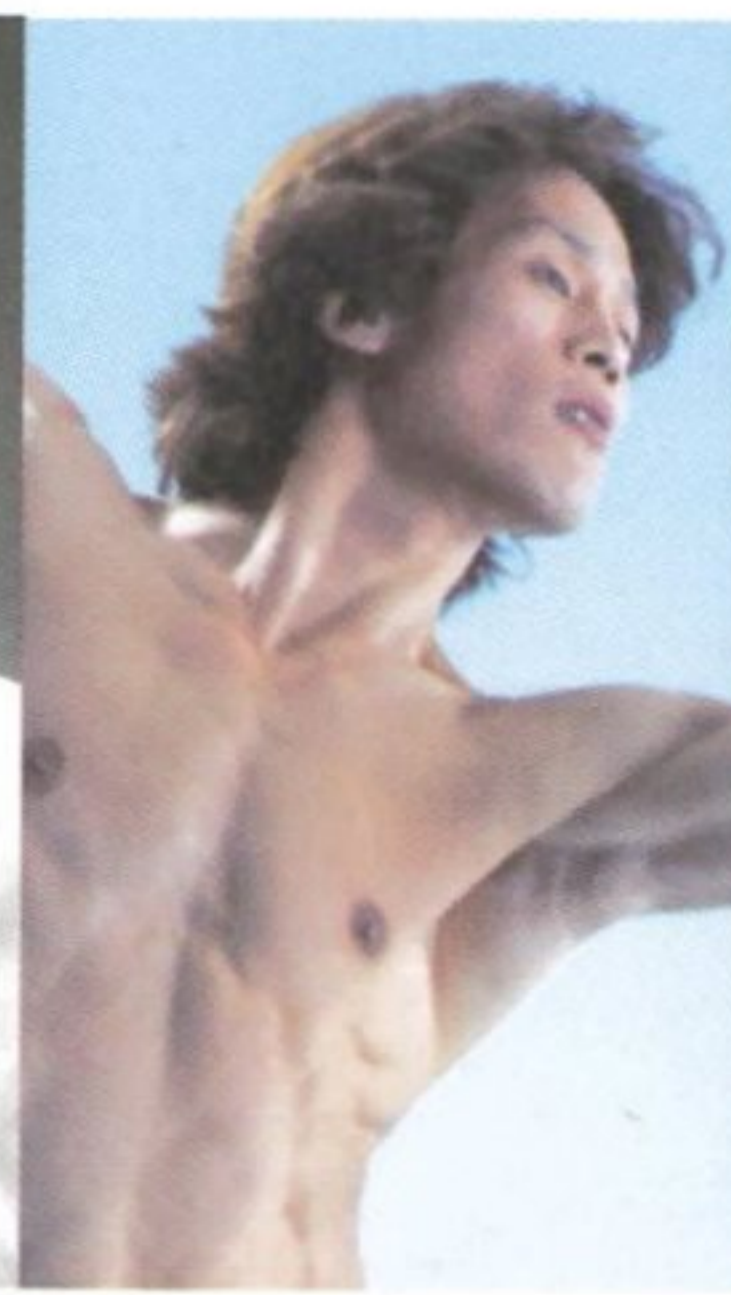
김남순



이수은



강정숙



이원국



장원상



부산가야금연주단

2011년 위촉곡 정대석 '가야의 혼불' 을 들려준다. '가야의 혼불' 은 가야인의 삶속에 살아 숨 쉬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형이상학적 존재인 가야금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곡한 곡이다. 가야금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2부에서는 창작음악 '바람의 향기' 에 맞춰 발레와 가야금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파격적인 시도를 한다. 산조춤 사단법인 새한전통예술보존회 부산지부장 장선희가, 발레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중 하나인 이원국 발레단이 25현가야금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2009년 부산가야금연주단 위촉인 이준호 곡 '바람의 향기' 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부드럽고 정겨운 바람에 가야금 소리를 얹어 작곡한 곡으로 강하고, 때론 부드럽고 때론 살갑게 소곤거림을, 때론 활기차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듯 힘차고, 부드럽고, 활기차고, 정겹게 표현한 25현 가야금 3중주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백대웅 곡 '남도 아리랑'. 이곡은 한국 종합예술학교 백대웅 교수가 한, 중, 일 전통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를 위해 작곡한 대표적인 창작국악관현악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 3중주로 편곡,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 선율과 밀양아리랑과 메나리가락, 활기찬 타악연주로 우리음악의 멋과 흥에 젖게 한다. 마지막 무대는 판소리 사랑가를 편곡한 '너의 혼은 꽃이되고' 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소리꾼 강정숙과 경성대학교 장원상 교수가 가야금 선율과 함께 들려준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Ⅲ-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Ⅱ

9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동신

정준호

이승진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Ⅲ-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두 번째 무대가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이 지휘하고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미술 관련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준호의 해설로 마련되는 ‘클래식이 보인다 Ⅲ- 그림 속의 클래식’은 미술사와 음악사를 비

교하면서 시대 및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무대이다.

해설과 진행을 맡은 정준호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 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KBS 클래식FM ‘FM실황음악’, 세종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프리랜서 음악칼럼니스트이다. 지난해 2010 KBS ‘바른언어상’을 수상한 정준호는 ‘말이 먼저 음악이 먼저’, ‘스트라빈스키- 현대 음악의 차르’ ‘이젠하임 가는 길’ ‘정준호의 클래식 순례’ 등 다양한 저서와 음반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금호현악사중주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이승진이 가을을 여는 감미로운 첼로 선율을 들려준다. 동아, 중앙, 음협 콩쿠르 등에서 1위 입상하고 미국 Ellis Feiman Memorial Award를 수상한 이승진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시향, 경북도향, 독일 튀빙겐, 폴란드 루빈시타인 및 슈비토크리치스카, 헝가리 페치 및 기외르,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향악단 등과의 협연을 비롯하여 제 2회 중국 심양 국제음악제 등 아시아, 미주, 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초청연주를 가진 바 있다. 이승진은 미국 Old Dominion University의 초빙교수로 초청 받아 연주, 특강, 연구 등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비엔나 기질’ 작품 354를 시작으로 비제 ‘아틀의 여인’ 모음곡 제 1번 중 ‘아다지에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모음곡 중 ‘백조’, 드뷔시 ‘축제(야상곡 제2번)’ 작품 91/2,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장조 작품 33, 스트라빈스 ‘폴치넬라’ 모음곡을 들려준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24회 부산합창제

9월 20일-21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해 전 국민을 감동시킨 한 오락프로그램의 인기로 합창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어우러짐의 미학, 아름다운 하모니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합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 24회 부산합창제가 9월 20일과 2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막이 오른다.

1985년 출발한 부산합창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있는 문화를 공유하기 위하여 출발시킨 합창축제로 매년 가을,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그동안 연습한 다양한 합창곡들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부산합창제의 시작으로 부산지역 구청 여성합창단을 비롯한 지역 아마추어 합창단의 창단에 크게 기여했고 부산국제합창제의 출발에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부산합창제를 통해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발굴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지역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합창 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여성 3부, 혼성 4부로 구성된 13개의 일반 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참여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 합창축제가 열린다. 기계화되고 퍼포먼스 중심의 합창으로 정통합창의 이해와 관심이 적어지는 요즘 아마추어와 프로 합창단,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성인 아마추어 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의 교류로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참가단체

- 여성3부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 혼성4부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 혼성4부 JJC Chorus(지휘/구영립)
- 여성3부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 여성3부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 여성3부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지휘/추현철)
- 여성3부 문화합창단(지휘/배천종)
- 여성4부 부산챔버싱어즈(지휘/김현식)
- 여성3부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명규)
- 여성3부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 여성3부 청라여성합창단(지휘/이득수)
- 여성3부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 혼성 4부 부산교사합창단(지휘/박운호)
- 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합창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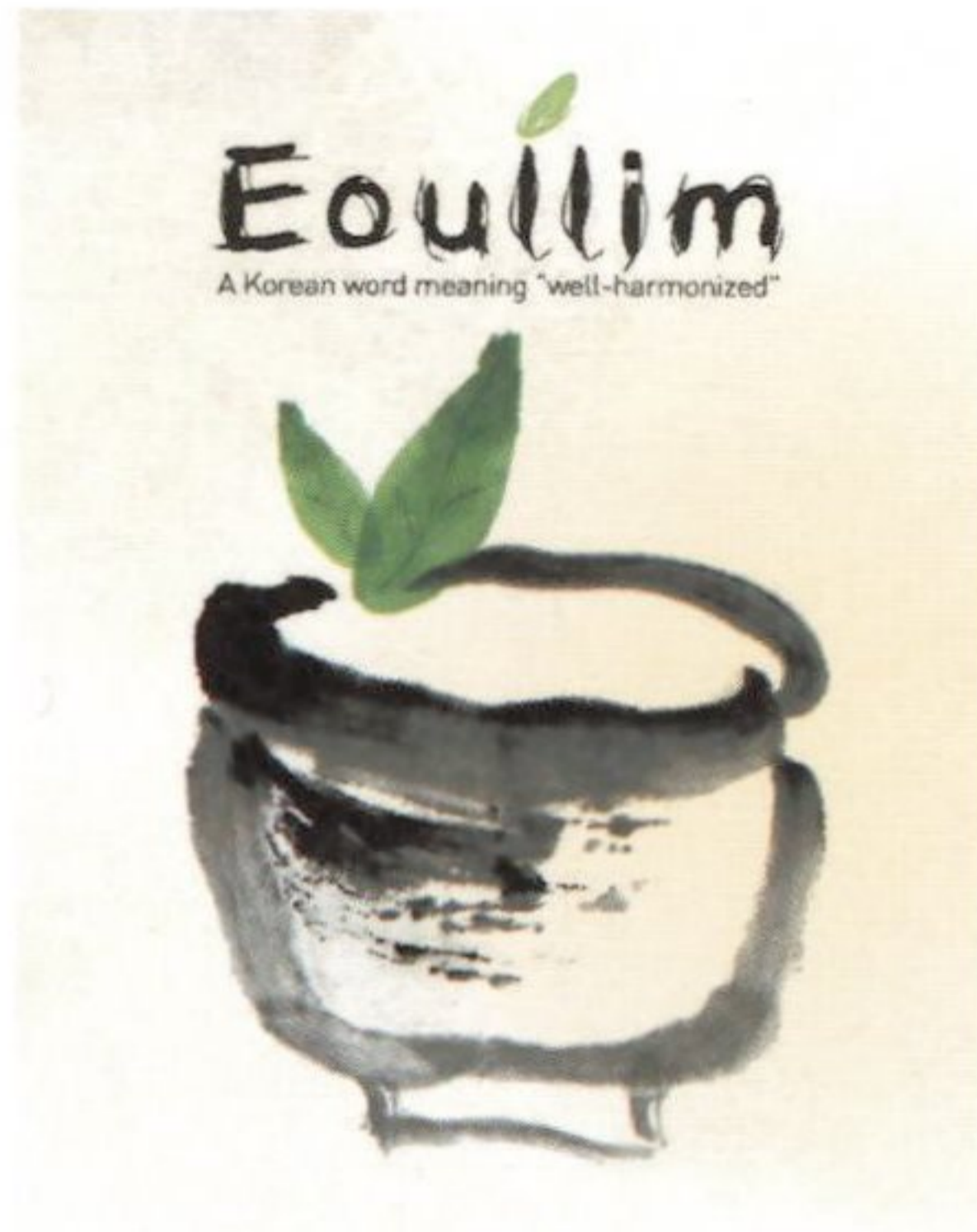
- 입장권 | 초대(선착순)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 茶어울림문화제

9월 30일-10월 2일 금-일요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전시실 중극장, 소극장, 중앙광장, 유엔공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다법과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생활 속의 차 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국제 茶어울림 문화제 여섯 번째 행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역에서 펼쳐진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부산국제 茶어울림 문화제는 국내 여러 차 단체들의 작품 공연은 물론, 중국 일본 차 작품 발표와 차 관련 각종 전시회, 다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기획, 해를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올해는 9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국제 茶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월 1일 오전 11시 우리 차문화의 정신을 담은 '아리랑 & 茶의 美' 본격적인 행사가 막이 오른다.

10월 1일에는 학술세미나 '어린이 인성과 茶·예절 교육의 페러다임 전환'과 다인들의 행다 무대시연이 진행된다. 올해는 부산차문화진흥원을 비롯해 차명상, 규방다례, 부산차인회, 숙우회, 한국다도협회 등이 茶문화를 재현한다. 부산차문화진흥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행다 '茶 & 동래 학(鶴)'도 부산국제 차문화어울림을 통해 공개된다. 행사기간 동안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는 금당, 구혜경, 다촌, 원광스님을 추모하는 '선고茶인추모헌다', 도자기 대만초대전 '아리랑&茶도자기 전', 차실그림전, 통과이레 찻상 음식과 24계절 상차리기, 차인들의 소장전이 열리고 중전시실에서는 백다회, 두리차회의 시음회, 차 역사, 교육, 지방, 행다 촬영 관람 등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중앙광장에서는 각 대학 호텔조리학과와 茶음식 페스티벌, 차 명상 체험, 절 체험, 다식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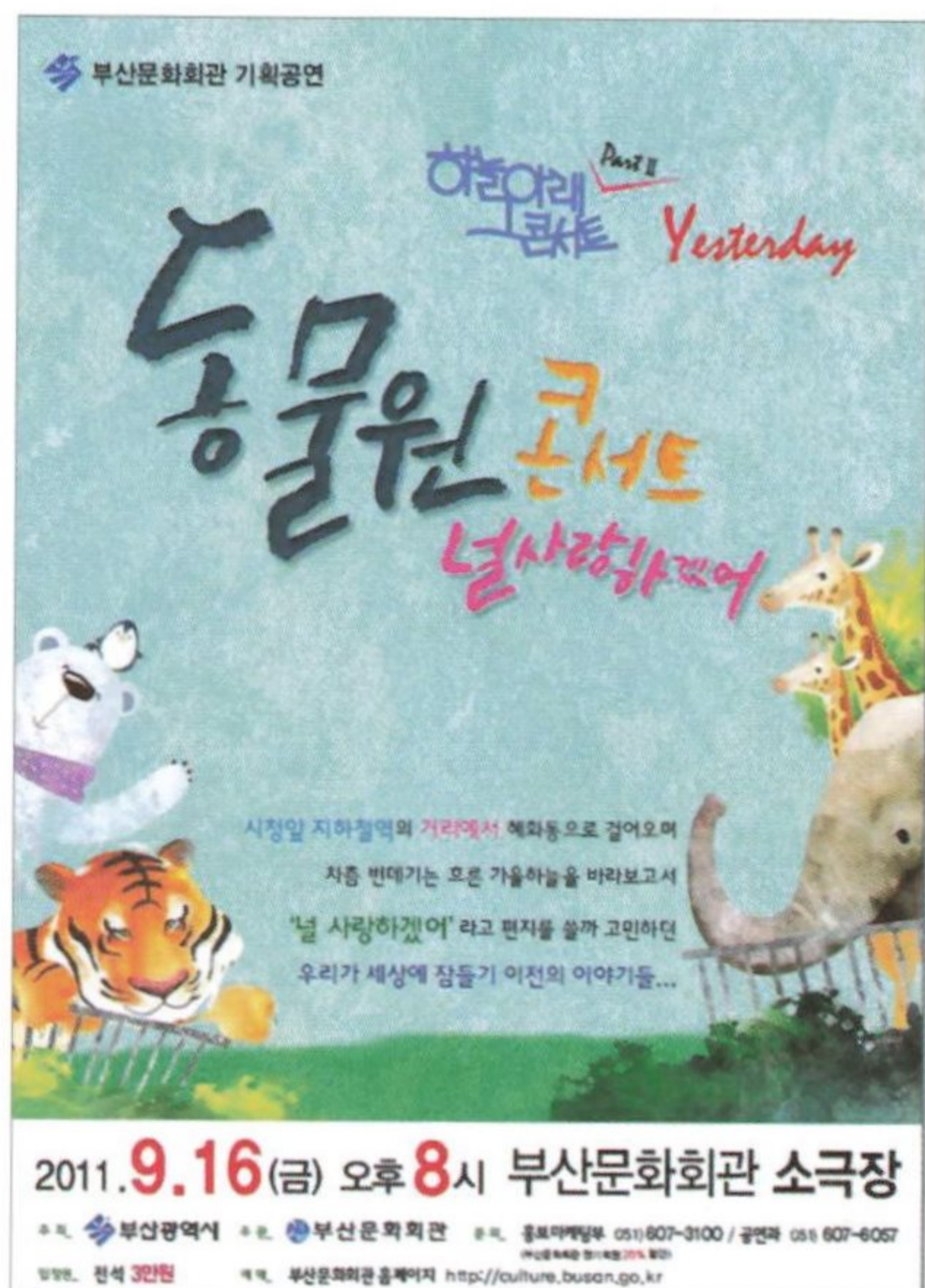
올해 부산차문화진흥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행사는 '동양 茶文化 2000년 특별 茶具 유물전시회'. 6500년전 인류 최초의 음용기로부터 2000년전 茶文化가 시작되어 약용음료, 정신음료, 과시음료, 예술적 음료, 기호음료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茶文化의 본질과 변천과정을 茶具유물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茶具 유물전시회는 한국과 중국의 다구유물 500점을 엄선, 동양 茶문화의 전체의 흐름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획 전시 초대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외 초의선사의 시·서·화 유물기획전, 대만도자기 초대전, 김동렬 초대전, 국악, 무용공연 등이 펼쳐진다.

- 평화어울림 헌공茶禮 유엔공원 300명 헌공다례 최다 추모행사 ▶10월 1일(토) 10:00
- 아리랑 & 茶의 美 개막식 ▶10월 1일(토) 11:00
- 동양茶문화 유물기획전 차의 근원~역사적 스토리 현장확인
- 草衣禪師 시·서·화 유물기획전
- 학술세미나 어린이 인성과 茶·예절교육의 페러다임 전환
- 선고 茶人추모 獻茶 금당 최규용, 목춘 구혜경, 다촌 정상구, 원광스님
- 대만도자기초대전
- 김동렬 초대전
- 茶음식 페스티벌 다식, 양과
- 통과이레 테이블셋팅 홍차셋팅 24계절 상차리기
- 茶花의 美 조화로움
- 저자와의 대화
- 국제茶페스티벌 ▶9월 30일(금)
- 차실에 초대된 그림전(K-art)
- 장롱 속 한복 새주인 찾기
- 백다회 두리차회
- 체험 다식체험, 차 명상, 절 체험
- 국제 국내 무대공연 12회

● 문 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www.busantea.kr)

하늘 아래 그 콘서트 2주년 기념공연 II 동물원 콘서트

9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지난 2009년 가수 이한철을 시작으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소극장 라이브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가 9월로 공연 2주년을 맞는다.

부산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라이브 무대로 만날 수 있는 ‘하늘 아래 그 콘서트’는 그동안 노리플라이,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이상은, 페퍼톤스, 국카스텐, 언니네이발관, 정재형, 10Cm, 옥상달빛, 짚은, 옐로우 몬터시즈 등 실력있는 인디밴드들이 총출동해 마니아들의 큰 환호성을 받았다. 특히 지금까지 무대에 선 22개팀 중 페퍼톤스, 국카스텐, 언니네이발관, 정재형, 10Cm, 데이브레이크, 짚은, 가을방학, 옥상달빛과 10월에 예정된 검정치마 무대가 벌써부터 매진사태를 낚으면서 ‘하늘 아래 그 콘서트’는 최고의 인기공연으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부터는 ‘하늘 아래 그 콘서트’를 파트별로 새롭게 나뉘어 기존 싱어송라이터 콘서트인 파트 1 무대와 7080, 재즈매니아를 위한 ‘파트 2-Yesterday’ 무대 등 더욱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고있다. 지난 3월 미성의 목소리로 사랑받는 가수 추가열의 무대에

이어 6월에는 ‘한국의 에릭 클립튼’ 김목경 밴드가 부산을 찾았으며 9월에는 ‘하늘 아래 그 콘서트’ 2주년을 기념해 포크음악그룹 ‘동물원’이 무대에 선다. ‘하늘 아래 그 콘서트’에 참석하는 마니아층도 늘면서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싸이월드 클럽 (club.cyworld.com/0911concert)을 찾는 회원수도 현재 1800명을 돌파했다.

오는 9월 16일에는 ‘하늘 아래 그 콘서트’ 2주년을 맞아 8월 ‘우쿨렐레 피크닉’에 이어 포크음악그룹 ‘동물원’이 기념무대를 마련한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고단한 삶 속에서의 작고 소박한 행복을 노래했던 ‘동물원’은 지난 1988년 김광석, 김창기, 박경찬, 박기영, 유준열, 이성우, 최형규 등 7명의 대학생들로 출발했다. ‘동물원’은 1988년 ‘거리에서’, ‘변해가네’, ‘말하지 못한 내사랑’ 등이 담긴 첫 음반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데 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혜화동’ 등 서정적인 명곡이 담긴 2집 음반이 연이어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의 음악적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신과 병원을 개업한 김창기의 활동 중단으로 현재 박기영, 배영일, 유준열 3인 체제로 활동하고 있는 동물원은 지금까지 총 9장의 앨범과 ‘미술관 옆 동물원’ ‘동물원과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 등 독특한 컨셉의 공연을 통해 386세대의 보편적인 정서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3년만에 부산에서 단독공연을 갖는 동물원은 이번 무대에서 ‘시청앞 지하철 역에서’ ‘거리에서’ ‘혜화동’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 대표곡을 통해 첫사랑의 아름다웠던 기억과 잊고 지냈던 소중한 나날의 추억들을 되살려 준다.

- 입장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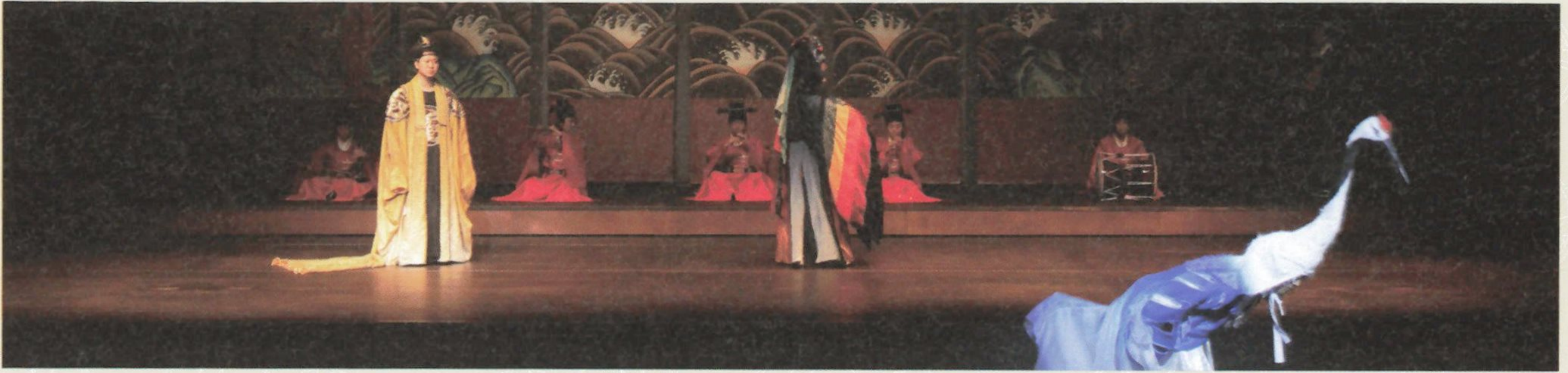
국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 영 도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2009년 5월 국립부산국악원장으로 부임하며 부산 생활을 시작한 박영도 국립부산국악원장. 그는 요즘 부산과 부산사람들 속에서 국악의 즐거움을 알리며 활력 넘치는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산다.

“2년 전 많은 사람들이 부산은 국악의 불모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부산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임하고 보니 국악의 불모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고 즉각적 반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국악에 대해 많이 목말라있었던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성찬을 제공하고 있는 박영도 원장(56세)은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올해가 1951년 4월 10일 용두산공원에서 개원한 국립국악원이 60주년을 맞는 해라 국립부산국악원장으로 부산에서 6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달랐다. 그는 개원일에 맞춰 국립국악원의 시발지인 용두산공원에서 특별공연을 가지며 국악원 개원의 의미를 새겼다. 전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의 전통예술을 이어온 국악원은 멀리 신라의 음성서, 고려의 대악서, 조선의 장악원, 근대의 이왕직아악부로 이어지는 음악기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날까지 유구한 역사성을 자랑하고 있다. 부산에서 국악원이 지나온 60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제작한 가무악 총체극 '부산아라'

과 가야할 미래의 60년을 기원하고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쁨이 더욱 컸다고. 국립부산국악원은 앞으로 이 지역의 민속을 발굴, 보존, 전승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지역 정서가 물씬 풍기는 새로운 춤과 민속 작품을 개발하여 부산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일조하고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각오로 국악원 전 가족들이 땀 흘리고 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거문고를 전공한 박영도 원장은 1980년 연주자가 아닌 국악행정가로 국립국악원과 인연을 맺었다. 국립국악원 장악과와 국악진흥과에서 국악교육과 해외공연, 공연기획 업무 등을 맡았던 그는 국립민속국악원 초대 장악과장, 국립남도국악원 초대원장을 거쳐 국립부산국악원 초대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초대'라는 중책이 부담스러웠지만 박영도 원장은 항상 예술과 행정을 접목하는데 있어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국악을 바라보자는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개척자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부산 부임 후 국립국악원과 함께 한 오랜 연륜을 바탕으로 부산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국악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와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상설공연을 하고 있다.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구성하고 화요일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 하는 우리 문화'는 기악, 성악, 무용 등 명인, 명무를 초청해 다채로운 발표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피리, 가야금, 해금, 민요, 사물놀이, 한국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국악교실, 교원을 위한 국악교육직무연수, 우리 음악 강의와 공연을 곁들인 렉처콘서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립기관 최초로 청소년 예술단도 운영하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어르신과 함께 하는 '더불어 국악',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국악 플러스' 등 소외계층 사업을 통해 지역의 많은 분들과 국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악원 로비에 오픈 북카페 '더불어 국악(Open BookCafe With Gugak)'을 조성, 시민들에게 전통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향유하던 음악으로 우리 몸에,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음악입니다. 국악이 영화와 드라마, 산업디자인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합쳐지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이 국악의 매력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예술분야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박영도 원장은 최근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가무악 총체극 '부산 아라'를 제작해 전통의 현대화와 대중화, 나아가서는 세계화를 모색 중에 있고 '국악을 국민 속으로'라는 사업으로 직접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가는 국악 공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캐치프레이즈가 '온 국민이 신명나는 우리문화의 샘터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국악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주 찾아와 쉬면서 즐기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문화의 샘터에서 흥과 정취를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국악원을 찾는 시민, 예술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연장을 지키는 박영도 원장. 그의 열정으로 우리문화의 샘터에 언제나 신명이 넘친다.

‘가을입니다’ 라고 당신에게 엽서를 쓰는 시간에

정일근_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가을입니다. 그렇게 첫 문장을 써놓고도 무엇인가 어색하고 불안하여 자주 뒤돌아보는 9월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이름의 사계를 균등하게 가졌던 우리에게 이제 가을은 잡지의 얇은 부록과 같은 계절의 초상으로 변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표지는 딱딱한 하드커버로 변하고 본문은 나날이 두꺼워지는데, 가을은 그 사이에서 점점 얇아지는 ‘별책부록’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간이역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계절은 언제 무더웠느냐는 듯 언제 그렇게 많은 비를 뿌렸느냐는 듯 등 돌린 서늘한 표정으로 바뀌었지만, 가을은 가을이란 이름의 이 작고 좁은 간이역에서 여행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앉았다 작별도 없이 훌쩍 떠날 것입니다. 가을이 짧아진다는 것, 그건 시집 속에서 서정시가 사라지는 일과 같습니다. 서정시가 사라진다는 것, 그건 우리가 우리를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짧은 가을이 쓰는 붉은 서정시를 읽기 위해 ‘꽃무릇’ 한 송이와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가을을 여는 꽃이 코스모스에서 꽃무릇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철없어진 코스모스는 여름 꽃으로 편입되고 그 자리에 꽃무릇이 팝니다.

꽃무릇의 정확한 이름,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이름은 ‘석산(石蒜)’입니다. 한자를 풀이하자면 ‘돌마늘’입니다. 그러나 석산, 돌마늘이란 이름보다는 꽃무릇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꽃입니다. 꽃무릇은 식물분류로는 외떡잎식물로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중국이 원산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꽃이지만 이제 꽃무릇은 우리나라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9~10월에 붉은 꽃이 피는 꽃무릇은 심기도 쉽고 번식력도 강한 꽃입니다.

꽃무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수천안(千手千眼)의 부처 같습니다. 그래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의 간난을 보살피는 부처처럼 앓은 꽃무릇들의 꽃밭은 커다란 절집 같습니다. 만행과 만덕을 닦아 빛나는 일이 화엄(華嚴)이라 했으니 꽃무릇은 이 가을 스스로 화엄도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꽃무릇의 자리가 부처의 자리와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빛에서 빛을 더하는 것은 현혹이지만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의 지혜로 우주 모든 만물을 깨달아 아는 일을 해인(海印)이라 했으니 저는 꽃무릇 꽃밭에서 해인으로 가는 길을 생각합니다. 그 길은 사람에게서 자연으로 가는 길이며 고통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상사화(相思花)란 꽃이 있습니다. 봄에 잎이 나고 그 잎이 다 진 뒤에 꽃이 피어서, 한 몸에서 나지만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해 상사화라 합니다.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꽃무릇을 상사화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두 꽃이 모두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지만 상사화는 7~8월에 붉노랑 진노랑의 꽃이 피고 꽃무릇은 가을에 진홍빛 꽃이 팝니다.

그러나 한 몸에서 잎과 꽃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일, 상사(相思)의 일은 두 꽃에서 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사람과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타령에 불과하지만 불가의 눈으로 보자면 사람의 몸에서도 일어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도 한 몸에서 일어나는 생과 사를 보지 못하는 한 송이 꽃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등불처럼 스스로를 태우며 스스로를 밝히고 서 있는 꽃무릇 앞에서 저는 그늘지고 낮은 곳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가을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엽서를 당신께 쓰기 시작합니다.

시, 간

정일근

어느 마을인가 시에 간 맞추는 시인이 살아

시간은 시의 간을 맞추는 일에서 왔기에
생생것인 시가 익어 맛 들어 간이 딱 맞을 그때

코 대어 냄새 맡고 손가락으로 짚어 맛보며
그놈 잘 익었다, 그놈 참 맛있다는 그때

시인이 시를 지고 저자거리로 팔러나가는
그 시 사려고 사람이 줄을 서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날이면 마을의 밥상마다 잘 익은 시가 올라
시에 밥 비벼 먹는 배부른 저녁이 있었다.



사진 정일근



오스트리아 비너필름페스티벌

김현도_오스트리아 통신원, 작곡가

올해 스물한번째 맞이 하는 오스트리아 비너필름페스티벌(wiener Film Fest)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는 다른 주제로 열리는 영화제이다. 비너필름페스티벌은 일반적인 영화를 상영하고 심사하고 또 출연한 배우들이 관객과 만나 소통하는 그런 영화제가 아닌 음악과 관련된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제이다. 오래전 우리 부산에서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었던 MBC 목요일음악감상회와 같이 음악회의 동영상을 야외에서 큰 화면으로 상영하는 음악영화 축제라고 보면 된다.

비너필름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은 빈의 시청 광장(Rathausplatz)이다. 빈의 시청광장은 고풍스러운 빈 시청사는 물론 청사 맞은 편에 독일어로만 공연되는 연극 전용극장 부르그테아트(Burgtheater)가 위치해 있고, 빈의 주요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 그리고 박물관,



콘서트홀 등이 어우러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빈의 중심부 링(Ring)에 자리한 광장으로, 빈의 역사적 명소이다. 이 곳은 빈을 찾은 관광객들이 빈의 시가지를 한바퀴 도는 전차를 타게 되면 방문하게 되는 필수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올해의 비너필름페스티벌은 65일간 동안 열렸는데 총 40여편의 음악과 관련된 동영상이 상영됐다. 오스트리아로 유학와서 처음 비너필름페스티벌을 구경했을 때가 1997년으로 기억된다. 당시 전차에 내려서 아빠 손을 잡고 이 곳을 들어섰을 때 맛있는 냄새가 진동 하던 기억이 선하다. 상영장 입구 양쪽에 들어선 먹거리 장터와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가게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과 환하게 밝힌 조명에 무척 신나하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비너필름페스티벌을 찾았다. 예년과 달리 올해 축제장의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도, 요란스럽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마 조금 일찍 축제장을 찾아서였지 않았나 싶다.

잠시 후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리에 상영장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광장에는 시청 시계탑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약 2,000여석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스크린 앞에 놓인 긴 나무의자(지금은 1인용 알루미늄 의자로 바뀐)에 앉아 대형 스크린 속의 오케스트라를 바라보자니 콘서트홀이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등장하는 오케스트라와는 사뭇 다





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클래식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빈 시민들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찍 광장을 찾아와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확보한 후 영화가 상영되기 전까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상영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영화가 시작되면 간혹 감상 도중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온 젊은 배낭객들이 이곳을 찾았다가 오페라 아리아가 흘러나오자 재미가 없다며 우루루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어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음악 영상감상회는 극장에서 실연주를 감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연주회의 중요 부분은 클로즈업하여 장면과 장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연주자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다. 빈 필하모니와 연주하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심오한 표정도, 단원들이나 솔리스트, 합창단들의 연주를 생동감있게 볼 수 있다. 엄청난 출력의 사운드가 마치 몸 전체에 직접 닿는 듯한 다이내믹한 느낌이 감상하는 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또 다른 감동이 전해진다. 놀라운 것은 어느 위치에서도 똑같은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음향기술로 구석과 뒷좌석에서도 감상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었다.

클래식음악 애호가들에게 비너필름페스티벌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며 젊은 애호가들에게는 시공을 초월해 과거로 돌아가 과거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와 세계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더불어 카라얀과 칼벵, 파바로티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필름 상영이 끝나면 광장 입구에 있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한잔의 맥주와 소시지, 그리고 색다른 타국의 음악을 맛보며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클래식 공연이 상영되던 진지한 분위기와는 다른 유쾌한 분위기로 변신한다.

한여름 밤 시원한 빈 시청 광장에서 자유롭게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영화를 감상하고 세계 각국의 음식과 음료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의 영화축제 비너필름페스티벌이 빈의 여름 낭만을 선사한다.

:: 글쓴이 김현도는 1998년 오스트라이 빈으로 유학, 2011년 6월 빈시립음악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과정 준비 중에 있다. 김현도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필하모니 정기연주회 'Drops',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 정기 연주회 'Malshe',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필하모니 정기 연주회 'From Far Eastern'을 발표했고 다수 개인 작곡 발표회를 가졌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갑작스럽게 다가온 첫사랑의 감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10대들의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된 대만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7년에 개봉한 달콤하면서도 가슴 저린 첫사랑과 거기에 어울리는 피아노곡을 만날 수 있는 대만영화이다. 대만의 인기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인 '주걸륜'이 각본, 감독,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잘 만든 멜로영화가 그렇듯, 복선과 반전을 담은 탄탄한 플롯과 효과적인 감정 표출을 통해 청춘의 아름다운 나날을 찬양하는 청춘드라마이다.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지닌 상륜(주걸륜)은 예술학교로 전학한다. 등교 첫날, 낯선 피아노곡에 매료돼 음악실을 찾은 상륜은 그곳에서 동급생 샤오위(계륜미)를 만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둘은 음악실에서 만나 추억을 쌓아간다. 때때로 샤오위는 묻는 말마다 '비밀!' 이라고 답해 상륜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어느 날 샤오위는 상륜이 칭이(증개현)와 함께 있는 광경에 오해하고, 이후 지병이던 천식이 악화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상륜은 샤오위의 집에 찾아가지만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졸업식은 다가오고, 졸업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상륜은 기적적으로 샤오위와 재회한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고등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담은 청춘영화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밀'도 가지고 있다. 샤오위가 상륜에게 연습실에서 연주하던 곡의 제목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함으로써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밀을 미리 알아도 영화는 재미있다. 반전의 묘미 이전에 하이틴 로맨스의 기본적인 미덕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첫사랑의 감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청춘의 아름다움이나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10대들의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된다. 우연한 만남과 첫눈에 반하는 사랑, 레코드 가게에서의 데이트, 같이 연주하는 피아노, 하룻길의 자전거, 석양을 등지고 나누는 키스 등의 에피소드들은 감독이 실제로 유년기를 보낸 대만의 '단슈이'를 배경으로 10대의 섬세한 감정도 잘 담아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우리가 흔히 봐왔던 하이틴 로맨스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보통의 영화들처럼 그



극중 피아노 연주 장면은 대부분 대역없이 촬영했으며 특히 '피아노 베틀' 씬에서 감독과 주연을 맡은 주걸륜은 묘기에 가까운 연주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들의 감성이나 로맨틱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피아노를 통한 시간여행이라는 특별한 요소를 추가해 이들의 사랑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예술학교와 피아노 연주자라는 배경과 소재는 시종일관 귀를 즐겁게 한다. 특히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 배틀' 부분은 현란한 피아노 연주의 극을 보여준다. 피아노의 왕자라 불리는 선배와 상륜이 벌이는 신기에 가까운 연주 대결은 쇼팽의 곡들을 재해석해 경쾌하고 상큼한 음악을 들려준다. 영화에 나오는 곡은 '흑건'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의 5번과 왈츠, 야상곡 그리고 쇼팽의 대표곡 중 하나인 '즉흥환상곡'이다. 남녀 주인공이 쇼팽의 사진과 그 옆에 나란히 붙은 연인 보진스카의 사진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도 흥미롭다.

주걸륜, 계륜미, 증개현 등 대만을 대표하는 청춘스타들의 모습과 스냅사진 같은 영상에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보니 시종일관 눈과 귀가 즐겁다. 두 주인공이 나란히 연주하는 경쾌한 연탄곡,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웅장한 선율의 'Secret' 은 어떤 대사나 행동보다도 발 빠르게 관객의 감성을 적신다. 극중 피아노 연주 장면은 대부분 대역없이 촬영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특히 '피아노 배틀' 씬에서 주걸륜은 묘기에 가까운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실제 4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16세 때부터 작곡을 했다는 그의 천재성이 증명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본과 감독, 주연, 음악까지 소화한 주걸륜이다. 싱어송라이터로 출발해 영화음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고 <황후花>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영화배우보다 연기와 가수를 겸하는 젊은 엔터테이너로서 명성이 높은 그지만, 직접 각본을 쓴 데뷔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대만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제 44회 금마장 영화제에서 '올해의 대만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황후花>의 출연으로 인연을 맺게 된 장이모 감독은 "데뷔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만들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말로 주걸륜을 극찬했다.



흥난파의 가계와 그 문화

김창욱_음악평론가



홍난파

남양홍씨 대호군공파와 부친 흥준

흥난파(洪蘭坡, 본명은 永厚, 1898-1941)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서 태어났다. 남양홍씨 대호군공파 24세손이었다. 대호군공파는 10세손 대호군 귀연(貴演)을 파시조로 하고 있다. 대호군공파가 남양에 뿌리내린 것은 17세손 명구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그가 입향조가 되는 셈이다. 난파의 부친 흥준(洪埗 1858-1917)은 향반으로서 관이 주사였다. 조선사회에서 향반은 시골에 거주하는 양반이라는 통상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선후기 중앙의 정치권력이 소수의 문벌가문으로 집중되면서 향반은 중앙의 양반과는 차별화되고 정치적 위상도 변화되어 갔다. 비록 조선후기 향반이 중앙의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지만, 이들은 학연·혈연 등의 연망을 통해 중앙의 정치세력과 유대관계를 꾀하고 있었다. 예컨대 흥준의 집안은 같거나 비슷한 관직을 가진 집안과 통혼한 사실이 많다. 그의 사위 윤기선은 치형의 아들이고, 그의 손자 은유는 전주 이씨 중채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그의 4촌 호는 해풍김씨 진호의 딸과 혼례를 치렀다. 이것은 개

화기 출신과별·성씨별 통혼이 즐겨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들은 주사라는 계층별 통혼을 통해 그들의 커뮤니티와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켜 나갔다.

때를 같이해서, 시대변화에 민감했던 흥준 역시 사회적 욕구를 성취하고자 했다. 그는 자식들을 당시 서구에서 물밀듯이 들어온 신학문에 접촉시킴으로써 당당한 사회적 출세를 열망했다. 난파가 2세 되던 해인 1899년, 부친이 가족을 이끌고 서울 정동 14번지의 외인주택경내로 이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흥준의 결단은 180여 년간 대대로 살아왔던 남양땅을 버리는 것이었다.

가계의 음악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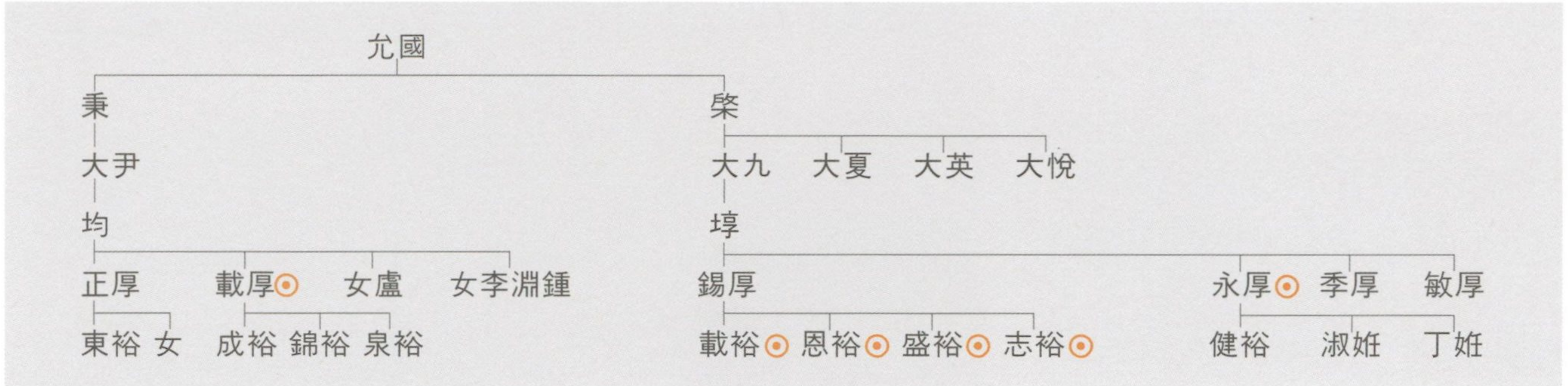
흥난파 가계의 경우, 1885년을 분기점으로 전통문화와 근대문화가 분명히 구획된다. 그것은 곧 유교문화와 기독교문화의 구획을 의미한다.

난파의 가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은 균(均)의 맏아들이자 난파의 8촌형인 흥정후로 보인다. 중추원의관을 지낸 그는 언더우드 의 복음을 받아 1890년 언더우드가 세운 신학반을 1회로 졸업했고, 1892년 새문안교회의 사경회에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1895년 새문안교회 신축 때는 교회의 건축감독직을 맡기도 했다. 흥준이 남양 활초리를 떠나, 서울 정동 14번지 외인주택경내에 정착하는데는 아마도 흥정후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준이 언더우드 곁에서 17년간 우리말 어학선생을 지낼 수 있도록 천거한 사람이 바로 흥정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난파의 가족이 서울에 정착하게 된 것은 개화기 변화의 물결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던 아버지 흥준이 집안을 중흥시키려는 열망, 자식의 사회적 출세를 위해 가족들을 이끌고 상경한 것이었다.

장남인 흥석후(洪錫厚 1883-1940)는 아버지의 그같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첫 결과물이었다. 1899년 4월에 세워진 근대 최초의 양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에 제 1회로 입학한 그는 졸업 우등생으로 공부했고, 1908년에 졸업하여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제 6 번을 받았다. 1905년 12월 15일 의학교 교관 관임관 8등으로 임명받은 그는 이후 미국에 유학,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처음으로 안과전문 진료를 행했으며, 난파의 일본유학시절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떠맡기도 했다.

※ 흥난파의 가계도 ○표는 남양홍씨 대호군공파의 가계에서 출현한 음악가



대호군공파 가계에서 음악가가 출현하게 된 것은 흥영후를 비롯한 ‘후’ (厚)자 돌림의 24세와 ‘유’ (裕)자 돌림의 25세에 이르러서였고, 그들은 모두 양악가였다. 난파의 8촌형인 재후, 석후의 아들인 재유·은유·성유, 그리고 이후 난파의 양자가 된 지유 등이었다. 한 가계에서 음악가들의 잇따 출현은 초창기 양악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흥난파는 그의 조카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은 이들이 한 집에서 자라난, 거의 같은 세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난파가 친형인 석후와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삼촌 난파와 조카들과는 5살, 8살, 10살, 15살 차이에 불과했다. 이들은 음악계에서는 때때로 선후배·동료·사제로서의 관계를 형성했다.

한편 이들이 한결같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바이올린이 이 시대 남성음악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서양 공통관습시대의 음악과 함께 악기에 대한 관념도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전·낭만시대의 서정적인 선율과 다양한 표현력을 갖춘 바이올린은 순수하고 높은 것에 대한 열망과 동경을 이상으로 삼았던 까닭이다.



서울 창성동 집에서의 생전(78세) 난파의 부친 홍준, 84세 때 이화동 집에서 별세함.

조선에서의 근대는 누구에게나 입신출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친 홍준이 장남 석후를 의사로 출세시키고자 했던 것도 이 시기 사회적 이동성이 그만큼 자유로웠음을 뜻한다. 부친은 차남이었던 난파도 장남처럼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1917년 난파가 1년 넘게 세브란스의전을 다닌 것도 부친의 이러한 기대를 자식으로서 차마 저버리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음악을 선택했다. 의사로서의 입신출세보다 음악으로서의 자기실현이 그에게는 보다 더 가치로운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당대 보장된 출세코스로부터의 이탈이었던 동시에, 약속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도전이었다.

:: 이달부터 흥난파의 삶과 음악을 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근대 시기 바이올린으로 첫발을 내디딘 흥난파는 이후 작곡·평론·음악교육·지휘·방송·레코드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넓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흥난파에 대한 연구는 한 음악가 개인의 연구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한국 근대음악사의 커다란 줄기, 즉 일제강점기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글쓴이 김창욱은 박사학위논문(동아대 대학원, 2004)을 수정·보완한 ‘흥난파 음악연구’(민속원, 2010)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흥난파 음악연구’는 2011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인문학 분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맑은 신선이 피리를 불다(仙人吹笛)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선(神仙)은 도(道)가 통달했기 때문에 현실의 인간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산다. 세속의 욕망에 구애되지 않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으며 죽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 속의 인물 중에 물욕없이 고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후세에 신선으로 불려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상상의 사람이다. 흔히 선객(仙客), 선령(仙靈), 화인(化人)으로도 불린다. 신선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외뿔소나 나귀를 타고 생황을 부는 신선, 학을 타고 피리부는 신선, 잉어를 타고 물속을 누비는 신선, 세 발 두꺼비와 장난치며 춤을 추는 맨발의 신선, 바다 위에서 거북과 나뭇잎을 타고 노는 신선, 바둑에 심취한 신선, 연기나는 호리병을 들고 있는 신선 등등 정말 신선에 대한 아이콘은 많다.



김홍도의 40대 작품 '선인취적'

조선후기 문인 취송(翠松) 송만재(宋晩載: 1788~1851)라는 사람이 <관우희오십수(觀優戲五十首)>라는 연작 한문시를 지었다. 사실 짓게된 동기는 애절했다. 그의 큰아들이 진사시에 급제했는데, 당시의 풍습대로 광대들을 불러 잔치를 한판 벌여주려 해도 가난하여 형편이 어렵자 대신에 지어준 작품이 바로 이것이었다. 아버로서의 자식사랑이 물씬 느껴진다. <관우희오십수> 가운데 12수는 판소리 12마당을 밝힌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광대들의 재주 부리는 모습과 생활상을 읊은 종합 연희시(演戲詩)이다. 19세기 전반에 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특히 판소리에 대한 최초의 문헌이자 판소리와 광대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다. 이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신선이 되려고 금강산에 들어가 늙은 선사에게 그 방법을 묻고는 신선이 된다는 천일주(千日酒)를 받아 먹었지만 끝내 속고 신선이 못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일화다.

평소 김홍도는 도석인물(道釋人物)을 많이 그렸다. 그 배경은 18세기 당시 그림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계층은 왕실과 사대부양반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김홍도의 천부적 재능을 알아주었던 정조를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 할아버지 영조 등은 그림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었다. 도석인물을 소재로 한 그림 중에는 주로 신선도였지만, 만년에는 산사귀승(山寺歸僧)이나 달마도해(達磨渡海) 작품처럼 불가의 선승(禪僧)을 소재로 많이 삼았다. 오늘은 해맑은 얼굴의 신선이 피리부는 장면을 만나본다. 김홍도의 40대 작품으로 보인다.

배경은 산속의 바위와 나무이다. 구도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윤곽을 지으며 화면의 절반을 채워 놓았다. 왼쪽에 피리부는 사람과 주변에는 그와 관련있는 사물이 자리잡고 있다. 절반의 오른쪽은 화사한 색채로 뒤덮힌 고요한 하늘을 묘사하면서 감상자로 하

여름 자연 속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인공의 옷은 담청(淡靑)으로 열게 터치되었고 얼굴은 따사한 햇살같이 고운 표정이다. 편안한 반가부좌(半跏趺坐)로 피리를 입에 물었다. 바위에 걸터앉은 모습이 마치 오묘한 사색에 잠긴 관음보살상 같다. 바로 뒤에 끈이 달린 바구니에 영지(靈芝)가 담긴걸 보니 약초캐러 산속에 들어온 모양이다. 나뭇가지 끝엔 연두색 새순이 파릇파릇 오르게 바야흐로 봄임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수의 배경없이 그린 신선도와는 달리 산수배경을 넣은 점이 특색이다.



‘선인취적(세부)’

이제 피리소리를 들어보자. 삐리이... 삐리리 낭랑한 피리가락 소리가 들려온다.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해맑은 동안(童顔)이 전형적인 도상(圖像)을 갖춘 신선과는 약간 거리가 멀

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음악의 형식이나 악상(樂想)이 없이 편안하게 즉흥연주를 하는 모습이 절로 신선같다. 색다른 신선의 멋이다. 김홍도는 바로 그러한 신선을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아 놓았다. 하지만 비단 피리소리 뿐이겠는가.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畫畫中有詩)라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시 속에는 한 폭의 그림이 있고 그림에는 한 편의 시가 있는 법이다. 그림 위에 제시(題詩)는 이렇다.

밤 깊어 학은 가고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데 (夜深鶴去秋空靜)
산 아래 벽도화는 봄을 반쯤 피웠네 (山下碧桃春半開)
단원 초 (檀園草)

은은하게 불어주는 피리소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신선이 앉은 바위 앞 나무의 잔가지가 살짝 흔들린다. 자세히 보면 신선의 눈길도 흔들거리는 가지 끝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 그림 속 주인공은 피리를 불어 벽도화를 빨리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진 신선으로 이름은 한상자(韓湘子)이다. 그는 당나라 문인 한유(韓愈, 자:退之 시호:文公, 768~824)의 조카로서 팔선(八仙)의 한 명이며,

손에는 어고간자를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신선도 도상의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고금의 제자백가와 기문이서에 박식했던 실학자 형암(炯菴) 이덕무(李德懋:1741~1793)가 다음과 같이 흥미있게 지적한 글이 있다.

“어고간자는 원나라 때의 악기이다. 대나무를 잘라 그 양쪽 끝에 저포(猪胞)를 붙이고 대나무 조각을 제비 꼬리처럼 쪼개어 대나무의 몸통을 치면 쟁그렁하는 소리가 난다. 그런데 그 악기에 선인(仙人) 한상자(韓湘子)가 늘 이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한상자는 한문공(韓文公)의 조카인데, 어찌 원나라 때의 악기를 알았겠는가?”

〈청장관전서〉제 54권, 양엽기1(盎葉記一), 어고간자(漁鼓簡子)

여기에 이어 조선·중국 및 각국의 여러 사물·사실을 상세하게 고증했던 이덕무의 손자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1788~?)도 조부를 따라 사실에 대한 변증을 다음과 같이 해놓았다.

“도사들이 이 어고간자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선인인 한상자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이 기구를 안고 있으니, 이것이 맨 처음 잘못된 것이다. 한상자는 당나라 사람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경사편2, 도장류1, 도장총설(道藏總說), 도교(道教)의 선서(仙書)와 도경(道經)에 대한 변증설

이 사실을 김홍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선 한상자가 어고간자 대신에 피리를 가지고 벽도화가 빨리 피도록 불어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자연이 신선에게 감응할 만도 하다. 그리하여 신선과 벽도는 이미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었다. 이제 독자여러분은 은은한 피리소리를 들으면서 김홍도의 붓끝에서 자유자재로 스며나오는 묵선(墨線)의 흐름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삭막한 도심지의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

아트 카페 움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속에 커피향이 향기롭다. 화사한 빛깔의 의자가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일반 카페치고는 유달리 벽면에 그림들이 많다. 가만, 시선을 카페 왼쪽으로 돌리자 이번에는 그랜드피아노가 자리한 수상쩍은 독립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호기심에 공간을 기웃거리자 이 곳이 바로 갤러리아 연주회가 열리는 공연장이다. 그리고 보니 이 곳에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부산에서 활동중인 조각가 우정의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카페와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바로 여기가 지난 4월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아트카페 ‘움’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수안동 도심지 한 복판에 자리한 아트카페 ‘움’은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가까이서 예술을 접하고 만끽할 수 있어 삭막한 도심지의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로 주목받고 있다.

“움은 새로 돌아오는 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면서 러시아어로는 지혜, 영어로는 뮤지엄(Museum)을 뜻하죠. 또, 한자인 몽(夢)을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언제나 새롭고 생동감 넘치는 뮤지엄으로 아름다운 꿈과 지혜로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갤러리 관장을 맡고 있는 시누이 이은희 씨와 함께 아트카페 ‘움’을 꾸려가고 있는 김은숙 대표. 평소에도 공연장과 전시장을 즐겨 찾는다는 그는 일년 전 해운대에서 이 곳으로 이사오면서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아트카페’를 표방한 만큼 ‘움’에서만큼은 365일 언제나 예술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고 싶다는 그는 웬만한 전문가도 해



차한잔의 여유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가까이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아트카페 '움'

내기 힘든 상설무대를 매주 목요일 열어오고 있다.

그동안 상설무대를 통해 다녀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부지기수.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씨를 비롯해 폴리포니 클래식기타 듀오, 피아니스트 박정현, 첼리스트 김정원, 플루티스트 박은아, 성악가 정혜리, 장은영, 송윤경, 박현정, 김은수, 박대용, 김정대, 김지호,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흥희철, 작곡가 정두환 씨에서부터 색소포니스트 김진목, 하모니카연주자 이성규, 요들송 가수 이병화, 아코디언연주자 송용창, 오카리나앙상블 '오카리나 Poem',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영 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이 곳 무대에 섰다. 또 지난 7월에는 중앙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현 씨가 첫 번째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쇼케이스 무대를 '움' 에서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9월에는 1일 가야금 연주자 장경미의 '해설이 있는 25현 가야금 연주회' 를 시작으로 8일 오바드 첼로 콰르텟 연주회, 22일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첼리스트 송언경의 첼로와 기타의 만남, 29일 혼성 듀오 'Poema' 콘서트가 계속된다.

전시회 또한 개관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어왔는데, 4월 1일 개관과 동시에 열렸던 개관기념전 '김태진 화가 초대전' 을 시작으로 공예가 김상호, 배선주, 이용기, 진영섭, 홍찬호 등이 참여한 '5인 공예가 초대전', 작가 8명이 예술로 승화시킨 조명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빛의 조형전' 등이 열려 '움' 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9월부터는 미술 소장가들의 애장품을 소개하는 'My collections 나의 소장품전-미술의 향유'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 소장가들의 애장품을 소개하고 감상하는 전시로, 미술품 소장자의 가치와 매력을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현재 상설음악회가 열리는 목요일에는 10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움' 을 찾고 있다. 공연기획에서부터 연주자 섭외, 공연준비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하루에도 열두 번 후회를 한다는 김은숙 대표. 그러나 '움' 을 찾은 관객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매번 새로운 힘을 얻는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시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문턱을 더욱 더 낮춘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김은숙 대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사랑방으로 앞으로 제 2, 제 3의 아트카페 '움' 을 부산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www.cafeum.co.kr)



아트카페 '움' 에는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목요일상설무대가 열린다.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울림 해운대 NO老 실버합창단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청춘합창단’이 연일 화제이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합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어르신들의 열정이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제 2, 제 3의 ‘청춘합창단’이 결성되고 있다. 지난 4월 첫 발을 내딛은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이하 노노합창단)’ 역시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늙기(老)’를 ‘거부(NO)’하는 ‘청춘합창단’이다.

“정년퇴임 후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합창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합창단 결성에서부터 합창지도까지 노노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고봉수 씨. 이른바 ‘청춘합창단’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합창단 결성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그는 직접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고 단원들을 모집했다.

해운대에 거주하는 58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인 ‘노노합창단’은 현재 최고령 단원인 74세 천경남 씨를 비롯해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합창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69세. 환갑의 어르신들도 여기서는 한참 어린 막내일 뿐이다. 노노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해운대 장산역 부근 웅신시네아트 7층 연습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두시간씩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각자 평생을 살아온 내력은 모두 다르지만 ‘합창’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단원들의 열정이 있어 연습시간은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 합



지난 4월 첫 발을 내딛은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은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늙기(老)를 거부(NO)'하는 '청춘합창단'이다. 살아온 내력은 모두 다르지만 합창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낸다.

창단 단원들 역시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는 지휘자 고봉수 씨를 받아들처럼 믿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대락 씨(68세). 헬스장을 함께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합창단과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노노합창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노합창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전도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정대락 단장은 특히 노노합창단이 유관기관 소속이 아닌 자생적인 실버합창단으로서 지역에서 처음인 만큼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신문에 게재된 단원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한 우주자 씨(67세). 30여년 전 자녀들이 다녔던 동백초등학교 어머니합창단의 초대회장을 맡을 정도로 합창과는 그 인연이 깊고 깊다. 이후에도 성가대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우주자 씨는 나이가 들면서 성가대 활동을 그만둔 후 합창단 결성까지 생각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이런 열정을 아는 가족들로부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춘합창단'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는 우주자 씨는 노래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합창단 활동이 행복하다.

노노합창단의 '젊은 피' 진우재 씨. 이제 창단 5개월에 접어든 합창단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는 자칭 타칭 합창단 홍보대사이다. 진우재 씨 역시 지역신문에 게재된 단원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연습시간이 짧아 못내 아쉽다는 그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자주 모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합창이 주는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동무생각 등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친숙한 곡이나 부르기 쉬운 곡들을 선곡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내년 2월에 있을 창단연주회를 위한 본격적인 합창곡 연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울림을 들려주겠다는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못다 이룬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있기에 언제나 그들은 '청춘합창단'이다.

● 문 의 |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고봉수(010-4434-6605)



청소년 음악회, 뭐가 다르지?

박진홍_음악평론가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체험교육음악회

아직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나를 둘러싼 많은 일들의 변화를 살피는 일도 삶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음악과 음악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음악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조차 눈을 돌리게 된다.

올 여름, 나의 관심을 끄는 일은 청소년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청소년 음악회 특수이다. 몇 해 전부터 여름이면 부산의 여러 공연장에서는 청소년 음악회가 많이 열린다. 청소년 음악회라는 이름을 걸고 2011년 7월과 8월, 약 30여개의 청소년 음악회가 열렸다. 청소년 음악회라는 타이틀을 달지는 않았지만 여름방학 특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음악회를 포함하면 그 수가 만만치 않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연주회가 많지 않았던 부산의 7, 8월이었지만, 청소년 음악회가 많아짐과 더불어 그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여름방학 특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음악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직 음악회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관람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휴대폰 소리와 잡담들, 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무대 위의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관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었다. 몇 년이 지난 요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음악회장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 해설자의 입

장에서나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수 년 동안, 청소년 음악회를 봐 오면서 드는 생각은 청소년 음악회인데 다른 음악회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음악회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해설자가 나와 곡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 음악회의 시작과 성장의 일면에서 새로운 시도였고, 교육적 의미가 다분히 있었다지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8월에 있었던 두 개의 청소년 음악회에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 보았다. 8월 12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과 야외공연장에서는 ‘체험교육음악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연주를 듣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장르버라이어티 관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Noise Concert’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의 형식을 패러디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음악회가 쉬운 레퍼토리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일반 음악회보다는 무대와 객석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했다면 이 두 공연은 직접 경험하거나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음악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연주회장으로 이끌어 미래의 잠재적 관객을 형성함으로써 음악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평생 음악을 향유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청소년 음악회의 가치일 것이다. 2012년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과 소통하며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창작뮤지컬 ‘산채로 말린’ 기괴한, 그러나 필요한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한국 연극사에서 박제사를 다룬 희곡으로 이강백의 <호모 세파라투스>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박제사’는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남북한’을 상징하는 ‘동서’의 도시를 오고 가며, 인간의 영혼을 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사체를 물리적으로 보존처리하는 박제사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획일화시키는 조정자로서의 박제사로 등장한 것이다. 이 희곡이 1980년대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이 남북의 긴장 관계를 다루려 했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려는 위정자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다.

그 후 30년이 흘렀다. 이제 한 젊은 극작가 겸 뮤지컬 연출가가 ‘박제사’ 이야기를 들고 나타났다. 박제사라는 소재는 같되, 그 박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박제사를 통해 전달하려는 작가의 전언, 그리고 박제사를 활용하여 공연을 꾸려가는 방식은 30년 전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젊은 극작가에게 박제사는 이념 시대의 소산이 아니며 위정자에 대한 비판도 아니다. 멈춘 성장으로서의 비유이자 유폐된 자아의 간절한 표현 욕구로 작용한다. 시대가 달라졌고 작가의 개성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호모 세파라투스>가 비유적인 상징체계를 갖추고 정극으로서의 정중함을 강조했다면, <산채로 말린>은 비유적인 체계를 따르면서도 뮤지컬의 외양을 띠고 있어 생기발랄한 측면까지 겸비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비교는 자연스럽게 이 젊은 극작가의 사유 체계를 대변하고, 아울러 2000년대의 시대적 함의도 보여준다. 이채경에게 ‘세상’은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항 대립적 체계로 인식되는 것 같고, 그녀에게 연극이란 그 의미(체계)를 담보할 비유적 ‘세계’를 건축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가령 산 속 마을 대 시내, 리오나 대 사내, 죽음 대 보험이 등의 대립적인 체계가 그러하고, 마을 구성이나 모세·루시아·젤다·배달원·

군인·보험외판원이라는 성격분할방식 등이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극작술은 장단점을 내재하게 마련이다. 천변만화하는 세상을 압축하여 재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작가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난다. 반면 비유로 만들어진 세계는 낯선 세상처럼 생경하고 잘못 요약한 과제처럼 자칫하면 현실의 많은 부분을 누락할 위험도 안게 된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을 듯 하다. 이 젊은 연출가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진지한 문제의식 뒤에서, 가열 찬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연의 형식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노래와 춤이 보다 경쾌해졌으면 한다. 이채경은 다소 무거운 톤의 대사와 그에 상응하는 노래를 주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축조된 세상으로서의 비유를 염두에 둔다면, 한결 경쾌한 중화 작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노래 중에 인상적인 곡이 부재하다는 점은 뮤지컬로서 고쳐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한다. 반면 기존의 창작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 발전했으면 한다. 비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는 점점 깊어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연극이 반드시 사회에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젊은 작가들 중에, 이러한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지키는 작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평소부터 생각해 왔는데, 이채경의 행보는 이러한 기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횡행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채로 말린>에서 축조되었던 세계가, 시간이 흘러가고 연습이 무리익으면서,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삶의 진짜 향기 역시 더욱 진하게 피어오를 것이다. 그 향기가 나아, 영혼의 진실된 박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극의 박제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의 세계화

8월 30일-9월 3일 화-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중극장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두 번째 무대, 8월 30일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의 연주자들이 세계화된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 실내악의 밤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프로그램

헨델/할보르센 파사칼리아 사단조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KV 581

브람스/피아노 4중주 1번 사단조 작품 25

- 연주/강동석(바이올린), 에드워드 아론(첼로), 플로랑 에오(클라리넷), 제레미 뎅크(피아노), 김복수, 신상준(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양욱진(첼로)

▶ 철새악사와의 가족콘서트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프로그램

Sirba from Rumania, Hommage á Khatchaturian, Kovacs, Horo and ratchenitza from Bulgaria

Brasileirinho, Azevedo, Tico Tico, Abreu 등 수곡

- 연주/플로랑 에오(클라리넷), 브루노 데무이에르(퍼커션)

▶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3번 다장조, 작품번호 37

슈베르트/교향곡 제 9번 다장조 '그레이트'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제레미 뎅크(피아노)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폐막연주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2-8291)

인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9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 중극장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균형감있게 성장시켜온 민간 청소년교향악단 인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의 제 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로시니/ '도둑까지' 서곡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장미니(플루트, 싱가포르국제학교 9학년)
- 박소정(마림바, 재송여중 3학년)
- 이은희(클라리넷, 동주여중 3학년)

::관람료 초대

::문의 장은정(010-4842-6688)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9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보이스 싱어즈 남성양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문동환의 독창회.

동의대학교와 대학원, 이태리 로마 A.R.D.M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서바토orium에서 디플롬

을 받은 문동환은 '라보엠', '돈조반니', '몽유병의 여인' 등 오페라무대와 부산국제창작음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프로그램

슈만/너는 한송이 꽃과 같이

볼프/음악가

바그너/소나무

한국가곡/그리움의 바다(문동환 곡), 귀천(김종덕 곡), 명태(변훈 곡) 등 수곡

· 반주/이경미(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문동환(010-4628-3098)

락그룹 '퀸' 결성 40주년 기념 부산오페라합창단 특별기획 공연 토크 뮤지컬 'Love of Queen'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세계적인 락 밴드 '퀸'의 결성 4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오페라합창단의 특별기획공연 'Love of Queen'.

'Love of Queen'은 퀸의 명곡을 엮은 음악극 형식의 '토크 뮤지컬'로 불우한 환경에서 살인범이 된 소년의 최후를 노래한 'Bohemian Rhapsody', 세상의 수많은 억압들에 저항하며 사랑을 외치는 'Under Pressure',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심정을 노래한 'Killer Queen', 실연의 아픔을 노래하는 'Love of my life' 등 퀸의 노랫말이 전해주는 사랑을 이야기와 음악극으로 엮어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 지휘/김명규 · 연출/김세환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15,000원

::문의 부산오페라합창단(010-2391-2258)

소프라노 김정원 독창회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도니체티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김정원 독창회.

김정원은 유학중 Schio 국제콩쿠르 입상, Giulio neri 국제성악콩쿠르 특별 상 등을 수상하며 감각적

인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퍼셀/음악이 있는 동안

로시니/베네치아의 곤돌라 경기, 베네치아 사투리로 된

3개의 노래

김동진/가고파 등 수곡

· 피아노/류형길

::관람료 초대

::문의 김정은(010-3915-3902)

**부산가야금연주단 제 7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 가야의 혼불 -**

9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김남순

강정숙

장원상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가야금 전공자 30여명으로 창단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상설공연을 비롯해 연간 20~30회의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과 춤이라는 컨셉을 설정, 1부에서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에 산조춤을, 2부에서는 이원국발레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김계옥/궁타령의 멋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정대석/가야의 혼불(2011년 부산가야금연주단 위촉 초연)

이준호/바람의 향기(2009년 부산가야금연주단 위촉곡)
백대웅/남도 아리랑

장우균(편곡)/너의 혼은 꽃이되고

· 지휘/이수은

· 단장/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 산조춤/장선희(장선희무용단 '춤터' 예술감독)

· 발레/이원국 발레단

· 노래/강정숙(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장원상(경성대학교 교수)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황정원(010-3050-5736)

**BN그룹,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 4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오충근

김가영

박은주

기업이윤의 사회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향토기업 비엔그룹이 대선주조 인수를 맞아 부산의 베스트 뮤지션들과 함께 들려주는 명품 클래식 공연 제 4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비올리스트 김가영,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전병호 등이 출연, 갈등, 사랑, 건배, 환희를 노래한 주요 오페라 아리아로 가을을 연다.

::프로그램

베를리오즈/이탈리아의 헤룰드 작품 16

도니제티/오페라 '루치아' 중 '나를 붙드는 것은 누구인가?'

베르디/오페라 '리골렛토' 중 '언젠가는 모르지만'

푸치니/오페라 '라 보엠' 중 '모든 것이 끝났다'

룸버그/ '황태자의 첫사랑' 중 '마시자-드링킹 송'

라벨/볼레로 등 수곡

· 지휘/오충근(고신대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김가영(비올라), 박은주(소프라노), 전병호(테너), 박대웅(바리톤), 유형광(베이스), 김현애(소프라노), 홍지형(테너), 성미진(메조소프라노)

· 중창/삼손중창단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KNN(1577-76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II - 그림 속의 클래식'

9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 중극장



이동신

정준호

이승진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2011년 무대 '클래식이 보인다 III'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두 번째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 칼럼니스트 정준호의 해설로, 미술사와 음악사를 비교하며 시대 및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왈츠 '비엔나 기질' 작품 354

비제/ '아름의 여인' 모음곡 제 1번 중 '아다지에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모음곡 중 '백조'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장조 작품

33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해설 및 진행/정준호

· 첼로/이승진(영남대학교 교수)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박지희 피아노 독주회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부산예술고와 세종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현재 트로싱엔 국립음대에 재학 중인 박지희 피아노 독주회. 박지희는 Heckerdamm in Berlin 한인음악회, 독일 다수 마스터클래스 연주,

Anfatique duo concert 연주에 참가하면서 폭넓은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BWV 866 내림나장조
베토벤/소나타 제 3번 다장조 작품 2-3
리스트/파가니니 에튀드 제 6번, 메피스토 왈츠 제 1번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지희(010-7710-4025)

베르디/오페라 '돈 카를로' 중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등 수곡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정현, 바리톤 박종준, 첼리스트 송남언

· 피아노/손소연

::관람료 초대

::문의 (사)아지무스오페라단(632-4649)

진준영, 강정아 2인 음악회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진준영과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강정아의 2인 음악회.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110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31 제 2번
슈만/나비 작품 2

::관람료 무료

::문의 강정아(010-9338-8485)

제 9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사)아지무스오페라 대표, KCI예술위원, 국제와이즈 멘합창단, 부산CBMC합창단, 부산레이디싱어즈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 손욱 독창회.

오페라 이야기와 그 노래의 배경을 설명하고 오페라 세리에(정가극)와 오페라 부파(희가극)를 대비시켜 오페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에르나니' 중 '불행한 사나이여'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외투의 노래'
모차르트/오페라 '돈조반니' 중 '함께 손 잡고 갑시다'
'카달로그의 노래'

2011년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가곡과 아리아의 밤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00 >>> 대극장

부산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되는 부산의 종합예술축제 '2011 부산예술제' 개막을 기념해 부산의 성악가들이 가을의 서정을 담은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펼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김동조/오륙도 등대불 만큼
박판길/산노을 등 수곡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이동신)

출연

소프라노 김유섬, 박현정, 고예정, 테너 장원상, 강학윤, 오동주, 조윤환, 바리톤 하병욱, 베이스 김정대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예총(631-1377)

제 2회 가을을 여는 음악회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여름 더위에 지친 음악애호가들에게 우리 귀에 익은 오페라 아리아, 우리 가곡 등 감미로운 선율로 가을을 여는 서정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대금 산조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이수인/내 마음의 강물
차이코프스키/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내 청춘은 어디로 가고'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등 수곡

· 연주/정은아(대금), 김현애(소프라노), 이은민(테너), 박미은, 김성희(피아노), 조혜운(바이올린), 서희수(소프라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15,000원

::문의 공연기획 가야(010-4988-536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 '동물원 콘서트'

9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2009년 9월 이한철로 시작된 '하늘아래 그 콘서트'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 '동물원 콘서트'.

1988년 김광석, 김창기, 박경찬, 박기영, 유준열, 이성우, 최형규 등 7명의 대학생들로 출발한 '동물원'은 '거리에서'와 '변해가네' 등이 담긴 첫 앨범의 빅히트 이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가 담긴 2집 앨범을 연속 히트시켰다.

1990년 김광석의 솔로 앨범 발표와 멤버들의 취직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2년 4집, 1993년 5집을 발표함으로써 꾸준히 우리 곁을 지켜 오던 '동물원'은 1996년 '널 사랑하겠어'가 담긴 6집을 빅히트시키면서, 그들의 음악적인 저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김명자의 춤 대공연

9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 대극장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회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와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로 우리춤의 맥을 이어온 김명자의 춤 대공연.

김명자 선생은 우봉 이매방 선생의 제자이자 평생

을 함께한 반려자로 이매방 전통춤의 미학과 맥을 이어왔다.

::프로그램

기원무, 승무, 살풀이춤, 입춤, 장고춤, 사풍정감, 장검무, 대감놀이, 삼고무

출연

이민아, 정혜림, 이윤희, 손현, 윤여숙, 하연화, 이예숙, 이예주, 김정경, 김주연, 이필호, 최지은, 안주희 외

·특별출연/인간문화재 이매방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명자(646-4480, 019-567-4480)

박성호무용단 '신화가 된 사랑-공민, 몽(夢)'

9월 17일-18일 토요일 오후 4:00,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다양한 몸짓과 탈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춤탈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박성호무용단의 '신화가 된 사랑'.



12살 원나라에 끌려가 두 번이나 왕권 도전에 실패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숨죽여야했던 공민왕의 절망과 고령에 대한 사랑, 노국공주와의 운명을 뛰어넘은 사랑을 '공민', '몽(夢)' 두 작품으로 선보인다.

박성호무용단은 부산무용제 대상 및 안무상, 전국무용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무/박성호 ·대본/이미연

·출연/박성호, 강모세, 허태성, 박수정, 한수성, 김재용, 최성윤, 김민내, 이해경, 수정, 최혜란 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15,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박성호무용단(010-5530-4102)

경성대학교(663-4964)

제 4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9월 18일-19일 일-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100여명이 들려주는 웅장한 피아노의 향연 제 4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첫날에는 임준오가 지휘하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와의 피아노 협연무대, 둘째날에는 여러 대의 피아노에 10여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연주, 최고의 피아노 앙상블을 들려준다.

■제 1일 9월 18(일) 협주곡의 밤

미국 Frinna Awerbuch 국제콩쿠르, 프랑스 Moulin d'Ande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신은숙, 파리 에콜 노르말 디플롬을 획득한 심정연, 부산대학교와 독일 Aachen 국립음대, 네덜란드 Rotterdam 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한은아가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피아노협주곡 제 1번 내림라장조 작품 10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 9번 작품 271 내림마장조

'젠놈'

브람스/피아노협주곡 제 1번 라단조 작품 15

·지휘/임준오

·연주/뉴프라임 오케스트라

·협연/신은숙, 심정연, 한은아

■제 2일 9월 19(월)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바흐/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제 3번 1악장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 40번

차이코프스키/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a 중

윤도현 밴드/It Burns, 잊을게, 나는 나비

정승원/베이징에서 벽지(僻地)마을까지의 소식들 등

·연주/김성숙, 허혜정, 김정강, 정광민, 이선옥, 임성아, 노지영, 최진현, 신애정, 최은주, 이윤정, 한정민, 박지은, 이지선, 차미령, 김미진, 박선미 외

::관람료 18일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19일 균일 10,000원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www.bmasso.or.kr)

2인 음악회

9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 소극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이해경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조근형이 들려주는 2인 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제 13번 K.333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28번 작품 101

쇼팽/판타지 작품 49 등 수록

::관람료 무료

::문의 이해경(010-9784-0501)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9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동서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이태리 유학 중 리냐노 샵비아도로 국제콩쿠르, 안젤리카 카탈라니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하병욱은 그동안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팔리아치' '피가로의 결혼' '라미꼬 프리츠' 등 오페라 무대를 비롯해 '합창교향곡' '메시아' '천지창조' 등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1부는 돈키호테를, 2부는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벨/돈키호테와 들씨네-공상적인 노래, 서사적인 노래, 축배의 노래

이베르/돈키호테의 노래-돈키호테의 출발, 들씨네에게 바치는 노래, 공작의 노래, 죽음의 노래

마스네/오페라 '돈키호테' 중 'Comment peut-on penser du bien'

이상근/해곡, 기다림(雅歌 I 중), 눈이 내린다(雅歌 II 중)

· 피아노/하예라

::관람료 초대

::문의 하병욱(320-1914)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음악회 제 24회 부산합창제

9월 20일-21일 화-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있는 합창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부산지역 합창단들의 축제.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14개 합창단이 출연한다.

::출연단체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JJC Chorus(지휘/구영립)

청솔합창단(지휘/강학운)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미룡사 바라밀(지휘/추현철)

문화합창단(지휘/배천중)

부산챔버싱어즈(지휘/김현식)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명규)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청라여성합창단(지휘/이득수)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부산교사합창단(지휘/박운호)

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제 42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독일에서 공부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제 42회 정기연주회 무대로 피아니스트 강혜경, 고은경, 금찬이, 조혜영, 고태욱, 신현희가 다양한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바흐/부조니-사콘느

치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 연주/강혜경, 고은경, 금찬이, 조혜영, 고태욱, 신현희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전영수 팀파니스토리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동의대학교와 폴란드 국립 쇼팽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United Korean Orchestra(U.K.O),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영수 타악기 독주

회 '팀파니스토리'.

· 특별출연/Percussion 장경식, 김지연, 김동주, 예병현

· 피아노/이은정

::관람료 초대

::문의 전영수(010-7309-8069)

바리톤 윤풍원 귀국 독창회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마르세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이태리 Scuole Civiche di Milano 최고연주자과정, 이태리 Scuola Musicale di Milano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바리톤 윤풍원 귀국 독창회.

윤풍원은 유학중 Alice bel Colle 이태리 국제콩쿠르 3등, 이태리 Brescia 국제콩쿠르 입상, Terre dei Fieschi 국제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세르세' 중 '라르고(ombra mai fu)'

가스탈돈/금지된 노래(Musica proibita)

김동환/그리운 마음 등 수곡

· 피아노/표세구

::관람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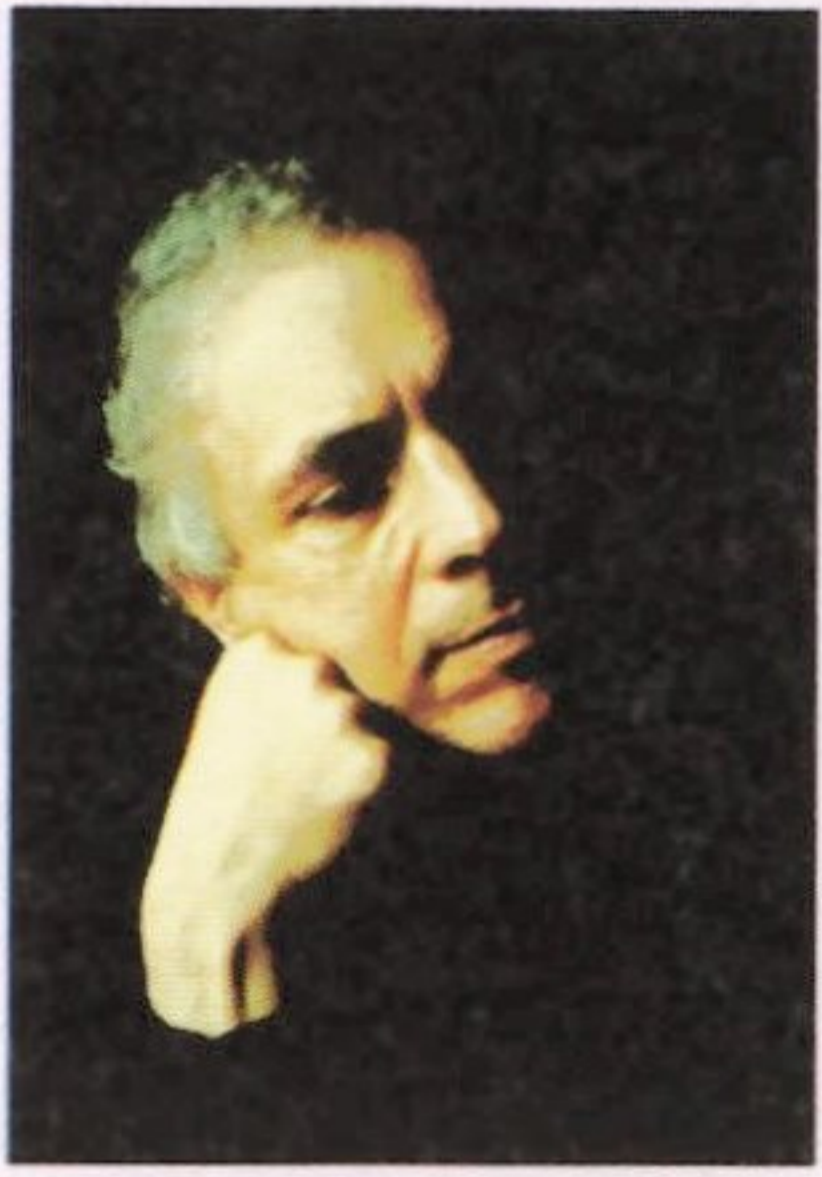
::문의 윤풍원(010-5239-2749)

20세기 피아노 음악의 거장, 건반 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 피아노 독주회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독창적인 해석,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시적이고 기품 넘치는 음악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노의 거장 러셀 셔먼 부산연주회.

우아하고 상상력 넘치는 시적인 감수성으로 비평가와 청중들로부터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러셀 셔먼은



체코 필하모닉과 모나드
낙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와 베토벤의 5개의 피아
노 협주곡과 베토벤의 피
아노 소나타 전곡을 녹음,
미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최초로 베토벤 협주곡 전
곡과 소나타 전곡을 녹음

했다.

81세의 거장 러셀 서먼은 팔순이 된 지금까지도 피아
노를 탐구하며 '사색하는 비루투오소'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프로그램

슈만/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 18, 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리스트/페트라르카 소네트, 소나타 나단조 S.178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윤호간 '피아노와 이빨'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무거운 클래식 곡 대신 팝송과 가요, 동요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피아노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편안함을 선
사하며 피아노 공연 사상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호간의 '피아노와 이빨' 부산무대.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재단과 교보생명이 함께하는 이
른둥이 지원사업인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일환으로
부산기부자 감사행사로 마련된다.

:: 관람료 해당기부자 별도 초대

:: 문의 아름다운 재단(02-3675-123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지역 유망음악도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친 청소년 유망주들이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프로그램

랄로/첼로 협주곡 라단조 중 제 3악장

크루셀/클라리넷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5 중 제 1악장

헌데미트/백조 고기를 굽는 사람 중 제 1악장

라벨/치간느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서지호(첼로, 해강중 1년), 이정윤(클라리넷, 부
산예중 2년), 김량하(비올라, 부산예고 3년), 권
순지(바이올린, 부산대 2년), 박근우(피아노, 부
산예고 2년), 이유진(마림바, 부산예고 2년), 최
고은(첼로, 부산예고 1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송언경 첼로 독주회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중저음의 편안한 소리 첼
로와 자연을 닮은 소리의
작은 오케스트라 기타가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연 송언경 첼로 독주회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쉽게 접하기 힘든 첼로와
기타만을 위해 편곡된 다

양한 곡들로 감미로운 이중주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도짜워/포프리

롬베르그/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 클래식기타/고충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한새오카리나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 소극장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오카리나 앙상블의 창단 10주
년 기념연주회.

한새 오카리나의 발자취와 더불어 한새 오카리나만의
색깔로 편곡된 가장 아끼는 음악들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황미경(010-5036-4787)

2011 부산예술제 제 49회 부산무용예술제 '향수(鄉愁)'

9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 대극장

부산무용의 활성화와 예술성을 고취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2011년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부산의 상징인 바다, 갈매기, 학, 동백꽃을 이미지화
표현하여 뱃노래에 맞추어 흥겨운 허튼춤으로 표현한
부산시민대동춤, 김명자무용단, 남선주무용단, 김복선
무용단, 박은화무용단이 다양한 장르의 춤을 펼친다.

작품

제 20회 전국무용제기념축하공연(부산문화회관 중앙광
장) - 시민대동춤

김명자무용단 '승무', 남선주무용단 '찰나 속에서...'

김복선무용단 'Blue River', 박은화무용단 '몸의 기억'

일본전통무용단(시모노세키 무용협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2-5116)

창단 제 25주년 기념 어울림국악연구회 제 17회 정기연주회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 중극장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을
위한 단소무료강습회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성, 전통음
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
전시켜온 어울림국악연구회는 16회의 정기연주회, 64
회 가족음악회, 82회의 단소강습을 통해 많은 강습생
을 배출했다.

:: 프로그램

관현악합주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세악합주 '중광지곡' 중 '염불도드리, 타령'

관악합주 '수제천' 등 수곡

- 집박/이의경(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상임지휘자)
- 해설/김수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단원, 어울림국악 연구회상임고문)
- 특별출연/일본 徳島邦樂集團, 부산풍물패 이음쇠, 김미숙

::관람료 무료

::문의 김수일(010-8845-7975)

Tov여성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9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07년 4월에 창단된 Tov여성합창단은 교회와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 피아노, 오르간, 솔리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 창단 그해 부산문화회관 연주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Tov'는 '좋은, 선함'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다.

::프로그램

Gloria!(L. Spevacek-Avery), Festival Gloria(J. Stanton), Gloria(이현철), 거룩한 주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이일경(010-4880-4918)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제 20회 기념음악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춘향전'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제 20회 기념음악회. 오페라 '춘향전' 전곡 중에서 주요한 곡을 선별, 갈라무대를 연다.

출연 김경희, 김양자, 서정아, 장은영, 박소영, 옥혜나, 윤지

영(이상 소프라노), 양승엽, 엄현섭, 김철수, 정종철(이상 테너), 이철훈(바리톤)

· 피아노/이현주, 이경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정아(010-7503-6564)

Piano Essay Concert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경성대학교, 창원대학교 출신의 동문으로 이루어진 클래식 피아노 연주 단체 '피아노에세이'가 선사하는 낭만과 현대음악의 밤.

::프로그램

슈만/알레그로 작품 8 나단조

쇼팽/발라드 제 1번 사단조 등 수곡

· 출연/박옥희, 김현주, 심세현, 김연지, 김진이, 김혜미

::관람료 초대

::문의 박옥희(010-3882-2382)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 4회 정기연주회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 4회 정기연주회.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월버그/비제 카르멘 주제에 의한 판타지

리스트/피아노 발라드 2번 등 수곡

· 피아노/최은주, 김은희, 구미정, 김선화

· 기타/고충진 · 플룻/김선영, 이윤수, 길명훈

· 바이올린/박경희 · 첼로/전명희 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노은주(010-2565-978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9회 정기연주회 세헤라자데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예브게니 이조토프

매회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며 음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장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선보인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들을 통해 표제음악의 진수와 관현악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교향시 '민동산의 하룻밤' (림스키-코르사코프 편곡)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림스키-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예브게니 이조토프(피아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신라대학교 교수)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6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9월 30일-10월 2일 금-일요일 >>> 중극장, 소극장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의 차문화 보급을 위한 제 6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200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부대행사로 처음 열린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와 차 도구, 차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올해는 일본, 중국, 대만차 현지 초대 무대시연, 차음식 페스티벌, 차실 그림전, 우리옷의 美, 茶文化의 본질과 변천과정을茶具유물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다구유물 500점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거제시 장승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애광원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의 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말메종국립음악원(CNR)을 수석으로 마친 윤에스더, 밝고 따스한 소리를 들려주는 프랑스와 티소(클라리넷),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멜로디로 감동을 자아내는 오렐 마흐땅(피아노), 파워풀하면서도 여성적 섬세함으로 균형을 잃지않는 엘리자 우또(첼로) 등 프랑스 20대 젊은이들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하이든/플룻,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28 라장조 폴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수곡

관람료 S석 30,000원 · 일반석 20,000원

문의 김정훈(010-7152-9748)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야나첵 스트링 콰르텟이 선사하는 '프라하의 가을'

10월 3일 월요일 오후 6:00 >>> 중극장

섬세한 음색과 화려한 테크닉, 감성과 논리의 조화로 부터 나오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국내외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동유럽의 우수어린 서정과 작곡가 야나첵의 음악을 완벽한 앙상블로 재현하는 야나첵 콰르텟이 선사하는 '프라하의 가을'.

프로그램

드볼작/현악4중주 제 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 1번 마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등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주)프로아트(02-585-2934)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9월 3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비발디/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나단조 작품 580(연주/양상블 10 콰르텟)

멘델스존/현악 4중주 제 2번 가단조 작품 13(연주/벨로 코드 콰르텟)

무소르그스키/목관 5중주를 위한 전람회의 그림(링컬만 편곡)(연주/아코 우드윈드 콰르텟)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 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연주/에네어기쉬 영 콰르텟)

브람스/클라리넷 5중주 라단조 작품 115(연주/알라 폴리 콰르텟)

그리그/현악4중주 제1번 사단조 작품 27(연주/뤼미에르 콰르텟)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양상블 10 콰르텟/고은비, 황영은, 권순지, 배아름(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바이올린), 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피아노)

벨로 코드 콰르텟/남가영, 황영은(바이올린), 유의정(비올라), 윤주연(첼로)

아코 우드윈드 콰르텟/이주형(플룻), 박선영(오보에), 이소연(클라리넷), 최윤희(바순), 김지은(호른)

에네어기쉬 영 콰르텟/이창현, 김민경(바이올린), 김량하(비올라), 홍영준(첼로)

알라 폴리 콰르텟/최보린, 최서연(바이올린), 백나경(비올라), 정혜주(첼로), 이효주(클라리넷)

뤼미에르 콰르텟/김효빈, 김옥규(바이올린), 윤솔샘(비올라), 박해지(첼로)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9월 10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무산향(춤/김미란)

훈령대장무(춤/이정식)

성주허튼춤(춤/서현미)

흥타령(춤/강모세, 허태성, 황동하)

멋든춤(춤/김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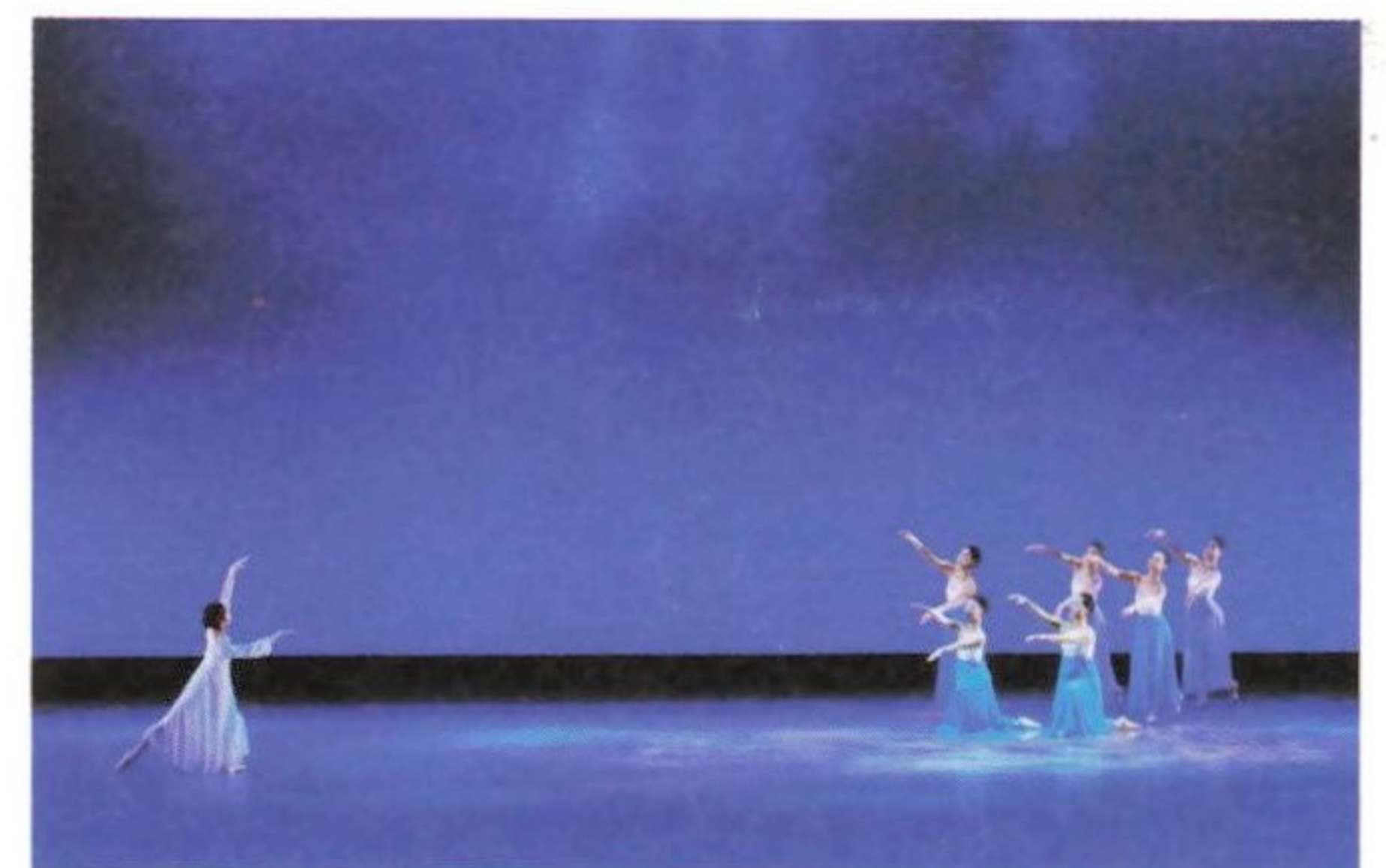
애련(춤/최의옥)

분홍할미꽃(영감/장래훈, 할미/이화성, 제대각시/이현숙)

※수석안무자/홍기태 ※해설/이현숙

(사)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 초청공연

9월 17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강미선무용단-산조춤(춤/이현주, 허영아, 강미선)

부산발레연구회-나야다와 어부 중(춤/박종위, 김사라, 김한나, 백향은, 한진희, 홍상은, 정아르미, 황선미, 설수민, 신다혜)

한국무용단 비선-교방검무(춤/서시영, 정은주, 최수연, 전영란)

강미선무용단-태평무(춤/강미선)

부산발레연구회-Serenade 중(춤/박종위, 김사라, 김한나, 백향은, 한진희, 홍상은, 정아르미, 황선미, 설수민, 신다혜)

한국무용단 비선-진도북춤(춤/정은주, 조난영, 이지수, 김은진, 서시영)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MUSIC

3 Cellos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경수, 이석중, 이재건 이 들려주는 첼로 음악의 향연.

::관람료 초대

::문의 황지연(010-8594-8966)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아트카페 움

복합문화공간 아트카페 움이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목요일음악회.

▶1일 장경미 해설이있는 25현 가야금연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구례향제줄풍류' 이수자, 퓨전국악밴드 별마루, 일파 가야금합주단, 퓨전일렉국악팀 '新B(신비)' 단원으로 활동중인 가야금주자 장

경미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특별출연/김명선, 채미경, 김경현, 이정은(일파가야금 합주단 단원)

▶8일 오바드 첼로 콰르텟 연주회

▶22일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preview concert

경희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인디애나음대를 졸업한 첼리스트 송언경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졸업을 졸업하고 제 2회 대전일보사주최 전국클래식기

타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함께하는 무대.

▶29일 혼성 듀오 'Poema' 콘서트

::관람료 무료

::문의 아트카페 움(557-3369)

DOMO 제 7회 정기연주회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로 창단된 DOMO (Donggeui Oriental Medicine Orchestra) 정기연주회.

· 지휘/정홍기

::관람료 초대

::문의 정인호(010-8838-6450)

금요해피콘서트

9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마련하는 상설 무대.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3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산조(가야금, 대금, 아쟁), 가곡(남창, 여창, 남여창), 승전무 중 '칼춤', 가야금병창, 태평무, 동부 민요, 설장구가락

▶10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입체창 '사랑가', 해금중주, 통영교방 진춤과 동래한량춤, 경기민요, 부채춤, 국악관현악 '프런티어' (양방언 곡), 타악기협주곡 '판굿과 관현악'

▶17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남도잡가 아카펠라 '새타령', 동래학춤, 대금독주 '상령산', 강강술래, 영남들노래, 밀양백중놀이, 사물놀이

▶24일 프로그램

창작모듬북 '난타', 창작무용 '부(釜)의 신명', 창작

<http://www.glovil.org> / [mail:glovil@paran.com](mailto:glovil@paran.com)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1. 10. 8 (토)

국제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 관악, 실내악, 중창, 국악, 실용음악
- 대 상 : 유·초·중·고(재학생포함)·대학 일반(전공부 및 비전공부)
- 집 수 : 8월 22일~10월 1일
- 접수처 : <http://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 과제곡 : 자유곡 1곡 (단 피아노부문 중 중등부 고등부는 예튜드 1곡 외 자유곡 1곡 성악부문 2곡 ※작곡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시 상 : 전체 대상 부산대학교 총장상 / 글로벌아트홀 관장상
부문별 최우수상 각 부문별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교육공로상 우수지도자상 우수학생상
- 수상자 특전 : 전체 대상 개인연주회 개최 / 유학 오디오용 CD DVD / 국제콩쿠르 CD DVD 제공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입상자 연주회 개최 / 글로벌아트홀 대관시 50% 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3호선 4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직진 도보 4분)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약도 : 홈페이지 참조

'부산아라' 중 '홍련의 노래+사랑의 춤', 창작국악관현악 '신모듬' (박범훈 곡), 창작무용 '풍장놀이' 등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Im glauben 제 2회 정기연주회 독일 오페라의 밤

9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에서 활동중인 성악가 김성숙, 백성희, 강송희, 장원영, 서진희, 김지영, 김주호, 최선미로 구성된 Im glauben가 모차르트, 베버,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바리톤 김도형 · 피아노/이현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진희(010-7392-5509)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실내악 시리즈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 초청연주회 I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대공연장**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내외 작곡가들의 창작곡들을 소개해온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 초청무대.
 · 연주/김진수(음악감독, 작곡), 윤성원(바이올린), 김홍준(바이올린), 윤진원(비올라), 이명진(첼로), 송호섭(클라리넷), 한지원(피아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프라노 김동희 독창회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셀라소년 소녀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김동희 독창회. 김동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

연무대, 금정문화예술제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반주/박미은 · 해설/강휴
 · 특별출연/셀라소년소녀 합창단(반주/함혜진)

::관람료 초대
 ::문의 김동희(010-9393-3010)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전통음악 연주회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우리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전통음악 연주회. 현악합주, 관악합주, 가야금병창, 판소리, 가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인들에게 열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공연.
 ▶6일 거문고양상블 다비 '매혹의 시대' '마음을 정화시키는 단비' 라는 뜻으로, 관객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밝고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거문고 앙상블 '다비'의 무대.
 ▶20일 오상아의 한국춤 '향기'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상아의 춤판. 오상아는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태평무, 정가:우조시조 '월정명~', 살풀이춤, 산조춤, 승무, 삼고무

▶27일 유연숙 가야금 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있는 가야금주자 유연숙 독주회.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7일 홍보원 피아노 독주회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강익전담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홍보원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클라비어슈튀케

작품 118
 바버/피아노소나타 작품 26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23번 작품 57
 ▶14일 가을을 여는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 전공자들이 들려주는 피아노 페스티벌.
 · 연주/김정은, 이영송, 이해진, 양찬미, 김민주, 박소은, 이송우, 김소진, 고순임, 허은정, 정민경, 임현정
 ▶21일 제 2회 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소영, 한정민, 김미은, 박주영이 들려주는 리스트 음악의 향연.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프로그램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 14번 사단조, 단테를 읽고,
메피스토 왈츠, 노르마의 회상 등

▶ 28일 손기영 클라리넷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울
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신포
니에타, 뮤즈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
티스트 손기영 독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크루즈 공연 '부산아라'

9월 7일 수요일, 29일 목요일 오전 11: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예술
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가무악희(歌舞樂戲)
총체극 '부산아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을숙도 명품콘서트

9월 8일 목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악사에 빛나는 명협주곡을 중심으로 수준높은 클래
식무대를 선보이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르가니스트 손경순이 생상
스의 '오르간 교향곡'을 들려준다.

· 지휘/임준오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콘서트

테마가 있는 앙상블 나들이

9월 10일, 24일 토요일 오전 11:0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토요해피콘서트.

▶ 10일 라메르앙상블 'OST 영상음악회'

우리 귀에 익은 영화음악, 드라마주제곡 등을 영상과
함께 들려주는 'OST 영상음악회'.

▶ 24(토) 플루티스트 박은아의 음악여행

초가을의 서정을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로 들려줄 플루
티스트 박은아의 음악여행.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소프라노 박은미 독창회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미국 템플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오페라과,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라트라비아타, 리
골레토, 라보엠, 돈조반
니, 버섯피자, 팔리아치
등 다수 오페라의 주역으
로 활동해온 소프라노 박

은미 독창회.

프로그램

비발디/나는 열시받는 아내라오

스트라우스/현사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등 수곡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박은미(010-6351-7969)

최은해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뮌헨
시립음악원, 드레스덴 국
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
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
스트 최은해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

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K.296

베베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 piece

라벨/치간느

· 피아노/표세구

관람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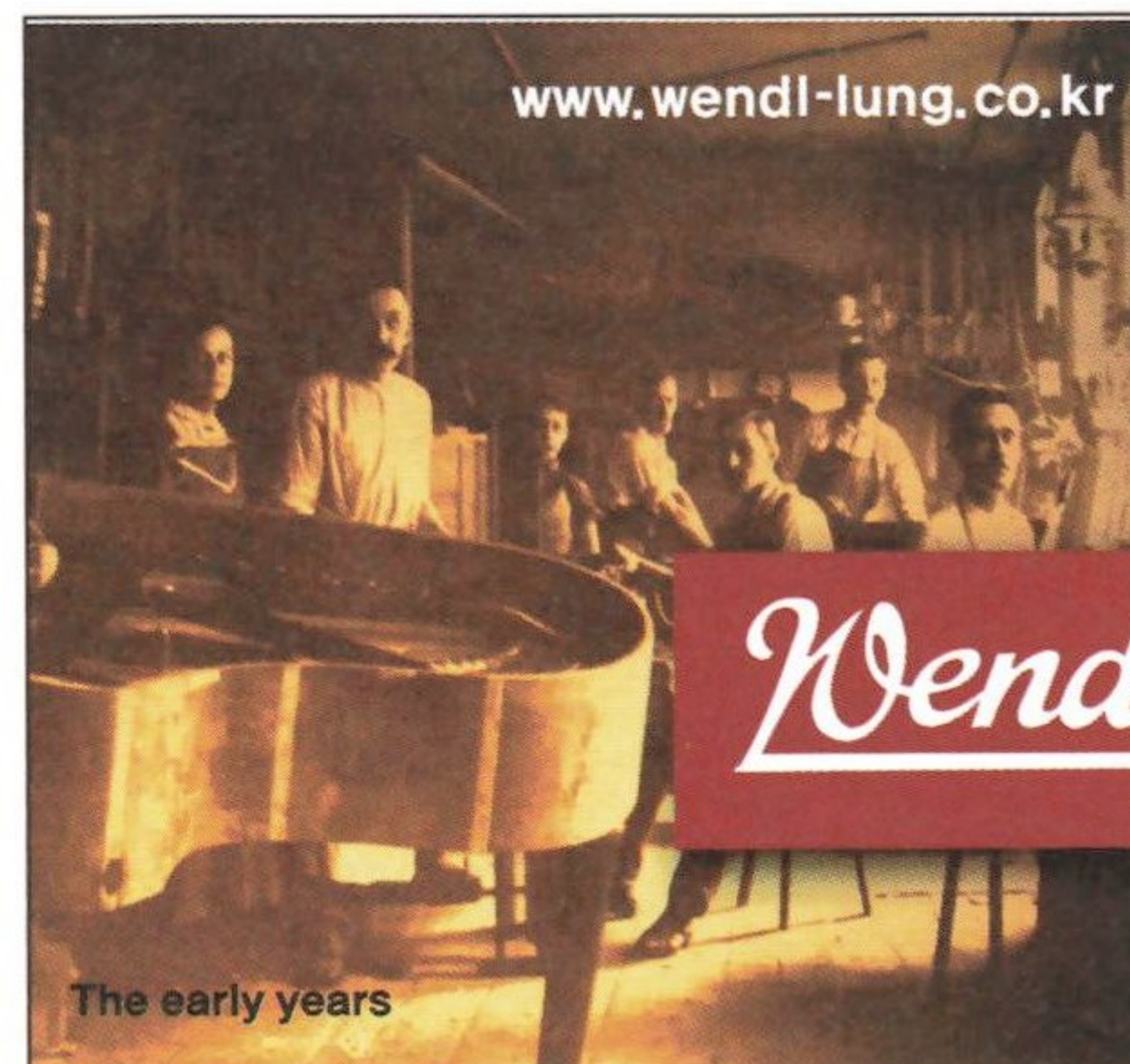
문의 최은해(010-2049-3831)

김지훈 첼로 독주회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파
리 국립고등음악원, 에콜
노르말,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덕여대 교수, 서울
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지훈 독
주회.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t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지휘자로서의 활동영역도 넓혀가고 있는 김지훈은 강남교향악단 첼로수석과 부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 피아노/신정아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골든스트링(512-4295)

2011 생활음악축제

9월 17일-18일 토-일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아마추어 연주인들의 음악축제 2011 생활음악축제.

▶17일 참가팀

성우 Angels Phil 합주단, 메아리자매, 우리소리 두드림, 다나합창단, 대맑은 소리

▶18일 참가팀

노래패 민들레, FEEL, 브라부라양상블, 메아리 우리소리예술단,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관람료 초대

::문의 조소연(010-8574-7951)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페르귤트 이야기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노르웨이의 문호 입센의 극시에 곡을 부친 작곡가 그리그의 관현악모음곡 '페르귤트'와 작곡가 노선경의 창작곡 '혼란'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제 60회 한낮의 유U; 콘서트 진보라 재즈피아노 콘서트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와 함께하는 한낮에 즐기는 재즈피아노 무대.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국제신문사(500-5222)

제 5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가을에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9월 20일 화요일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소극장뮤지컬오페라양상블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7080 가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바리톤 박기국, 소프라노 조영희

· 하모니카/차숙자, 이성규, 라온제나 하모니카 양상블

· 클래식 기타/고충진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신라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신라대학교 관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신라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화려한 관악의 향연.

::프로그램

Moorside March, Opera Favaurites, The Girl I Left Behind Me, Prelude to a Festival 등 수곡

· 지휘/윤두현(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

::관람료 무료

::문의 이교육(010-6512-3113)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 6회 정기연주회

9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영남지역의 전통문화가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기연주회.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창작오페라 백산 안희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을 무대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백산 안희제 선생의 독립정신을 창작오페라로 제작한 아지무스오페라단 '백산 안희제'.

· 예술감독/이성규

· 작/김지숙

· 연출/유상흠

· 작곡/박철홍

· 출연/양승엽, 홍지형, 김도형, 박종준, 조성빈, 김태형, 박소연, 최현민, 이수산나, 서병호, 권상익 외

· 연주/메트로폴리탄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박종휘)

· 합창/아지무스오페라합창단(지휘/강성철)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러시아 음악의 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 고은사진미술관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 피아니스트 김주영, 첼리스트 김지훈, 클라리네티스트 홍수연이 들려주는 러시아 음악의 밤.

하차투리안, 글린카, 아렌스키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박소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가을, 유럽으로의 음악 여행

9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린쯔 주립음대를 졸업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로 활동중인 박소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박소현은 현재 코리안 팍스오케스트라, SGM 오케스트라, 서울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및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김미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5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9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락(樂), 가을을 담다

9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비르투오조의 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역량을 넓혀오고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 리더/백재진 · 협연/김도경(바이올린)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실내악 시리즈 II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연주회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SENTO Chamber Society) 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현악 4중주 '농담'

드보르작/아메리카

슈만/피아노 4중주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11 강태홍의 소리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9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창립된 (사)강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 556. 9410

051)758-5450, 5445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회장 신명숙)의 2011년 무대. 전통의 깊은 정신이 스며있는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각의 창조적인 음악을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느껴볼 수 있다.

· 특별출연/남상일(국립창극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의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010-9392-8727)

박소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연세대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박소연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내림
마장조 HobXVI:52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등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목요국악콘서트 효(孝)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프로그램

천년만세, 가야금 독주 '침향무', 출향(첫 향해),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산도깨비, 소금장수, 두껍아 문지기, 아름다운 인생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2011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 전통음악교류한마당

9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의 전통음악과 부산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호치민, 일본 후쿠오카의 전통음악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외자매도시 전통교류음악회.

· 총기획/김정애 · 총연출/신수방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예매시 50% 할인)

::문의 부산국악협회(644-5211)

PLAY

연극 '내 남자의 혈액형'

1월 12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 · 공휴일 오후 3:00
(화요일 공연없음) >>> 초콜릿 팩토리

혈액형을 통해 본 4인 4색 사랑이야기 '내 남자의 혈액형'.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콘서트 뮤지컬 '배달왔습니다'

7월 19일(화)-10월 3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2관

20년만에 찾은 고향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꿈과 열정, 첫사랑의 가슴 따뜻하고 애절한 추억을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낸 콘서트 뮤지컬.

· 출연/김민경, 허현, 정도훈

::관람료 균일 3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문지마 육남매'

8월 4일(수)-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Red

1960~70년대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홀로 남겨진 육남매를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육남매'.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20주년 기념 오리지널 '년센스'

8월 12일(금)-9월 12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식중독으로 사망한 수녀들의 장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수녀의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이 기상천외한 노래와 춤속에 펼쳐지는 2011 오리지널 '년센스'.

· 출연/박정희, 윤수미, 박수화, 송희영, 김보현 외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발칙한 코메디 폭소연극 '달링_Darling'

8월 12일(금)-9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연극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쿠니의 또다른 작품으로, 모피코트를 사이에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륜과 예측 불허의 반전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 폭소연극 '달링'.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이원준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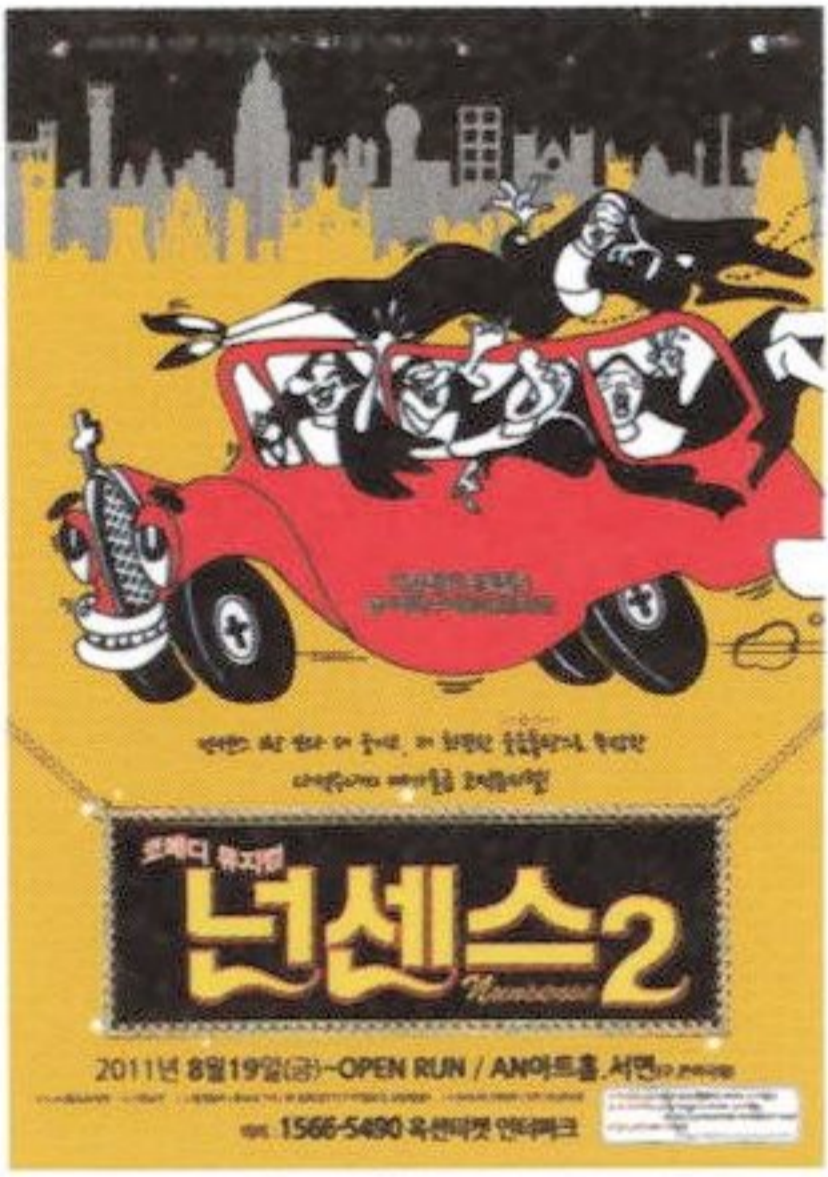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Program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2011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8월 19일(금)-9월 30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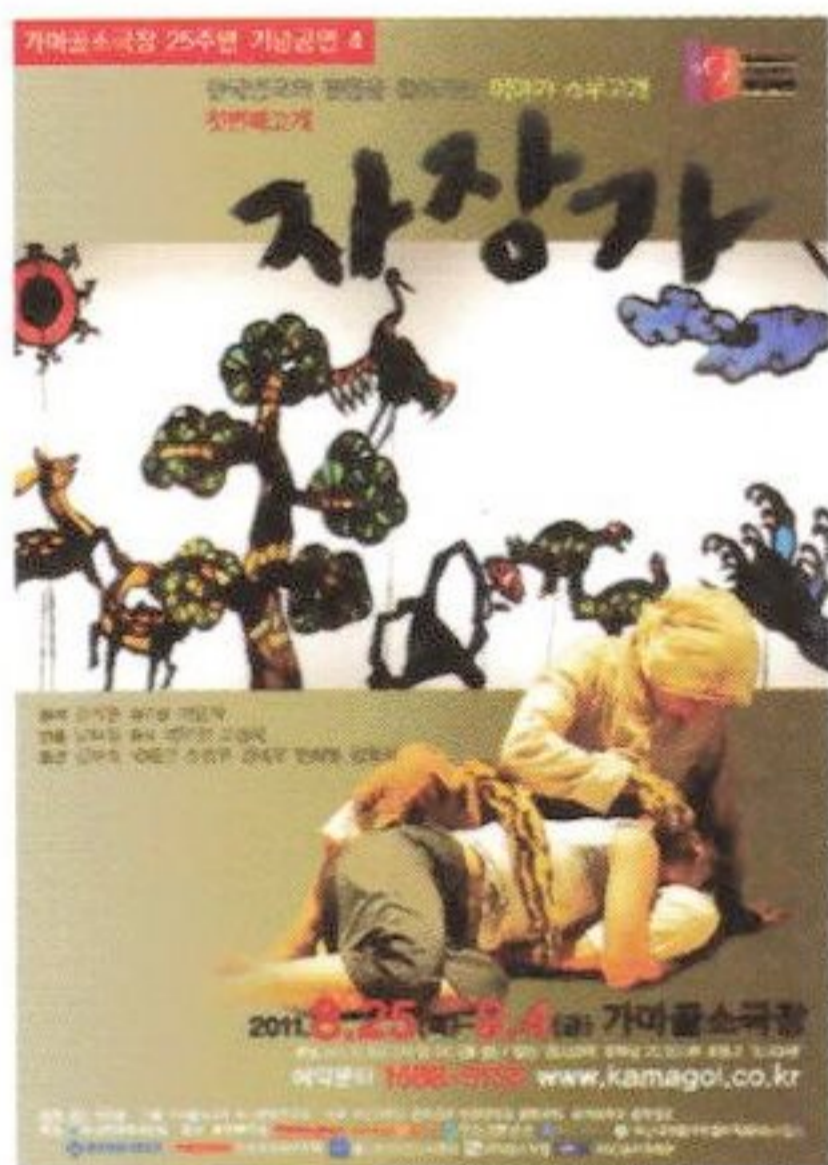
관람료 R석 45,000원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가마골소극장 25주년 기념공연 4 자장가

8월 25일(목)-9월 4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떡 팔려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설화에 단군신화를 새롭게 결합시켜 화해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가족극 '자장가'.

우리의 전통연희극인 '만석중놀이'를 통해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 색채와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 원작/강석현 · 재구성/이윤택
· 연출/남미정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 · 중고생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판타지복합극 피터팬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10, 11:2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피터팬과 함께 떠나는 꿈과 환상의 모험 이야기가 다양한 컬러 그림자극과 인형극, 배우들의 연기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9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가수의 이야기를 그린 금세기 최고의 스타 일리쉬 뮤지컬 '헤드윅'.

1998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헤드윅'은 이번 무대에서 김동완, 최재웅, 조정석이 주인공 헤드윅 역을 맡아 전혀 다른 3색의 헤드윅 무대를 선사한다.

관람료 R석 65,000원 · S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가족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 3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거울에 비쳐지는 걸모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왕비와 거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백설공주



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내용의 백설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라일락향기(626-1722)

클라우드 나인(Cloud 9)

9월 2일(금)-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창작극 작업에 매진해온 공간소극장이 동서대학교 연기과와 협력해 마련한 창작극 무대.

한적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연을 안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으로 펼쳐진다.

· 작/채지하 · 연출/조기왕

· 출연/김근아, 임선미, 이정비, 김하영, 배성윤, 엄창완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부산공연

9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4일 일요일 오후
2:00, 6:30 >>> 시민회관 대극장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인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해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로 평가받으면서 2004년 국내 초



연 후 매 시즌 흥행돌풍을 이어온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연출, 안무/데이비드 스완

· 출연/김준현, 김우형, 소냐, 최현주, 김봉환, 이희정, 김선동 외

::관람료 R석 130,000원 · S석 110,000원

A석 70,000원 ·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일본 정통 가족인형극 요괴인간 타요마

9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 시민회관 대극장

1968년 첫번째 TV시리즈가 전파를 탄 이래 국민적인 인기를 누려온 일본의 요괴 애니메이션을 일본 정통 인형극으로 제작한 가족인형극 '요괴인간 타요마'. 세계정복을 꿈꾸는 나쁜 요괴에 맞서는 착한 요괴 타요마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제 49회 부산예술제 2011 마루연극페스티벌

9월 16일(금)-9월 28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마련한 마루연극페스티벌 첫 번째 무대.

▶마루초청작 '독거인 소광휘'

16일(금)-18일(일) >>> 시민회관 소극장

뽕소니 버스기사 소광휘를 추적하면서 밝혀지기 시작

하는 그의 불운했던 어린시절을 통해 부도적인 사회에 대한 소외현상과 그로 인한 소시민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창작극.

· 작/김상진 · 연출/손기룡

▶마루초청작 '양파'

19일(월)-21일(수)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000년 한국희곡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창작극 '양파'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 작/김수미 · 연출/손병태

▶마루초청작 '적의 화장법'

23일(금)-25일(일)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황폐화된 현대인의 정신 속에 살고있는 또다른 자아의 대면을 그려낸 연극 '적의 화장법'.

· 작/아멜리 노통브 · 연출/강성우

▶해외초청작 '별이 꾸는 꿈'

27일(화)-28일(수)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997년 여성단원들로만 이루어진 일본의 가극단 '에토와르'가 선보이는 노래와 춤, 연극이 함께하는 이색무대. 인간을 사랑하게 된 숲속의 난장이 난글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숲 속의 난장이 난글'과 일본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작, 연출/오오바 히사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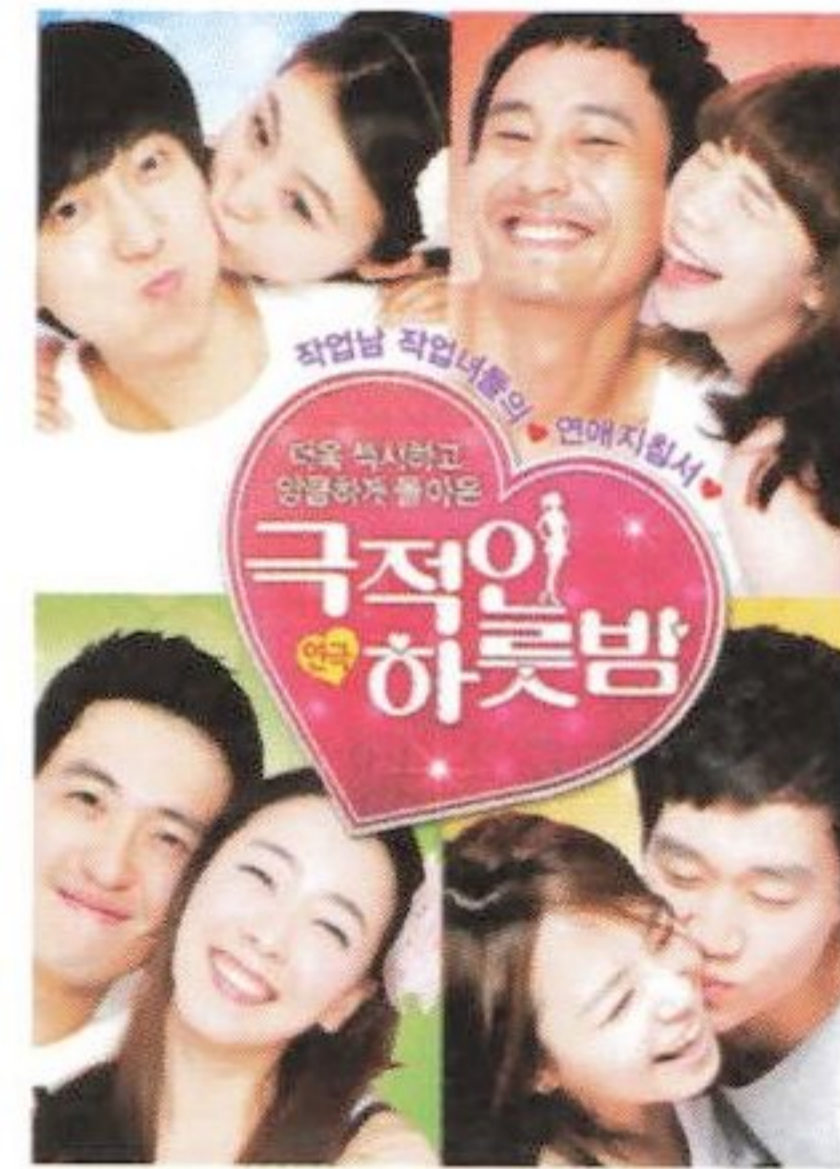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10,000원, 해외초청작은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무료입장)

::문의 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회

(645-3759, www.bstheater.or.kr)

연극 '극적인 하룻밤'

9월 16일(금)-10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옛 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두 남녀의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에서 시작된 발칙한 사랑을 시종일관 직설적으로 그려낸 연극.

· 작/황윤정

· 연출/이재준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수투성이 주인공 펀치넬로가 목수인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창작뮤지컬.

· 원작/맥스 루케이도

· 작, 연출/문경수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의 사계'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00, 20일 화요일 오전 10:10, 11:2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를 새롭게 각색, 베짚이의 생애와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영상과 인형극이 함께

Program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하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폭소 코메디연극 허둥 9단의 바라 바라

9월 20일(화)-10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개그콘서트에서 '허둥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둥환의 폭소 코메디극.

- 연출/허동환
- 출연/허동환, 이광수, 양민석, 김현진, 박정욱, 구미혜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 인형극 '치카치카 호랑이'

9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전 10:10, 11:2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키가 큰 기린과 키 작은 돼지의 장단점을 통해 친구간의 우정을 일깨워주는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와 충치를 소재로 어린이들에게 양치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코믹 인형극 '치카치카 호랑이' 등 두편의 작품이 상연된다.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독거인 소광휘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뽕소니 버스기사 소광휘를 추적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그의 불운했던 어린시절을 통해 부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소외현상과 그로 인한 소시민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창작극. 제 3회 전국

창작희곡공모전 금상 수상작으로 2011년 마루연극페스티벌 초청작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 작/김진 · 연출/손기룡

::관람료 균일 10,000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9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MBC롯데아트홀



1960년대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첫사랑에 눈을 뜨는 열여섯 소녀 흥연과 스물 셋 사회 초년생 동수의 성장통을 통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짝사랑의 감정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2008년 초연무대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오만석이 연출을 맡아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작/이희준 · 연출/오만석

· 작곡/김문정, 최주영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매직버블 콘서트

10월 1일 토요일 오후 6: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화려한 매직쇼에서부터 환상의 버블쇼, 신기한 변경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매직버블 콘서트.

::관람료 일반 30,000원

어린이~초등학생 15,000원

::문의 메디캠퍼스(070-8902-2307)

DANCE

부산예술회관 화요예술무대 Feel(必)花yo! 공감-새암춤회 전통춤판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회관이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화요상설무대. 1992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깊이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인간성 황폐, 인간소외 등 사회적인 문제를 다양한 춤언어로 풀어온 새암춤회가 전통춤판 무대를 펼친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예술회관(612-1372)

조영미 현대무용단의 세 번째 춤이야기 通 - 어울림의 변주

9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댄스씨어터 〈창〉 대표로 있는 무용가 김남진을 초청, 무용수의 몸이 즉흥적 어울림을 통해 변주해내는 서늘한 긴장과 부드러운 소통을 자유롭게 그려낸 두 편의 창작춤을 선보인다.

::작품

변주 하나에서 셋(안무/조영미, 출연/강모세, 안희경, 안주현, 지숙정, 정혜림, 조주은, 조영미)

또 다른 변주-Passivity(안무/김남진, 출연/김남진, 성
한철, 남대우)

· 총연출/조영미 · 대본/이미연

::문 의 조영미현대무용단

(010-5362-6386, 010-8300-4141)

현대무용단 자유 '세월이 흐른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재
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
된 현대무용단 자유의 정
기공연.

'세월이 흐른다' 라는 타이
틀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춤의 여정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창작춤 두편

을 선보인다.

::작품

청춘예찬-bloom(안무/박근영)

Big Wave(안무/정진우)

· 출연/정진우, 박재현, 박근영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정진우(010-6241-6486)

김은경, 윤여숙의 이야기가 있는 춤 4대전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 최초의 민속무용연
구소를 설립, 운영했던 고
(故) 추강(秋剛) 김동민 선
생과 무형문화재 '동래고
무' 예능보유자로 우리춤
전승에 앞장서온 김은경,
윤여숙 모녀, 조카 김울
희, 손녀 곽미소 등 춤 4

대가 한 무대에 서는 특별한 무대.

故 김동민 선생의 생전 영상과 함께 춤 4대를 이어가
는 예가(藝家)의 특별한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프로그램

동래고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강태홍류 산조춤, 태평
무, 동래한량무, 동래한량춤, 동래입춤

· 예술감독/김은경 · 해설/김은경, 윤여숙

· 출연/김은경, 윤여숙, 김울희, 곽미소

· 우정출연/김진홍, 정재만, 김갑용, 박순희, 전정숙,
문임선, 강성희, 김정애, 김순애, 김무희 외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 의 윤여숙(010-3865-6873)

MOVIE

시네마테크 부산 아듀 수영만 특별전

9월 1일(목)-10일(토)

>>>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영화의 전당' 개관으로 이전을 앞둔 시네마테크 부산
이 수영만에서 마지막으로 마련하는 고별상영전.

오즈 야스지로, 호금전, 에밀 쿠스트리차, 압바스 키아
로스타미 등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명감독의 11개
작품이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ONCERT

2011 JK김동욱 콘서트 Tour in Busan

9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WSM(1566-5490)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콘서트

9월 3일 토요일 오후 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환경에너지산업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환경과 에너지
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환경콘서트.

· 출연/가수 홍경민, 추가열, 뮤지컬팀 뮤즈

::관람료 초대

::문 의 국제신문사(500-5222)

2011 이선희 전국투어 콘서트 - 부산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4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문 의 우리콘서트(1577-6228)

2011 인순이 콘서트 'The Fantasia'

9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18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WSM(1566-5490)

이미자, 9월에 바치는 부모님전상서 In 부산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00, 5:00 >>> 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C석 55,000원

::문 의 (주)하늘소리(1566-2505)

2011 김범수 콘서트 '갯을라잇쇼'

내가 범수대!-부산

9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에 한해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루시드폴 콘서트 '목소리와 기타 2011'
9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5:0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관람료 균일 44,000원
문의 (주)WSM(1566-5490)

EVENT

공포 과학체험전
7월 9일(토)~9월 13일(화)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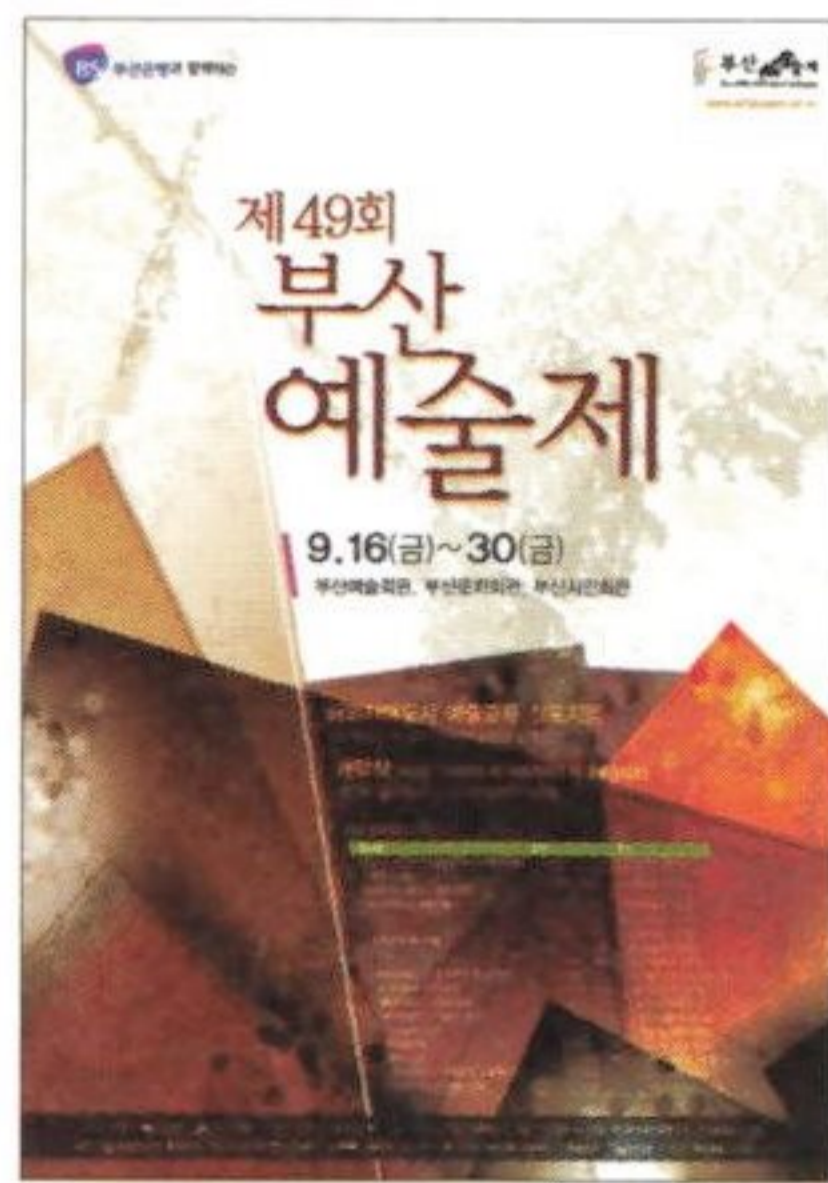
공포를 느끼는 기묘한 현상을 과학으로 조명한 이색체
험전 '공포 과학체험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
· 관람료 균일 12,000원(단체 20인 이상 8,000원)
· 문의 (주)T&C코리아
(1588-2078, www.ghosthouse.kr)

시울림 시낭송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9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홍정숙, 원무현, 신정민, 이현주, 한해미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예강(010-5516-1867)

제 49회 부산예술제
9월 16일(금)~30일(금)
»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부산 예술인들이 펼치는 종합예술제 2011 부산예술제.



· 해외자매도시 예술교류
심포지움
16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개막식 및 가곡과 아리
아의 밤
16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6대광역시, 제주도 건축교류전
16일~22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마루연극페스티벌
16일~2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해외자매도시 사진교류전 및 회원전
19일~23일 부산시청 전시실
· 부산미술의 젊은 시선전
20일~25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24일~30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부산무용예술제 '향수'
24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부산실버가요제
25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 부산영상제
25일 오후 12:00 시민회관 소극장
· 해외자매도시 전통음악 교류한마당
30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 꽃의 도시
25일~29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 문의 부산예총(631-1377, www.artpusan.or.kr)

GALLERY

백남준_Beyond the Time
: 끝나지 않은 신화
8월 12일(금)~9월 14일(수) » 롯데갤러리 광복점

1980년대 후반부터 2006년 작고 전까지 시기별로 백
남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각각의 시각 이미지를 전달하는 6개의 모니터로 구성

된 2m가 넘는 높이의 1995년작 '피버옵틱'을 비롯해
드로잉 작품까지 총 30여점이 전시된다.
·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d610~2)

My collections 나의 소장품전-미술의 향유
9월 1일(목)~10월 5일(수) » 아트카페 움

· 문의 아트카페 움(557-3369)

에바 알머슨展
9월 2일(금)~9월 25일(일)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페인 작가 에바 알머슨 초대전.
·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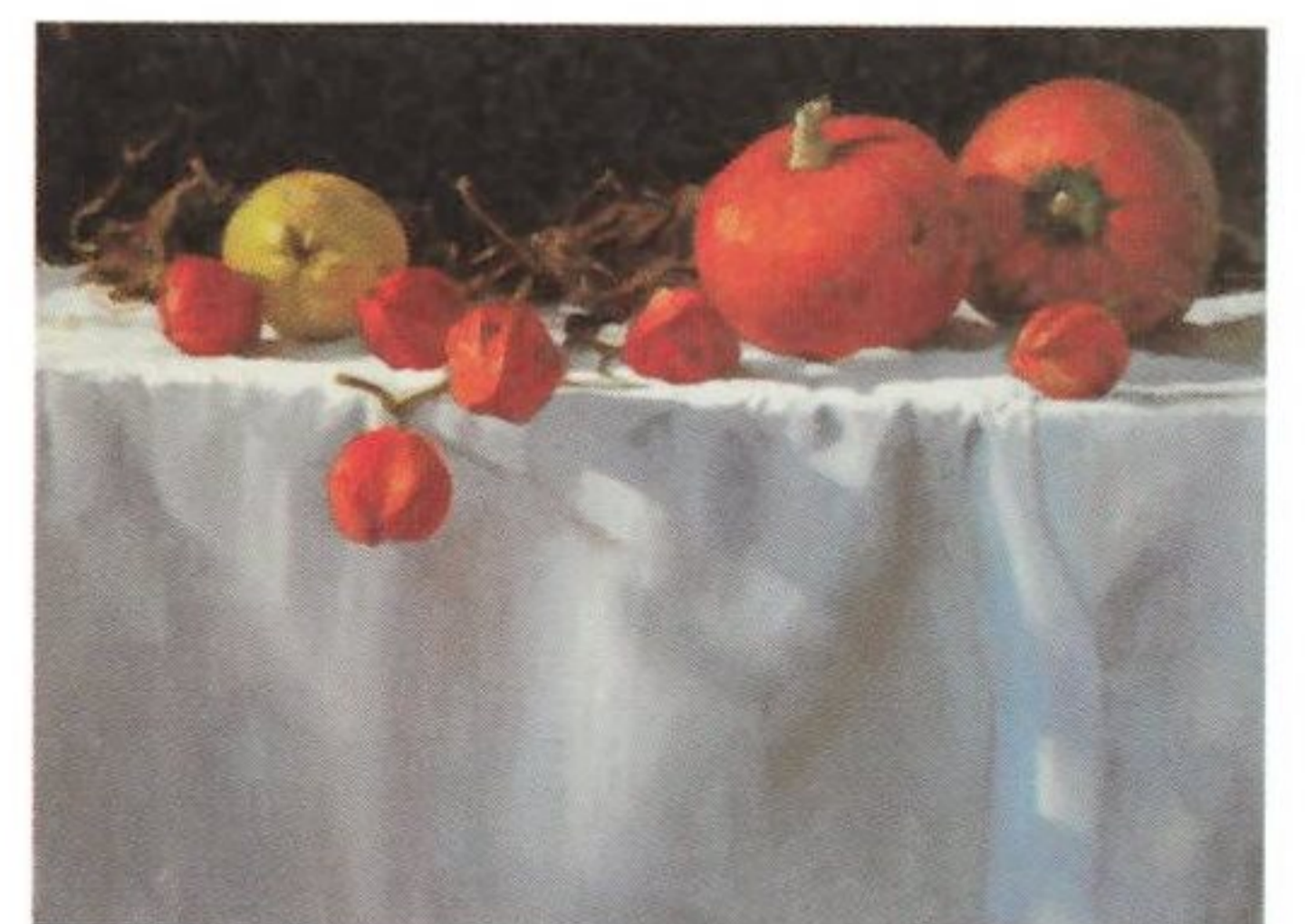
박은광 사진전
9월 2일(금)~10월 18일(화) »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 문의 토요타 아트스페이스(080-855-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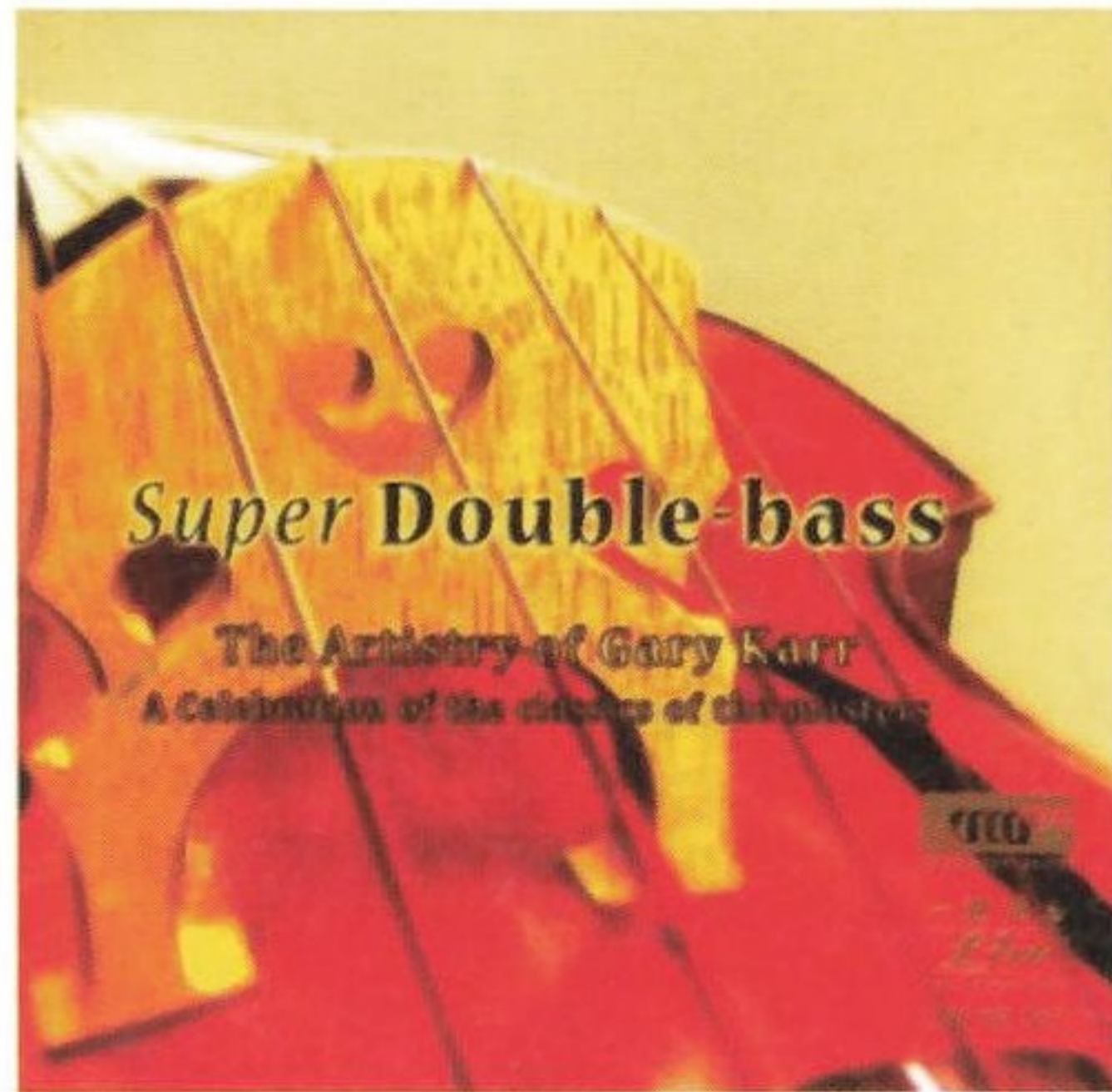
이광호의 'Touch' 전
9월 2일(금)~10월 2일(일) » 조현화랑 부산

· 문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정선희 개인전
9월 15일(목)~9월 21일(수) »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 문의 정선희(010-6230-3457)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저음

Super Double-bass 게리 카의 예술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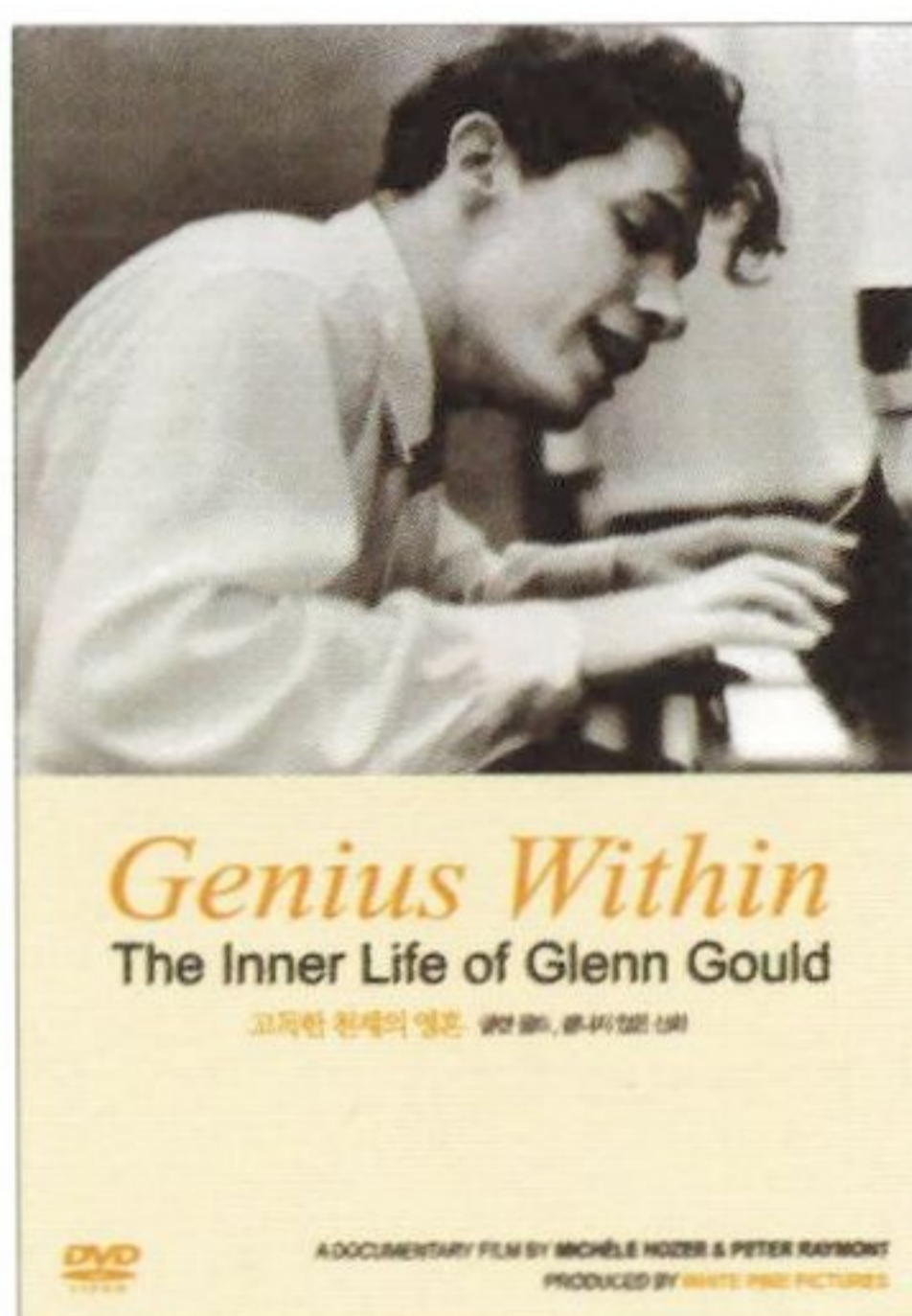
악기를 취미로 배울 때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등 비교적 고역대의 악기를 선호하는 데 이는 다른 악기와 비교하여 비교적 배우기 편한 점도 있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주역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구기종목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득점을 담당하는 스트라이커나 야구는 투수노름이라는 말처럼 역할이 큰 투수와 같은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위치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여 이전과는 달리 역할의 중요도를 화려함으로 평가하지는 않게 되었다.

악기에서도 더블베이스는 앞에 나서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뒷자리에서 저역대를 풍성하게 채워준다. 더블베이스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몇몇 작곡가들은 더블베이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슈베르트의 피아노5중주곡인 '송어'에서도 더블베이스는 유유히 흐르는 잔잔한 강물을 특유의 음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일명 '운명교향곡' 2악장에서도 더블베이스의 활약은 두드러져 베를리오즈는 코끼리가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더블베이스는 다른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그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였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중들에게 독주악기로서의 더블베이스의 매력을 전해준 것은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이다. 이후 '게리 카'라는 걸출한 스타 연주자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날려버리고 더블베이스의 다양한 모습을 발휘하게 되었다. 킹 레코드를 통해 여러 음반을 발매한 게리 카는 지금과 같은 더블베이스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며, 그가 연주하는 더블베이스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바흐의 무반주첼로조곡과 드보르작의 첼로협주

곡을 더블베이스로 연주하는가 하면, 오페라 아리아와 흑인영가, 영화음악과 일본가요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레퍼토리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 악기의 역사마저 바꾼 위대한 음악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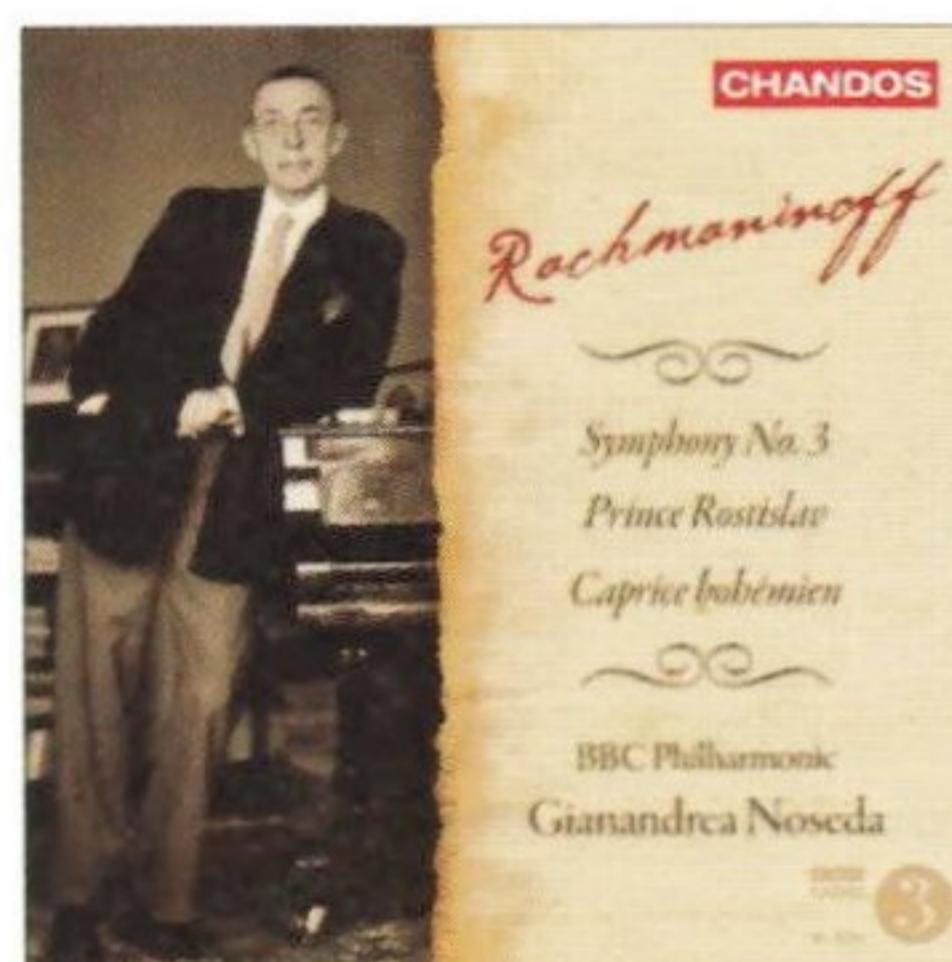
그런 게리 카의 음악세계가 집대성된 듯한 음반이 바로 'Super Double-bass'이다. '게리 카의 예술'이라는 부제처럼 이 음반에는 바흐와 슈베르트, 푸치니, 알비노니의 클래식 작품과 흑인영가와 포스터의 유명 가곡을 수록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로 마치 더블베이스를 위한 곡인 것처럼 들려준다. 특히 하모닉스 주법의 여린 고음으로 시작한 'Amazing Grace'는 웅장한 오르간 독주와 더블베이스의 초저음으로 연주하는데, 대형스피커로 감상하였을 때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과 찻잔이 달그락 거릴 정도의 떨림은 단순한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부족한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 음반은 고음질 CD인 XRCD로 제작되었는데 CD 한 장의 가격이 무려 4만원에 달하였지만 음반을 들어보고는 주저없이 구입하였다.

게리 카의 음악을 말할 때 다소 식상하지만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저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쿠세비츠키가 사용했던 1611년 아마티 더블베이스는 말 그대로 굵은 저음 속에 강한 음파를 타고 온몸을 흔드는 감동을 선사해 준다. 더블베이스스트로 출발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어서 분명 갈등과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최고의 더블베이스스트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성민제와 같은 젊은 더블베이스스트처럼 악기의 편중이 개선되고 다양한 악기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고독한 천재의 영혼 글렌 굴드, 끝나지 않은 신화

20세기 불멸의 피아니스트 중의 한 사람인 글렌 굴드의 감동적인 다큐 영상물이다. 캐나다의 한 가정에서 귀한 독자로 태어나, 평생 고독하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치다 50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천재 음악가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과 사진, 집에서 연주한 음원과 일기들, 연인과 친구들에게 남긴 추억들이 낱알이 열거된다.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가까워지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와 그 놀라운 신화 뒤에 숨은 천재 예술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잘 조명했다. 지금까지 굴드의 영상물은 모두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이번 DVD 만큼 매혹적이고, 감동적이고 불멸의 느낌을 받았던 것은 없었다. 뛰어난 연출로 잔잔한 감동이 면면히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왕의 장례식 같았던 굴드의 1982년 가을 토론토 교회의 장례식 장면이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함께 긴 감동을 정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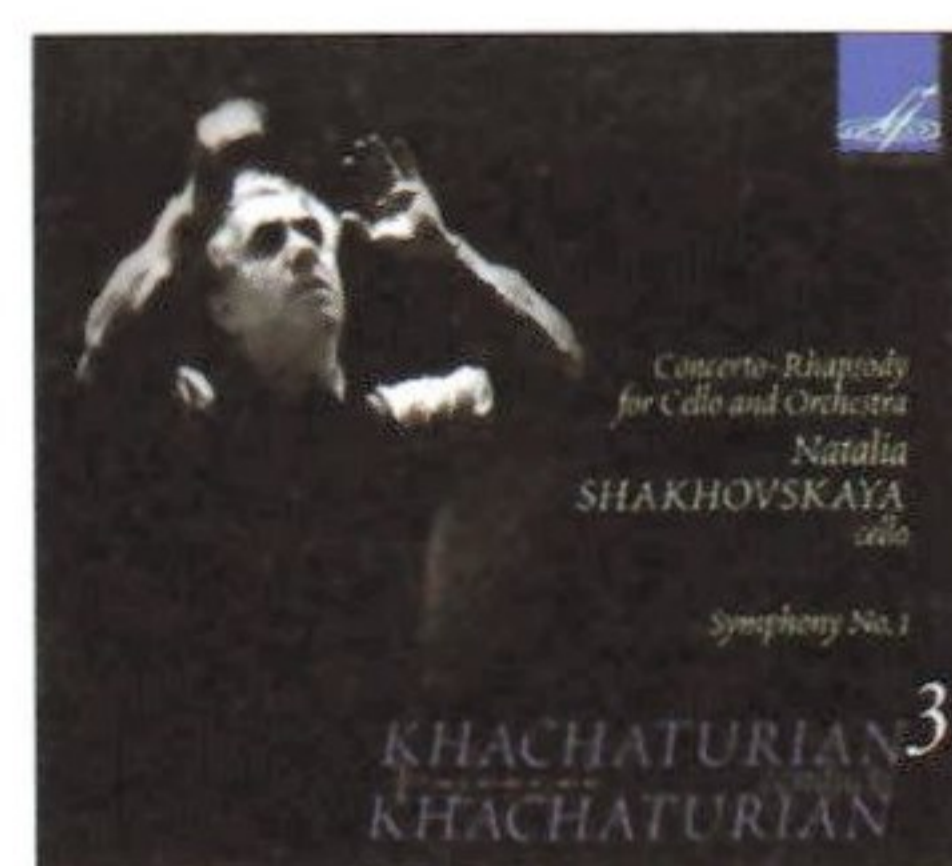
노세다 '라흐마니노프' 시리즈 6집

▶연주/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수록곡 : 교향곡 3번 가단조 작품44, 로스티슬라브 공, 보헤미안 광시곡 작품12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진행하고 있는 라흐마니노프 시리즈의 6번째 음반이다. 교향곡 1번을 수록한 전작(CHAN10475)은 BBC 뮤직 매거진으로부터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집중력과 불꽃을 보여주었다"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3번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댄스 리듬처럼 러시아적인 요소가 가장 잘 표출된 작품이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교향곡을 그가 아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했는데, 음악적으로 난해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고 그래서 초연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콘서트 정규 프로그램으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거의 연주되거나 녹음될 기회가 없는 교향시 '로스티슬라브 공'은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들 중 하나로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보헤미안 광시곡은 집시 주제에 기초해 작곡한 환상곡이다. 두 작품 모두 구하기 힘든 음반이므로 이 음반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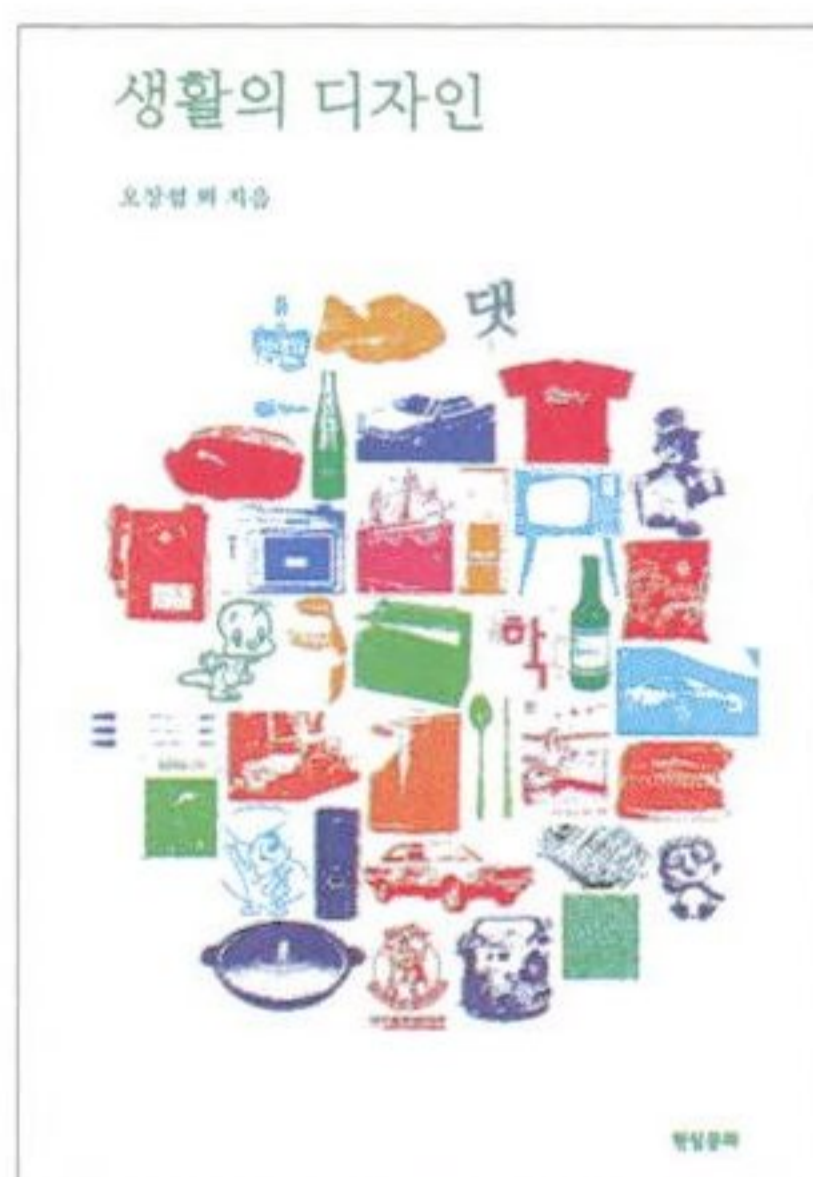


하차투리안 3집

▶연주/스테이트 심포니오케스트라, 첼리스트 나탈리아 사호브스카야

수록곡 : 교향곡 1번, 콘체르토 랩소디

하차투리안의 자작 자연 시리즈 제 3탄. 하차투리안의 작품은 러시아 근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향곡 제 1번은 조국 아르메니아의 소련 가입 15주년을 기념해서 작곡된 모스크바 음악원의 졸업 작품이다. 아름다운 조국과 국민들을 그려내며, 아르메니아의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랩소디'는 자유스러운 양식으로 분출하는 영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제 2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나탈리아 사호브스카야의 가슴을 파고드는 강렬한 음색의 첼로 연주가 인상적이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생활의 디자인
일상 생활용품이 탄생하게 된
재미있는 사연

오창섭 외 지음 / 현실문화
/ 246p / 1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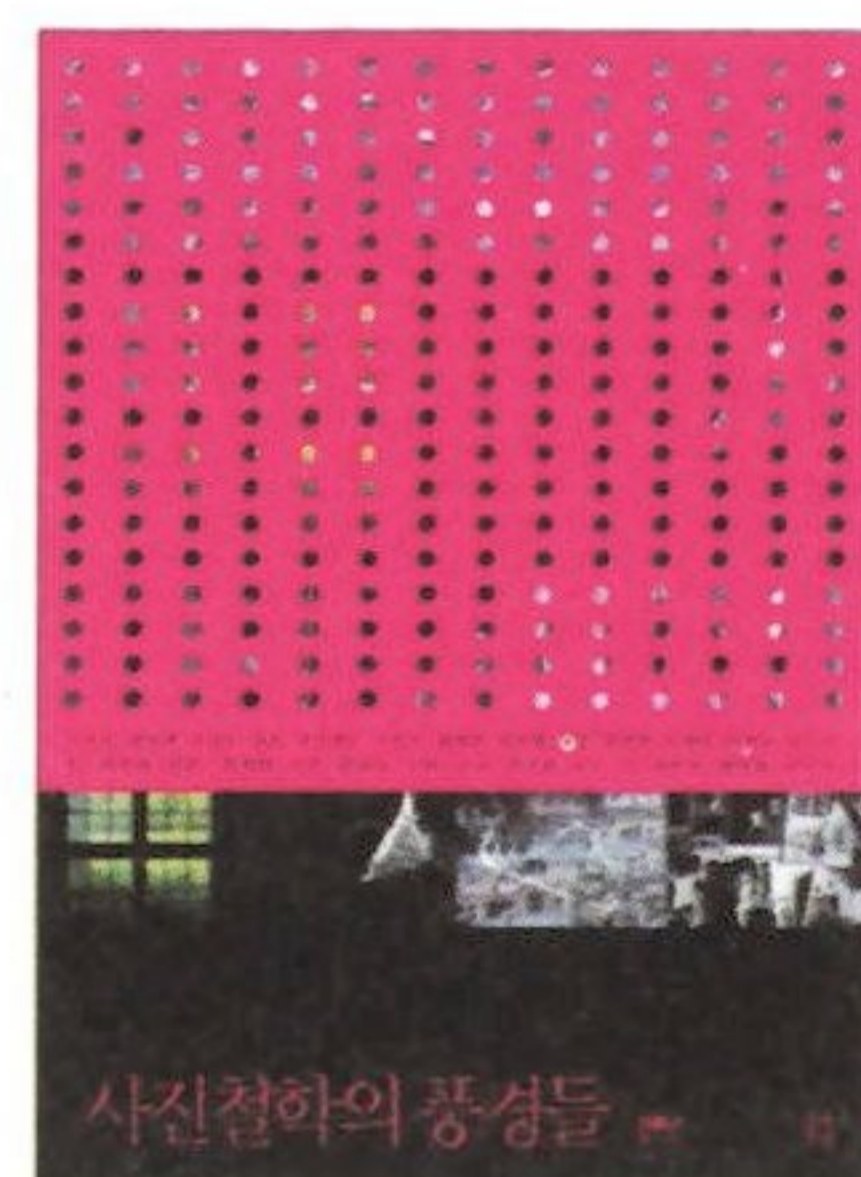
첫선을 보인지 48년 만에 지난 6월 말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모나미 볼펜을 비롯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해 주는 재미있는 책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제품이나 광고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름난 디자이너가 만든 것도 있지만,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살아온 물건 모두가 디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떤 물건과 더불어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다. 중국집 배달에 꼭 필요한 철가방을 가장 흔하게 보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디자인의 대표작이다. 목욕탕에서 쓰이는 이태리 타월은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다. 까칠까칠한 원단을 수입해 고민하던 직물공장 대표 김필곤 씨는 대중목욕탕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로 이태리 타월을 만들었다. 이 책에는 재미있는 디자인 이야기들이 많다. 소주병, 빨간 돼지저금통, 쌀통 등 193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디자인들이다. 총 36개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책갈피가 넘어갈 때마다 한 시절의 희노애락이 함께 넘어간다.



고야, 영혼의 거울
정열적인 에스파냐인
고야의 삶과 예술

프란시스코 데 고야 지음, 최지영 옮김
/ 다빈치 / 304p / 30,000원

정열적인 에스파냐인, 고야의 삶과 예술. 18-19세기 초, 전통과 혁신, 발전과 퇴보, 전쟁의 참상 등으로 혼란스럽던 에스파냐에서 화가 고야는 인간의 본성, 특히 광기와 야수성에 집중하고 희비극과 부조리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관찰하여 화폭에 옮겼다. 그가 궁정 화가로 활동하면서 그려낸 많은 초상화와 인물화, 종교화 등에서는 고루한 전통적 표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인물에 대한 탁월한 심리 묘사가 훌륭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능숙한 에칭 기법으로 제작한 판화 작품집에서는 인간 사회라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허위의식과 폭력성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했다. 인생의 절정기에 찾아온 병으로 청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내면의 고통이 더해진 고야의 작품들은 원숙미와 심오함이 한층 강화되었다. 현대 미술에 한 걸음 다가간 화가로 평가받는 고야는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한 현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유화와 드로잉, 판화 대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가장 친한 친구와 이십 년 넘게 주고받은 편지글을 함께 수록해 고야의 면모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철학의 풍경들
사진속에 담겨있는
철학적 사유를 탐구

진동선 글·사진 / 문예중앙
/ 336p / 20,000원

사진작가이자 사진평론가·전시기획자로 활약해온 저자가 근현대 철학자들의 사유를 빌어 사진을 탐색한 에세이.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은판 또는 은도금 동판에 포착한 사진)의 근대 사진이 탄생한 1839년을 기점으로 할 때 사진의 역사는 172년이 됐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진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핸드폰에도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전 인류가 사진 찍기에 빠져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음식 점에서 수저를 드는 사람보다 사진부터 찍어대는 사람이 더 많을 지경이다. 미국 사진작가 빌렘 플루서가 정의했듯 '카메라야말로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시킨 민주적 기계영상'인 것이다. 사진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보는 것'으로 끝난다.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피사체)을 인식하고, 대상으로 사유하고, 감정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감상하며, 훗날 마음으로 돌이킨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인식의 풍경, 사유의 풍경, 표현의 풍경, 감상의 풍경, 마음의 풍경으로 나누어 그 철학적 테제들을 살피고 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진, 그 안의 철학적 사유를 탐구해 보는 책이다.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은행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체결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등 공동 제작-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은행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8월 18일 11시 30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고윤환 부산시립예술단장, 이장호 부산은행장이 참석하여 업무교류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 공연 공동제작 추진 ▲시립예술단 공연 제작 및 홍보 지원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발굴, 개발 등이며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10월 13일과 14일 개최되는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과 12월 10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1 송년음악회' 를 위해 제작비 6,900만원을 지원한다.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은행이 함께 뜻을 모은 작품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킨 동래부사 송상현과 동래성 백성들의 아름다운 투쟁을 예술집단 페테 대표 백훈기가 대본으로 옮기고, 작곡가 강봉천이 웅장한 칸타타로 작곡했다. 작곡가 강봉천은 국악관현악 '탈의 춤', '절영의 전설', '우삭도', 무용극 '꽃나무풍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지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 연출은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립극단 상임연출가 이병훈, 안무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맡는다. 이번 공연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 극단,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은행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8월 18일 11시 30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월 찾아가는 예술단 일정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이 9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9월은 9월 1일 중구청에서 열리는 '중구구민의 날 기념식'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정신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 공연', 내사랑부산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시립박물관 로비콘서트 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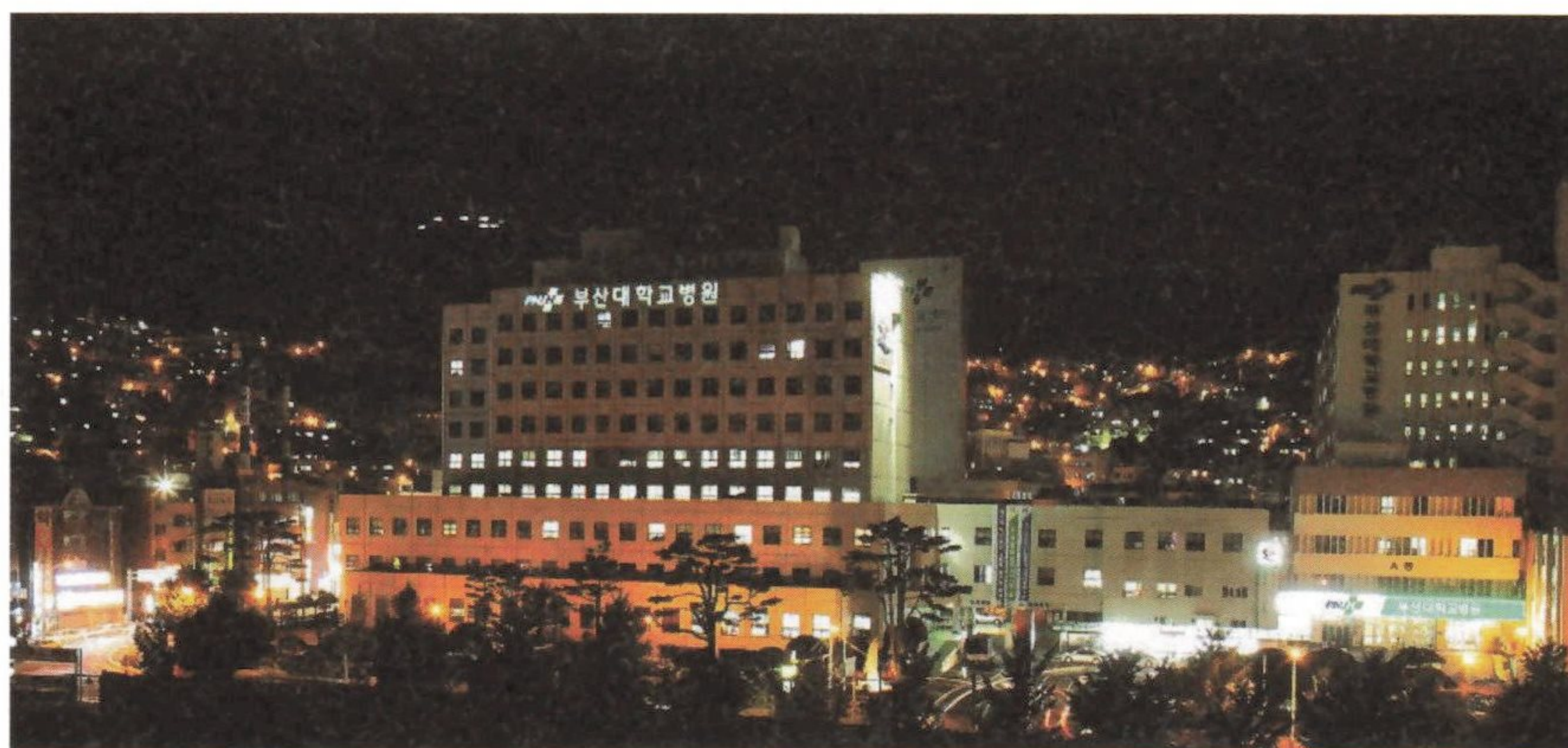
일정		
9월 1일(목)	10:00 중구청	내사랑 부산공연 중구 구민의 날 기념식(출연/교향악단)
9월 7일(수)	14:00 부산정신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 공연(출연/합창단)
9월 16일(금)	16:00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출연/무용단)
9월 22일(목)	19:20 시립박물관	내사랑부산 부산공연 시립박물관 로비콘서트(출연/교향악단)
9월 28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단체가입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박남철)에서 지난 8월 병원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앞으로 병원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술단 공연 정보를 제공하며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지역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메세나사업 뿐만 아니라 혈액질환 환우가족을 위한 '희망나누기'와 환우와 가족을 위한 '웃음치료', 6·25 당시 의료진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해왔다. 지난해는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해 병원가족들의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부산대학교병원 전경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여행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던 지난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5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8월의 테마여행지는 시원한 바다 풍광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찌푸린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의 표정은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밝기만 하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이 이번 테마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버스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와 비상임단원 차승현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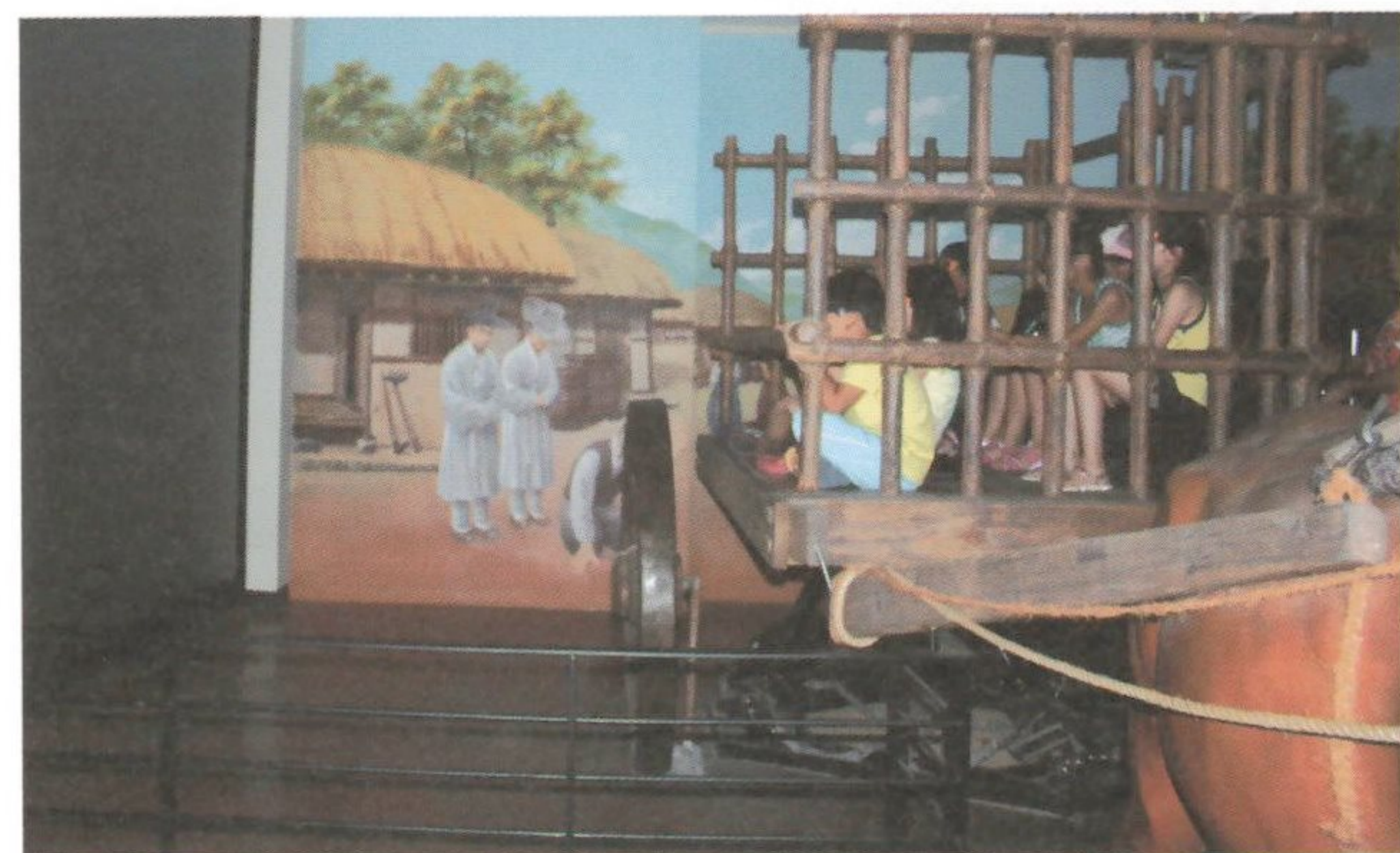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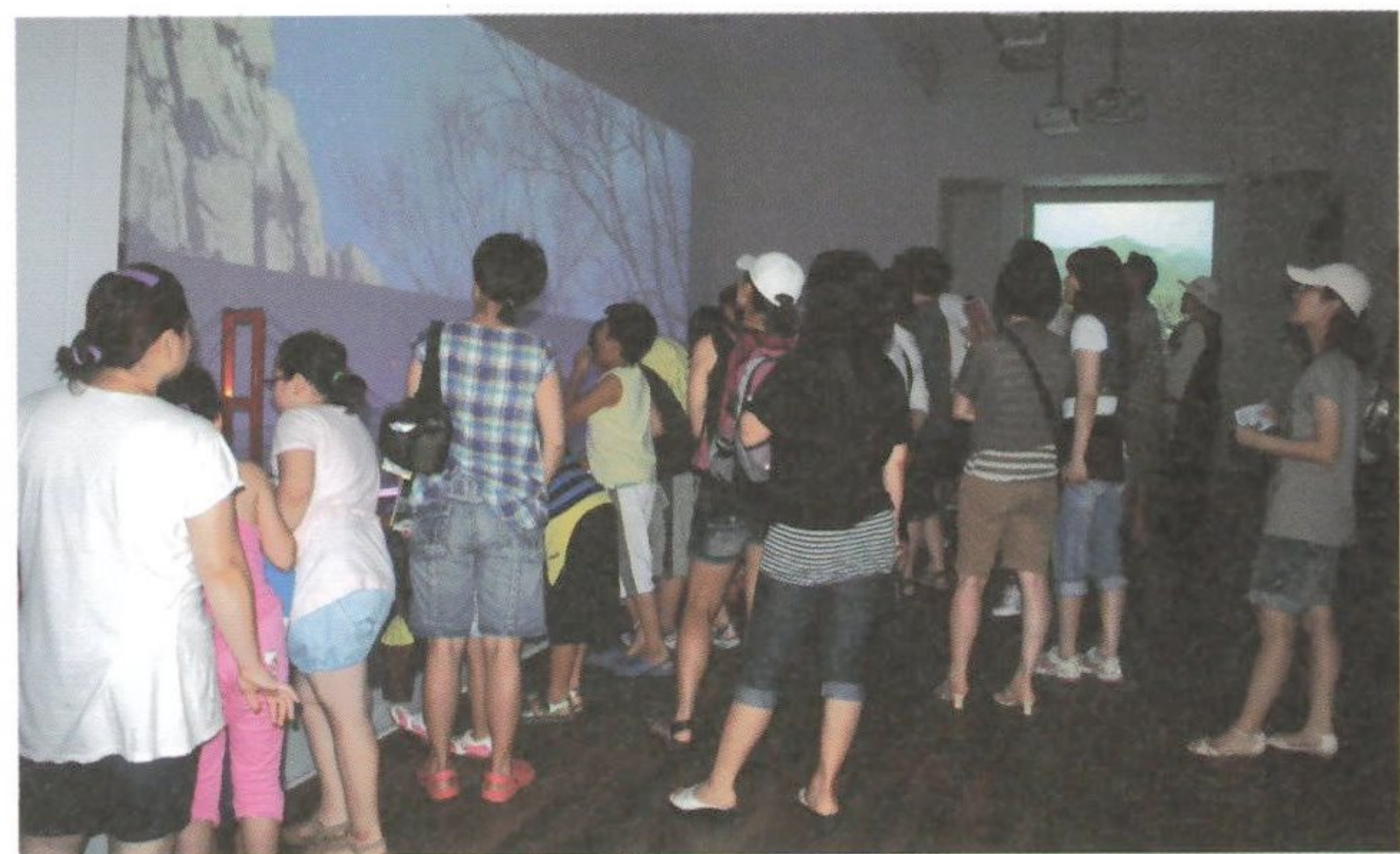
세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남해 두모마을. 아름다운 금산의 남서쪽 자락에 자리한 양아리 두모마을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4계촌 씨족마을로, 본디 이름은 '드므개'이다. '드므'란 궁궐의 처마 아래 두었던 항아리를 칭하는 말로, '드므개'는 큰 항아리에 담긴 바닷가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겨운 지명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마을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두모마을은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인 개매기 체험으로 유명하다. '개매기'는 바닷가나 갯고랑에 그물을 쳐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잡는 그물을 일컫는 북한말로, 맨손으로 직접 고기를 잡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색다른 체험에 대한 기대에 회원들의 시선이 바다를 떠날 줄 모른다.

바닷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이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의 모노드라마 '늙은 노부부 이야기'가 펼쳐졌다.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황혼녘에 선 노부부의 애뜻하면서도 간절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2인극 '늙은 노부부 이야기'를 정행심 씨가 직접 모노드라마로 각색, 애절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회원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비상임단원 차승현 씨가 진행하는 연극게임 '도둑찾기'는 어린이들의 호응이 컸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매기 체험이 시작됐다. 양동이를 손에 쥔 회원들이 신나는 함성과 함께 물이 빠진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기저기 터지는 즐거운 비명 속에서 회원들은 재빠른 동작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고기 잡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르던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체험을 마쳤다. 손수 잡은 고기로 장만한 회와 매운탕을 함께 먹는 점심식사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오후 일정은 세계 유일의 마늘 종합전시관인 '보물섬 마늘나라'에서 시작됐다. 마늘모양을 본 판 거대한 조형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물섬 마늘나라'에서는 마늘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남해군 마늘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전시관을 나와 이동한 곳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문학관인 남해유배문학관. 권력도 부귀도 모두 빼앗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문학과 예술의 꽃을 피웠던 선조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남해유배문학관은 유배문학실과 유배체험실, 남해유배문학실, 향토역사실 등 다양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해유배문학실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배지 중 한 곳이었던 남해로 유배온 김구, 남구만, 김만중, 이이명, 류의양, 김용 등 문인 6인의 생애와 그들의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구운몽' '사씨남정기'의 작가 서포 김만중 특별실에서는 대표작 '구운몽'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바로 유배체험실. 죄인을 실어 나르는 소달구지에 갇힌 채 유형의 길을 떠나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험한 노정을 3D입체영상물로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다. 흐리기만 했던 부산과 달리 활짝 갠 날씨로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줬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절망 속에서도 문학의 꽃을 피웠던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11년 10월에는 **진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9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9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엽서당첨자
김석권(서구 동대신동 3가)	강태호(서구 아미동)
김혜진(북구 만덕 2동)	김종미(수영구 수영로길)
심지은(중구 중앙동4가)	박준태(연제구 연산9동)
안성환(연제구 거제 2동)	이선희(양산시 물금읍)
이미애(남구 용당동)	이태욱(연제구 거제 4동)
이태순(서구 부민동)	유흥곤(동구 범일2동)
이해경(사하구 하단동)	정성원(동래구 온천2동)
장종윤(금정구 구서동)	정혜숙(수영구 수영동)
한연순(연제구 연산9동)	조경남(부산진구 양정동)
허인지(양산시 물금읍)	조영자(해운대구 좌동)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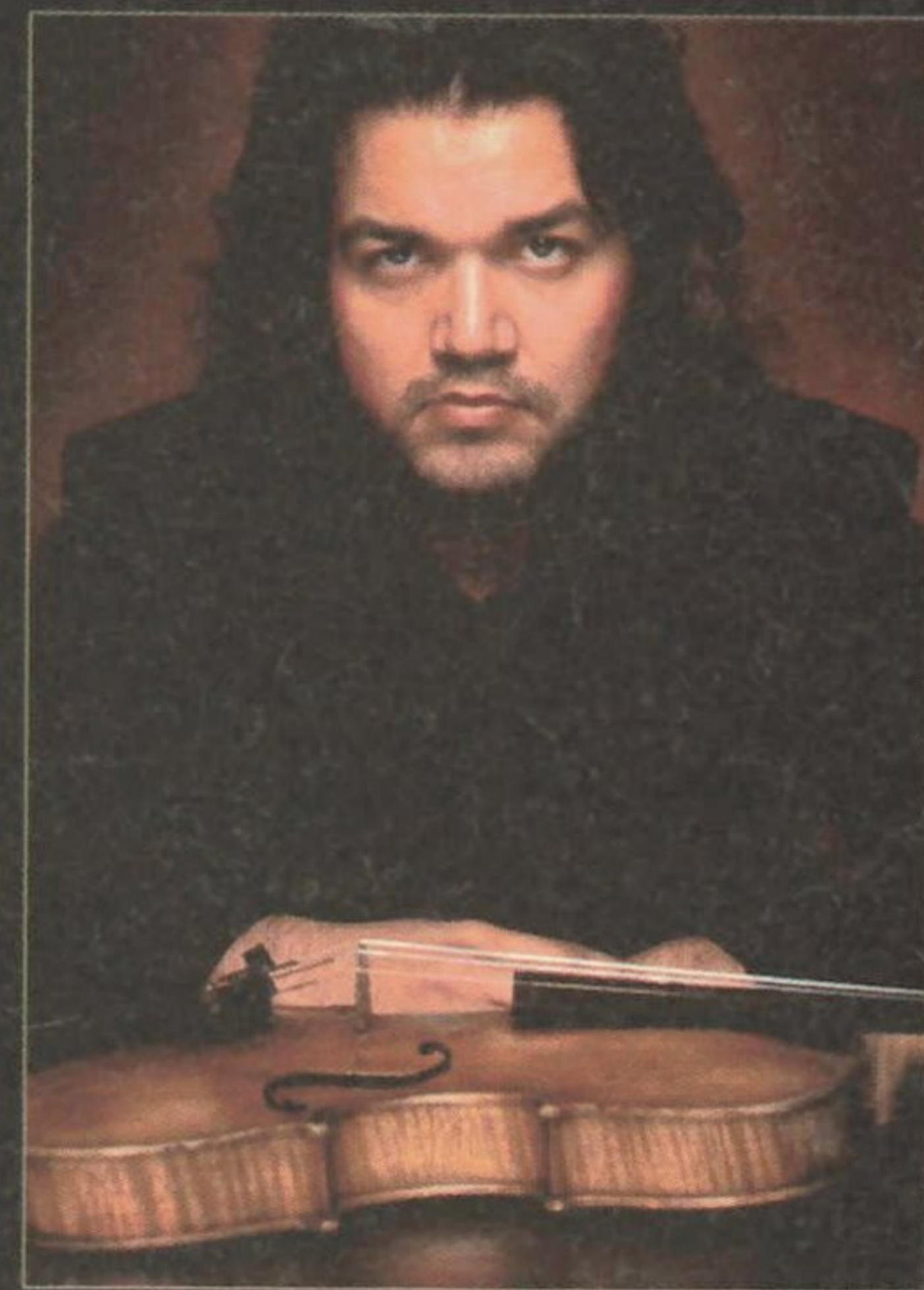
거장들의 만남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

티보바르가 우승에 빛나는 젊은 거장 '요제프 렌드바이'



지휘 | 유리 시모노프



바이올린 | 조셉 렌드바이

2011.11.17 | Thu |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h 1588-7890 |  부산은행 전지점 051) 749-3255

입장권_ VVIP 200,000원 | VIP 150,000원 |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그녀의 첫사랑 첼로와 함께 2011년을 마무리한다.

HAN-NA CHANG CELLO RECITAL WITH FINGHIN COLLINS

첼로_장한나 피아노_피닌 콜린스

PROGRAM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Op. 34, No. 14	Rachmaninov Vocalise Op. 34, No. 14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타타 g 단조 Op. 19	Rachmaninov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데 팔라 7개의 스페인 가곡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nolas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Piazzolla "Le Grand Tango"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12** (Mon) **7:30** 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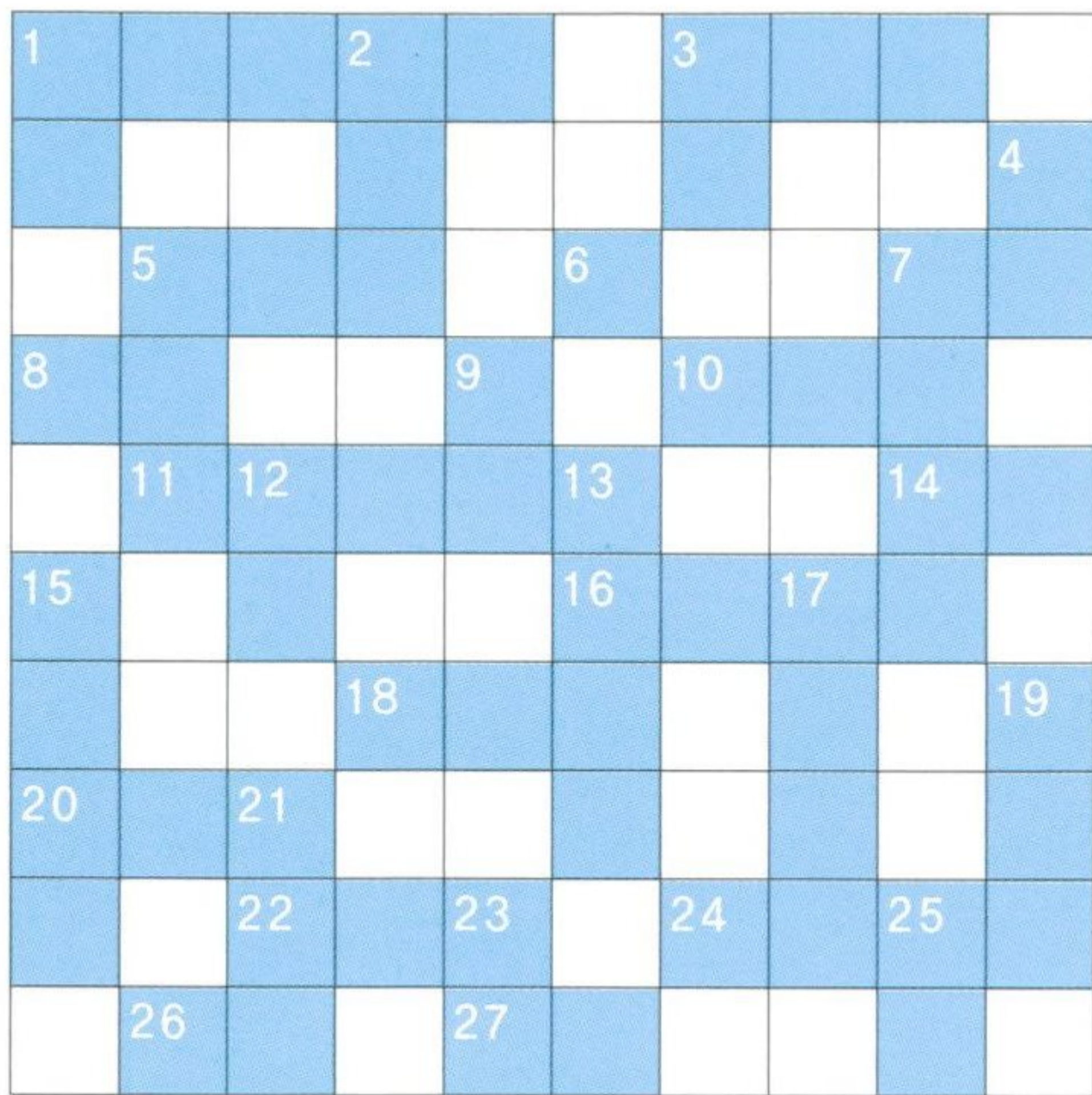
조기예매 : 20% 할인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h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051) 749-3255

입장권_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9월 29일 개관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화제 개, 폐막 행사가 열릴 4천석 규모의 야외 상영관과 다목적 공연장(840석), 중극장(410석), 2개의 소극장(210석)을 갖추고 있다.
- 1988년 결성된 후 '시청앞 지하철 역에서' '해화동'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널 사랑하겠어' 등 고단한 삶 속에서의 작고 소박한 행복을 노래했던 포크음악그룹. 9월 16일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II(Yesterday)' 세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 1993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출간하면서 유적답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던 미술사학자. 최근 10년만에 경복궁과 광화문, 선암사, 도동서원 등을 둘러보는 6번째 문화유산 답사기를 출간했다.
- 30분이라는 제한시간 내에 시한폭탄을 배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그린 조범구 감독의 스피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색채와 격정적인 필치로 독특한 화풍을 확립했던 네덜란드 화가. 대표작으로 '감자를 먹는 사람' '해바라기' '자화상' 등이 있다.
-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프랑스 궁정에서 발달한 무용극. 대표작으로 백조의 호수, 지젤, 돈키호테 등이 있다.
- 비틀즈의 존 레논이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상의 건설을 기원했던 반전노래.
- 비극을 봄으로써 마음에 쌓여 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비극이 관객에 미치는 중요 작용의 하나로 들었다.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계략으로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박탈된 1597년에서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고 숨진 1598년까지 약 2년간의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의 1인칭 관점으로 서술한 소설가 김훈의 장편소설.
- 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과 홍해 연안에서 대서양 해안까지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사막.
- 관악기와 타악기 등으로 편성되어 왕 또는 귀인의 행차 및 군대 행진에서 연주되던 군례악. 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
- 휴전을 앞둔 1953년 여름, 동부전선 최전방의 애록고지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사투와 그 속에서의 인간애를 그린 장훈 감독의 전쟁 블록버스터 영화.
- 대표적인 서양 현악기. 가운데가 잘록한 타원형의 몸통에 네 줄을 매어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 용(龍)의 옛말.
- 신라 십성의 한 사람으로, 해동종(海東宗)을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신라의 고승.

세로열쇠

- 국내 최대 보현산전문대가 있어 '별의 고장'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자리한 도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월 테마여행지이다.
-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해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조선 후기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 단신이라 '녹두장군'이라 불리기도 했다.
- 1925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커스단이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커스단.
-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수많은 종교곡과 기악곡, 관현악곡, 모음곡 등을 남겼으며, 대위법 음악을 완성해 바로크 음악의 정상에 올랐다.
- 그리스어로 '발견했다'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에 함유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외친 말로,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 등에 인용되고 있다.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 광대의 판소리나 잡가, 민요 등에 대한 총칭. 도라지○○, 몽금포○○, 품바○○ 등.
- 파리 오페라극장, 빈 오페라극장과 함께 유럽의 3대 오페라극장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국립극장.
-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고품격 문화강좌.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된다.
- 지난 7월 22일 7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참사가 발생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부에 있는 입헌 군주국. 수도는 오슬로.
- 영국의 희극배우 겸 영화감독. 영화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위대한 독재자' 등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며 위대한 걸작을 남겼으며 콧수염과 모닝코트 등의 이미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 인도의 독립운동과 교육에도 힘을 쏟아 간디와 더불어 인도의 국부라 불리는 인도의 시인. 한국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 '동방의 등불' '패자(敗者)의 노래'를 남겼으며, 1913년에는 시집 '기탄잘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 베토벤의 교향곡 제 6번. 자연과의 접촉에 의해 받은 분위기를 5악장으로 표현한 곡으로, 베토벤 자신이 직접 제목을 부쳤다.
-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해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로,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한다.

지난호 정답

금	난	새	어	부	사	시	사
오	바	에	나	툰			
신	토	불	이	노	가	리	드
화	칼	라	스	오	페	라	
인			아	툰	드		
헤	어	스	프	레	이	마	라
공	랑	레	음	플			
권	주	가	톨	스	토	이	갱
투	야			슈	송	어	
황	금	시	대	즈	른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 박선재(사상구 주례동)
- 이호광(서구 서대신동3가)
- 정영희(부산진구 양정1동)
- 진영숙(영도구 영선동4가)
- 한미정(연제구 연산6동)

나랏소

- 김정미(남구 대연동)
- 이주희(남구 문현동)
- 정윤미(해운대구 우1동)
- 정희숙(수영구 남천동)
- 홍은주(해운대구 좌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강태호(서구 아미동)
- 김지현(연제구 연산1동)
- 이경남(연제구 연산5동)
- 장미숙(양산시 북정동)
- 하윤희(사하구 당리동)

큰집

- 김대민(중구 중앙동)
- 김호진(동래구 명륜2동)
- 류현숙(연제구 거제4동)
- 조민규(연제구 거제3동)
- 황은미(서구 초장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TEL. 1588-2757

세계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세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의 부산을 대표하는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2011년 9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전시실일정

- 대** 2011 제20회 부산한국화전 8월 29일(월)~9월 4일(일)
* 오프행사: 8월 29일(월) 18:00
부산미술협회(632-2400)
- 중** 부산디카사랑회 제 6회 사진전시회 9월 3일(토)~9월 4일(일)
부산디카사랑회(010-4415-0035)
* 오프행사: 9월 3일(토) 10:00
- M** 제 55회 혁 정기전 9월 6일(화)~9월 9일(금)
손성일(010-3832-8127)
- 대** 2011 부산예술제 6대광역시, 제주도 건축교류전, 제 12회 건축도시사진전 9월 16일(금)~9월 22일(목)
박해영(612-1372)
- 중** 2011 부산예술제 '부산미술의 젊은 사진전' 9월 20일(화)~9월 24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
- 대** 국제서화예술전 9월 25일(일)~9월 26일(월)
국제서화예술전(010-4448-9553)
- 대** 제 11회 한국문인화대전인상작 전시회 9월 28일(수)~9월 29일(목)
최연성(011-864-369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대극장 중극장 소극장</p>				<p>1</p> <p>대 제 12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국(461-4436~8)</p> <p>중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실내악의 밤' 19:3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p>	<p>2</p> <p>대 제 12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국(461-4436~8)</p> <p>중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철새악사와의 가족콘서트' 19:3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p> <p>소 해바라기와 함께 하는 가을 감성콘서트 19:30 현대백화점 부산점(667-1042, 010-9393-4371)</p>	<p>3</p> <p>대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회 '부산시립 교향악단'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제 12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국(461-4436~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7:3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4</p> <p>중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010-4842-6688)</p>	<p>5</p> <p>중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문동환(010-4628-3098)</p>	<p>6</p> <p>대 락그룹 '퀸' 결성 40주년 기념 부산오페라합창단 특별기획공연 'Love of Queen' 19:30 3만원 · 1만5천원/서상민(802-6209, 010-2391-2258)</p> <p>중 소프라노 김정원 독창회 19:30 초대/김정원(010-3915-3902)</p>	<p>7</p> <p>대 부산가야금연주단 제 7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가야의 혼불' 19:30 3만원 · 1만원/황정원(010-3050-5736)</p> <p>중 제 12회 부일성악콩쿠르 본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국(461-4436~8)</p>	<p>8</p> <p>대 제 4회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KNM(1577-7600)</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웰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 III - 그림 속의 클래식'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9</p>	<p>10</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7:3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1</p>	<p>12</p>	<p>13</p>	<p>14</p> <p>소 박지희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지희(010-7710-4025)</p>	<p>15</p> <p>중 제 9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19:30 초대/(사)이지무스오페라단(632-4649)</p> <p>소 진준영, 강정아 2인 음악회 19:30 무료/강정아(010-9338-8485)</p>	<p>16</p> <p>대 2011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초대/부산예술(631-1377)</p> <p>중 제 2회 가을을 여는 음악회 19:30 5만원 · 3만원 · 1만5천원/공연기획 가이(010-4998-5367)</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동물원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17</p> <p>대 김명자의 춤 대공연 18:00 균일 1만원/김명자(019-567-4480)</p> <p>중 박성호무용단 '신화가 된 사랑-공민' 16:00 3만원 · 1만5천원 · 1만원/박성호(010-5530-4102)</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무용협회 17:3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8</p> <p>대 제 4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협주곡의 밤' 19:30 2만원 · 1만원(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박성호무용단 '신화가 된 사랑-공민' 18:00 3만원 · 1만5천원 · 1만원/박성호(010-5530-4102)</p> <p>소 2인 음악회 18:00 무료/이혜경(010-9784-0501)</p>	<p>19</p> <p>대 제 4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19:30 초대/하병욱(320-1914, 010-3857-0685)</p>	<p>20</p> <p>대 2011 제 24회 부산합창제 19:30 초대/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중 제 42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전영수 팀파니소리 19:30 초대/전영수(010-7309-8069)</p>	<p>21</p> <p>대 2011 제 24회 부산합창제 19:30 초대/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중 바리톤 윤공원 귀국 독창회 19:30 초대/윤공원(010-5239-2749)</p>	<p>22</p> <p>대 20세기 피아노 음악의 가장 건반 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 피아노 독주회 19:30 7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소 이문둥이를 위한 나눔자리 '윤호간 피아노와 이별' 19:30 초대/이름다운 재단(02-3675-1231)</p>	<p>23</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송연경 첼로 독주회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한세오카리나 합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19:00 초대/황미경(010-5036-4787)</p>	<p>24</p> <p>대 2011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향수' 18:00 균일 1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중 창단 25주년 기념 여울림국악연구회 제 17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김수일(010-8845-7975)</p>
<p>25</p> <p>대 제 83회 전국무용예술제 09:00 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 011-284-8880)</p>	<p>26</p> <p>중 토브여성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토브여성합창단(010-4880-4918)</p>	<p>27</p> <p>대 현대캐피탈 Invitational 소프라노 조수미 19:30 초대/크레디아어(02-741-1521)</p> <p>중 아미티에성악연구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춘향전' 19:30 균일 1만원/서정아(010-7503-6564)</p> <p>소 피아노 에세이 콘서트 19:30 초대/박옥희(010-3882-2382)</p>	<p>28</p> <p>중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노은주(010-2565-9780)</p>	<p>29</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9회 정기연주회 '세헤라지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30</p> <p>중 제 6회 부산국제 차어울림 문화제 10:00 (사)부산 차 문화진흥원(809-1551)</p> <p>소 제 6회 부산국제 차어울림 문화제 10:00 (사)부산 차 문화진흥원(809-1551)</p>	<p>1</p> <p>대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19:30 3만원 · 2만원/김정훈(010-7152-9748)</p> <p>중 제 6회 부산국제 차어울림 문화제 10:00 (사)부산 차 문화진흥원(809-1551)</p> <p>소 제 6회 부산국제 차어울림 문화제 10:00 (사)부산 차 문화진흥원(809-1551)</p>

September 2011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Galleries

㉔ Busan Korean Painting Exhibition 8.29(Mon)~9.4(Sun) Busan Art Association(632-2400)

㉓ The 6th Busan Digital Camera Love Picture Exhibition 9.3(Sat)~9.4(Sun) Lim kutak(010-4415-0035)

㉓ The 55th Annual 'HYUK' Exhibition 9.8(Tue)~9.9(Fri) Son Sungil(010-3832-8727)

㉔ 2011 Architecture Exhibition for 6 Metropolitan City & Jeju 2011 12nd Photo Concert for Architecture & Urban 9.16(Fri)~9.22(Thu) Park Haeyoung(051-612-1372)

㉓ The Busan Art Festival 9.20(Tue)~9.25(Sun) Busan Art Society (051-632-2400)

㉔ The International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Exhibition 9.25(Sun)~9.26(Mon) Kim Jongkun(010-4448-9553)

㉓ ㉓ The 11th Korea Painting in the Literary Art 9.28(Wed)~9.29(Thu) Choi yeonsung(011-864-369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㉔ Grand theater
- ㉓ Medium theater
- ㉒ Small theater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4
㉓ The 9th Regular Incorean Youth Orchestra concert 19:00 Invitation Incorean Youth Orchestra(627-8088)

5
㉓ Bass Moon Donghwan Recital 19:30 ₩10,000/Moon Donghwan(010-4628-3098)

6
㉔ Broadway Musicals Gala Concert 'Love of Queen' 19:30 ₩30,000 · ₩15,000 Busan Opera Chorus(802-6209)

㉓ Soprano Kim Jeongwon Recital 19:30 Invitation/Kim Jeongwon(010-3915-3902)

7
㉔ The 7th Annual concert 'Soul light of Gaya' 19:30 ₩30,000 · ₩10,000 Hwang Jungwon(010-3050-5736)

㉓ The Final BUIL Vocal Music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8)

8
㉔ The 4th KOREA Corporation love concert 19:30 ₩100,000 · 70,000 · ₩50,000 · ₩30,000/KNN(1577-7600)

㉓ The 2011 3rd Well-being concert-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1:00 ₩10,000/B.C.C(607-6056)

9
㉔ The Preliminaries BUIL Vocal Music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8)

㉓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Les Virtuoso migrants' 19:30 ₩40,000 · ₩30,000 · ₩20,000 · ₩10,000/B.M.I.F(070-7687-8291)

㉓ The Fall Sensitive with Sunflower Concert 16:00 Kim Daihun(667-1042)

10
㉓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㉓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11

12
* ChuSeok-The Korean Thanksgiving Day(The 2nd Biggest National Holiday)

13

14
㉓ The Pianist Park Jihee concert 19:30 Invitation/Park Jihee(010-7710-4025)

15
㉓ The 9th Bass Son Wook Recital 19:30/ Invitation/Agimus Opera(632-4649)

㉓ The Piano Duet is concert-Kang Junga & Jin Junyoung 19:30 Free/Kang JungA(010-9338-8485)

16
㉔ The Busan Art festival Opening 19:00 Invitation/Art Busan(631-1377)

㉓ Coming the Fall in concert 19:30 ₩50,000 · ₩30,000 · ₩15,000 GAYA(010-4998-5367)

㉓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Zoo' ₩30,000/B.C.C(607-6056)

17
㉔ Kim Myungja dance 19:00 ₩10,000 Kim Myungja dance company(646-4480)

㉓ The Creation Dance Mask Performance-Dream 16:00 ₩30,000 · ₩15,000 · ₩10,000 Park Sungho(010-5530-4102)

㉓ Saturday Regular Stage-Busan Dance Council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8

㉔ The 4th Piano Grand Festival 19:30 ₩20,000 · ₩10,000/Korea Music Association of Korea(634-1295)

㉓ The Creation Dance Mask Performance-Dream 18:00 ₩30,000 · ₩15,000 · ₩10,000 Park Sungho(010-5530-4102)

㉓ The Duet is Concert 18:00 Free/Lee Haeyoung(010-9784-0501)

19

㉔ The 4th Piano Grand Festival 19:30 ₩10,000/Korea Music Association of Korea(634-1295)

㉓ Baritone Ha Byoungwook Recital 19:30 Invitation/Ha Byoungwook(010-3857-0685)

20

㉔ The 2011, 24th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M.C(607-3142~1)

㉓ The 42nd Regular 'DOK WOO HWE' Pinano concert-A home coming Concert featuring Pianists who studied in Germany 19:30 ₩10,000/Arts Bank Corea(442-1941)

㉓ Percussionist Jun Youngsu Recital 19:30 Invitation/Jun Youngsu(010-7309-8069)

21

㉔ The 2011, 24th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M.C(607-3142~1)

㉓ Baritone Yoon Poongwon Recital 19:30 Invitation/Yoon Poongwon(010-5239-2749)

22

㉔ Pianist Russell Sherman Recital 19:30 ₩70,000 · ₩50,000 · ₩40,000 ·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

㉓ Donation Concert-Yoon Hyogan Piano and tooth 19:30 Invitation Beautiful Foundation(02-3675-1231)

23

㉔ The 67th Youth Concert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2,000/B.P.O(607-3111~3)

㉓ Celist Song Unkyoung Recital-Cello and Guitar 19:30 ₩10,000/ArtsBankCorea(442-1941)

㉓ Regular Hansae Ocarina concert 19:00 Invitation/Hwang Mikyoung(010-5036-4787)

24

㉔ Busan Dance Festival 18:00 ₩10,000 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

㉓ The 25th Commemoration Eoulim Gukak (Traditional music) concert 17:00 Invitation/Eoulim Gukak Society(467-7975)

25

㉔ The 83rd National Dance Art Festival 09:00 Center Culture Dance Society(02-866-8880)

26

㉓ The 3rd Annual Tov Female Choir concert 19:30 Invitation/Lee Ilkyoung(010-4880-4918)

27

㉔ The Soprano Cho Sumi Recital Concert 19:30 Invitation/Credia(02-741-1521)

㉓ The Korea Opera 19:30 ₩10,000/Seo JoungA(010-7503-6564)

㉓ The Annual Piano essay concert 19:30 Invitation/Park Okhee(010-3882-2382)

28

㉔ The 4th Annual Busan Art Academy Society concert 19:30 ₩10,000 · ₩5,000 Choi Jungsoon(010-2565-9780)

29

㉔ The 39th Annual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Concert 19:30 ₩2,000/B.P.O(607-3111~3)

30

㉓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al Festival Busan Tea Agency(869-1551)

㉓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al Festival Busan Tea Agency(869-1551)

10/1

㉓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al Festival Busan Tea Agency(869-1551)

㉓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al Festival Busan Tea Agency(869-1551)



2012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 상 :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 대관내용

- 대 관 기 간 : 2012. 1. 1 ~ 2012. 6. 30
 - ☞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 접수 상담 시 안내
 -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 접수 상담 시 안내
- 접 수 기 간 : 2011. 9. 5(월) ~ 9. 23(금) ▶ 3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 조례 개정 시 변경된 조례기준에 따름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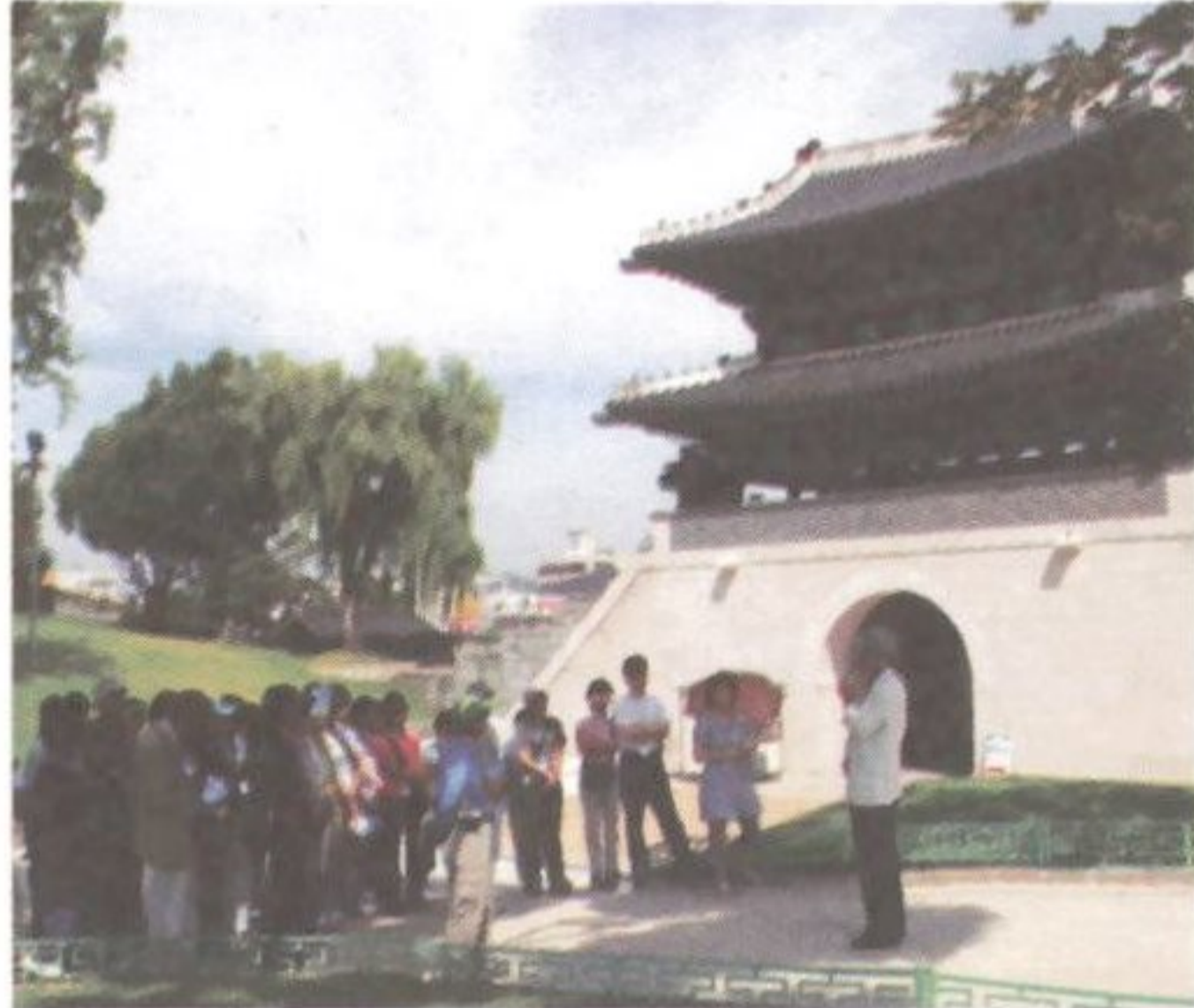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6051~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 **충절의 고장 진주 가을 여행**



진주성

진주성 대첩의 영웅 김시민 장군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10월 여행.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꿈꾸었던 죽곡전통삼베마을에서 풍성한 농촌의 가을
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진주도착, 진주성, 진주국립박물관, 축석루 탐방
- ▶ 12:30 중식
- ▶ 13:00 삼베전시관, 남악서원 탐방
- ▶ 14:00 삼베 염색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무진정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함안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의 주요 유적지 답사와 가을빛으로 물든 여산팔경
마을 농촌 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함안 도착, 고려동 유적지, 함안박물관, 무진정 답사
- ▶ 12:30 중식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00 여산팔경마을 곳감만들기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엑스비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Part II Yesterday

시청할 지하철역의 거리에서 예화등으로 걸어오며
자음 반대기는 오리 가을하늘을 바라보고서
'널 사랑하겠어' 라고 편지를 쓸까 고민하던
우리가 세상에 잠들기 이전의 이야기들...

동물원 콘서트
널 사랑하겠어

2011.9.16(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 관_ 부산문화회관 문 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입장권_ 전석 3만원 예 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연극 **극적인 하룻밤** 20% 할인



2011.9.16(금)~10.23(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폭소 코메디극 **허둥9단의 바라바라** 20% 할인



2011.9.20(화)~10.16(일)
화-목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사업분야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제작한 국악칸타타

공리성 백은곡

孤成月暈 고립된 성을 적이 달무리처럼 에워싸고
 大鎮不救 진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君臣義重 군신간의 의가 중하여 여기서 죽게 되니
 父子恩輕 부모간의 은혜를 소홀히 하니 불효를 용서하소서

2011. 10. 13(목) - 14(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정보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음악감독 김철호 연출 이병훈 대본 백훈기 작곡 강봉천 안무 홍기태

출연단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찬 BS 부산은행 후원 BBS 불교부산방송 metro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셔틀버스운행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7번가 피자 앞)출발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19:00